東亞日報
十四日夕刊 本紙八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金顯道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新幹會全體大會開催 ─ 有終의美를거두라 ─

一

新幹會 全國代表大會는 明十五日부터 二日間 市內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 開催된다。新幹會가 創立된지 이미 五個星霜、그間 一次의 正式의 會合도 없엇다가 이제 처번으로 正式大會를 開催하게되니 實로 新幹會의 一大盛事이다。더욱今番은 예예支會에서 어떠난 解消運動의 뒤를받아 그正體를 決定할 重大한 使命에잇는만큼 그意義는 特히 重大하다 하겟다。

二

回顧컨대 新幹會는 五年間 多難한가운데에 자라낫다。그 過程에 잇서 朝鮮 오늘날의 運動을 엔든것은 그 歷代幹部諸氏와會員諸位의 刻苦奮鬪에 依한것으로서 眞情으로 感謝를 表치안흘수없다。이제 오래간만에 이여 여러大한問題를 決定하게 되니 吾人은 深甚한 關心을 가지지안흘수없다。바라건대 有終의美를 거두지어다。

三大整理와 朝鮮 ─ 더욱緊急

一

六年度 本豫算에 잇서서 一億六千餘萬圓의 歲出節約을 하고서도 또다시 收支의 均衡을 得할수 업게된 若槻內閣은 行財政及稅制의 三大整理가 決定的인 것이다。官吏減俸의外에는 아즉 具體的方案이 서지못하엿스나 赤字를 내지 안키爲하야는 무엇을 해서라도 그 相當額의 補塡이 업슬수 업슬것이다。적어도 昨年度豫算에 잇서서 八千百萬圓의 歲入不足이잇슬것을 보고 議會終過後에도 不斷히 行政經濟化에 依한 六千五十萬圓、從軍元費의 歲出不要額으로서 一千萬圓、補塡의 必要가 잇는 것이다。政黨內閣으로서는 議會主義의 破壞라 하것은 바랄수업는것이다。故로 維持하면 目的을 達하는것이나 今番의三大整理는 民衆負擔의 輕減보다 赤字를안내려함이 主要目的일것이다。

二

若槻內閣의 眞目的이 어데에 잇다 할지라도 事實에 잇서서 民衆負擔輕減이 된다하면 民衆은 그것을 支持할것이다。이 三大整理의 目的은 殖民地地方에도 實現하려한다。그리하야 이미 海外殖民地의 在勤俸의 減下、殖民地 警察費의 減下를 云云하게되엿다。吾人年來의 指摘인 朝鮮警察費의 過大、朝鮮官吏俸給制의 過大가 若槻內閣에 까지 反映된것은 大幸이나 그러나 海外殖民地在勤俸의 減下라 하고 撤廢라 云치 안한것은 徹底를 期치 못한것이다。더욱이 警察費의 減下를 民衆의 負擔輕減下에쓰지 안코 殖民地에 잇는 軍隊備에 充當케하라하니 行財政整理의 目的은 이미不徹底한것이 瞭然하다

三

行財政에 잇서서 어떠한지 ……

稅制에 잇서서 또한 期待必要가 잇다。鐵道運賃도 必然的으로 減下해야 當然하다。이 稅制에 잇서서 또한 明若觀火다。未曾有의恐慌에 際하야 民衆의生活은 極度의 困難에 다 다랏것만은 地租에 對한 賦課率의 減下는 조금도 없고、營業稅의 免稅點의 引上은 依然히 認定되지안햇스며、資本集中에 依한 大資本의 專橫은 日益增加하것만 所得稅의 累進的 賦課는 依然히 採用되지안햇다。

四

行財政 三大整理에 對하야 緊急한 것은 地租의 減下、所得稅의 累進的賦課、營業稅의 免稅點의 引上等이다。其外 官業品價格의 引下 即 煙草價의 二割乃至 二割減、鐵道運賃의 一割減은 目下 緊急한 要求다。間接稅의 減下도 民衆의 切實한 要求다。煙草는 다른物價와 依한 土地改良部의 廢止、그他 殖產局의 一課의 減下等도 無用한 增設、大規模를 要치안는 山林部 등 殖產局과의 合同、其他 課、係의 廢合은 目下 緊急한 行財政整理의 科目이다。私鐵、水利에 今後의 補助金의 減下等도 重要한 項目이다。稅制整理에 잇서서 絕對로 行財稅의 三大整理는 朝鮮이 더욱 그緊急을 要한다。

不平等條約即時廢止宣言案可決

敎育方針、實業建設案도可決

十三日의國民會議

【南京十三日發電通】 本日의 國民會議는 日程第一 總理의 遺敎를 國民黨에서 國民에게 引繼하는 案을 上程하고 即決後 不平等條約 即時廢止 宣言案을 上程하고 起草委員側에서 突然히 激越한 悲憤慷慨的 字句를 避하고 어대까지던지 正義公論의 立場에서 國民會議의 宣言決議文으로하야 適當한 脫厚한것으로하얏다고 說明하고 別項의 宣言決議文을 朗讀後 贊成演說이 잇섯다 午前十時半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다시 敎育方針案 實業建設案을 委員會에로 可決하고 午後零時五分 散會하얏다

不平等條約 即時廢止案

完全한平等條約獲得

【南京十三日發電通】 國民會議를 通過한 不平等條約即時撤廢宣言決議案은 如左하다

不平等條約에 束縛되기 八十餘年 其間國家主權은 侵害되고 國家의生存과發達은 妨害되엿다 外國은 我國民精神의 緊張을 缺함과 暗黑한政府의 存在에 乘하야 不公平한 條約을 締結하고 不正한權利를 獲得하얏다 爾來中國經濟는 片務的義務를 負하고 國家國民은 疲弊하얏다 歐洲大戰以來 民族自決은 世界의 公理로되엿고 只今이야말로 中國은 政治經濟 모다建設에 努力하야 不平等條約 締結當時와 全혀 事情을 달리하얏다 中國의 加入하는 國際聯盟規約은 第十九條에 片務的條約은 當然改訂할것을 明記하고 國民會議는 이에 左의 決議를 中外에 宣言함

一、中國은 不平等條約 一切를 承認치 안흠

本決議는 單純히 中國生存을 爲함뿐만아니라 世界平和의 障害를除하고 近代文明의 諸點을 除하라하는것으로 我國은 一致結束 如何한 犧牲도 厭치못하고 實現케할 堅固한 決意가잇슴을 聲明함

二、國民政府는 中國의 國際의 完全한平等自由를 獲得할것

時局俄然急迫 一戰을未免?

廣東廣西及舊西北軍系呼應

孫科氏辭職不遠赴粤

【上海十四日發電通】 廣東廣西가 이미 蹶起하고 北方及現在共產軍을 討伐中인 ……

【上海十四日發電通】 中央對廣東의 妥協이 缺裂되어 和平解決이 絕望으로된바 當地滯在中의 孫科氏는 이미辭表를쓰고 今明日中 南京에 送하야 正式으로辭職하기로되엿다 孫科氏는 不遠廣東에 赴하야 反蔣派의 首領으로될터로 南京廣東에 政府의 對立을 보게될形勢로되엿다

北方에到着 反蔣通電

【北平十三日發電通】 汪精衛陳濟棠氏의 反蔣通電은 昨日北方에 到着하야 宋哲元、劉孔祥、孫連仲氏等이 相呼應하야 立하려고準備하는同時에 天津에 在한 張學良氏를 討蔣司令에 推하려고 目下氏에게 交涉中이다

討蔣의氣運 全國的으로醞釀

汪氏機關紙에聲明發表

【香港十三日發聯合】 汪精衛氏는 十二日機關紙 南華日報에 時局에關한 如左聲明을 發表하얏다

蔣介石의 獨裁政治가 玆數年間 當局에及한 罪科는 明白하다 此는同志가모다 痛心하는바로서 討蔣의 氣運은 至今全國的으로 醞釀되고잇다 討蔣의 前途는매우 樂觀된다 余의一日附 通電에對하야는 閻馮兩氏를合한 擴大會議全部가 贊成하여왓다

蔣軍討伐出征中의 舊西北軍系의 反蔣派諸將領이 呼應하야 起하려하매 中央亦戰備를 整齊中 蔣介石氏는 反蔣派의 潰滅을 圖하는中으로 時局은 遽然戰機를 孕한 一戰을未免할 形勢로보인다

胡氏外遊

蔣氏도無異議

【南京十三日發電通】 廣東問題가 漸次擴大化하야 和平解決도 早急達成치안는 模樣으로서 時局問題의 中心人物인 胡漢民氏는 此際모든 覊絆을 脫하야 外遊希望을 有하고잇는데 蔣介石氏는 別로 異議가 업는 模樣이다

高橋代議士失格

【東京十三日發電通】 大分縣第二區選出 民政黨代議士高橋欽哉氏의 選擧違反事件은 十三日 大審院에서 上告棄却되어 高橋氏는 失格으로되엿다

黃埔駐屯保安隊 突然叛亂을惹起

出動한廣東軍艦과對峙中

廣東엔戒嚴令公布

【香港十三日發電通】 去十一日以來 不穩한 形勢를보이든 黃埔駐屯 保安隊第三團은 十二日에 突然叛亂을 起하야 黃埔軍官學校 潮州砲臺를 占領하엿다 急報를接하고 廣東에서 即時六十二師의 一旅를 鎭壓次 派遣하고 海軍에서 福安外二隻의 軍艦이 出動하야 目下兩軍은 對峙中이다 이外에 黃埔와廣東間의 交通은 杜絕되고 廣東全部는 徹底戒嚴令을 公布하야 어마어마한 光景을 呈하고잇다

重光代理一行 南京에

【上海十三日發電通】 重光代理公使는 安屋、堀內、林出書記官等을 同伴하야 田中大使와함께 十三日 午後十一時發夜行으로 南京에赴하얏는데 法權交涉及電信交涉을繼續行할터로 田中大使는 十六日까지 南京에滯在할터이라한다

中國約法의全文(一)

八章으로成立된 永久히統一共和國

去一、二兩日에 亘하야 開催된 中央執監聯席全體會議는 先般起草를 終한 中華民國訓政時期의 約法草案을 修正하고 通過하얏다 그原文은 如左

國民政府는 革命의 三民主義 五權憲法에 基하야 中華民國을 建設함 이미 軍政時期에서 訓政時期에 入하얏슴으로 맛당히 約法을 公布하야 一體遵守케하야 憲政의 促成을 期하고 政을 民選의 政府에 授케하기 爲하야 이에 中華民國을 創設한 中國國民黨 當時의 遺囑에 從하야 國民會議를 首都에 召集하고 中華民國訓政時期의 約法을 議決하기 如左함

第一章 總綱

第一條 中華民國의 領土는 各省 及 蒙古、西藏으로함

第二條 中華民國의 主權은 國民全體에 屬함 무릇 法律에 依하야 中華民國의 國籍을 享有하는者는 中華民國의 國民으로함

第三條 中華民國은 永久히 統一한 共和國으로함

第四條 中華民國의 國旗는 紅地의 左上角에 靑天白日의 것으로 定함

第五條 中華民國의 國都는 南京에 定함

第二章 人民의權利義務

第六條 中華民國의 國民은 男女、種族、宗敎、階級의 區別이 업시 法律上에 잇서서는 一律로 平等함

第七條 中華民國의 國民은 建國大綱 第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야 完全한 自治의 縣에 잇서서는 建國大綱 第九條所定의 選擧、罷免、創制、復決의 權을 享有함

第八條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逮捕、拘禁、審問、處罰되지 안흠 人民이 犯罪嫌疑에 依하야 逮捕、或은 拘禁되는 者는 그逮捕、或은 拘禁의 執行機關에 二十四時間內에 審判機關에 移送하야 審問하고 本人或은 他人은 法律에 依하야 二十四時間內에 提審을 請求함을 得함

第九條 人民은 現役軍人을 除한外는 軍事審判을 受치안음

第十條 人民의 住所는 法律에 依치안코는 侵入搜查 或은 封鎖함을 不得함

第十一條 人民은 宗敎信仰의 自由가잇다

第十二條 人民은 遷徙의 自由가잇다 法律에 依치 안코는 停止或은 이것을 制限함을 不得함

第十三條 人民은 通信、通電秘密의 自由가잇슴 法律에 依치안코는 停止或은 이것을 制限함을 不得함

第十四條 人民은 結社集會의 自由가잇슴 法律에 依치안코는 停止或은 制限함을 不得함

第十五條 人民은 言論發表及著作刊行의 自由가잇슴 法律에 依치안코는 停止或은 制限함을 不得함

第十六條 人民의 財產은 法律에 依치안코는 封鎖又는 沒收함을 不得함

第十七條 人民의 財產所有權의 行使는 公共利益을 妨害치안는 範圍內에서는 法律의 保障을 受함

第十八條 人民의 財產은 公共의 必要에 依하야 法律에 依하야 徵用或은 沒收할수잇슴

第十九條 人民은 法律에 依하야 財產繼承權을 享有함

第二十條 人民은 請願의 權이잇슴

第二十一條 人民은 法律에 依하야 法院에 訴訟할 權利가잇슴

第二十二條 人民은 法律에 依하야 考試에 應할 權利가잇슴

第二十四條 人民은 法律에 依하야 公務에 服할 義務가잇슴

第二十五條 人民은 法律에 依하야 納稅의 義務가잇슴

第二十六條 人民은 法律에 依하야 兵役及工役에 服할 義務가잇슴

第二十七條 人民은 公署가 法에 依하야 職權執行의 行爲에 對하야는 服從의 義務가잇슴

本質的으로歸屬權確立

中露兩國全權間에議論沸騰

注目되는東鐵買收商議

【哈爾賓十三日發電通】 露中會議 專門委員의 一行은 十四日 莫斯科着豫定인데 即時第六回會議를開하고 莫全權은 前回의 카라한氏의 提案에 對하야

一、東鐵買收資金의 捻出方法

二、支拂方法과 鐵道財產의 評價專門委員會의 組織

三、支拂完了外지의 鐵道의 共同經營方法

에對하야 逐一中國側의 方針을 說明하고 具體的商議를 行할터이다 右는本質的으로 鐵道의歸屬權을 確然케하는것이니 만치 兩國全權間議論이 沸騰할것이 觀測된다

米國陸軍縮少

駐屯地削減廢止

【華盛頓十二日發電通】 米政府는 陸軍의經費를 節約키爲하야 比較的 적은陸軍駐屯地二十乃至三十個所를 廢止하기로 …… 帝國主義列强의 …… 게될것이다

辭令

【東京十三日發電通】

工兵第二十大隊附 工兵大尉 時田 淸

免本職

朝鮮憲兵隊司令部員 憲兵少佐 谷本 邦夫

朝鮮憲兵隊司令部附 憲兵大尉 高田 典文

補朝鮮憲兵隊司令部員

【東京十三日發電通】

任京城帝大助敎授(六等) 松本 ……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六等) 松本 ……

任京城帝國大學助敎授 ……

京城帝國大學助敎授 ……

齋藤總督 腦貧血

數日中恢復困難

【東京十三日午後三時三十分發聯合】 齋藤總督은 十二、三日來 腦가다루거 臥床中 十三日朝 沐浴湯에서 腦貧血을 이르커 目下 絕對安靜하고 局保主治醫의 治療를 밧고잇다

政府側의會見 今週中實現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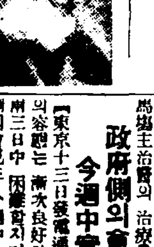
【東京十三日發電通】 齋藤總督의 容態는 漸次良好하나 恢復은 兩三日中 困難할지며 딸하 政府側의 會見도 今週中은 到底히 實現될수업슬것으로 觀測된다

德川議長閣僚招待晚餐

【東京十四日發電通】 德川貴族院議長은 十三日午後六時 若槻首相을 主賓으로 千駄谷의 自邸에 閣僚全部(安保海相欠)川崎翰長等을 招待하야 晚餐會를開하고 近衛副議長 各派交涉員等도 列席하야 歡談을 하고 同九時過 散會하얏다

佛大統領에 두메氏當選

◇……브리앙氏는落選



【베르사이유十三日發聯合】 國民會議에依한 佛國次期大統領 選擧는 第一回投票에서 絕對過半數의投票를得한 候補者업고 第二回投票를 行한結果 上院議長 포ー르•두ー메氏가 五百四票를 獲得하야 드듸어大統領에 當選되엇다 第二回投票의 得票數는 如左

當選 五〇四票 두ー메

次點 三三四票 브리앙

第一流人物 두메氏略歷

【巴里十三日發聯合】 新大統領에 當選한 두ー메氏는 一千八百五十七年 三月二十二日 오우리에서出生하야 本年 七十五歲로서 佛國의最偉大한 人物의一人으로서 令名이 놉다 일즉 英國의 로이드•조ー지氏는 두ー메氏를 評하야 「何事에도動치안는岩이다」라고한일이잇다 氏는三十二歲時 부르조아內閣에 財政長官 一千八百九十七年 佛領 印度支那總督 其後再次下院議員 一千九百五年 下院議長 一千九百二十年 上院에 入하야 상두베內閣에 無任所大臣 更히 一千九百二十一年에는 今日의 選擧競爭者인 브리앙內閣에 財政長官이엇섯다 (寫眞은두메氏)

中國政局과 露西亞見解

【莫斯科十三日發電通】 中國政局의 推移에 對하야 露國側은 大要 左의 見解를 나리고잇다

蔣介石은 勞農民의 生活의 改善을 高調하야왓스나 國民會議의 召集으로써 蔣介石의 中國統一은 具體化하얏스나 廣東의 反蔣軍과 蔣派는 이 資本家의 走狗인것이다 左로서 國民黨에依한 中國의 統一은 日英兩國의 中國에서의 ……

橫說竪說

□ …… 四月부터라고 …… 五月도 ……

□ ……

爭議團側讓步로 高尾爭議解決

家族一千名坑口에蝟集하야 爭議員의昇坑을等待

【下關十三日發電通】 世界勞働爭議에 新紀錄을 作한 福岡縣 幸袋高尾 第一坑의 爭議는 十三日 午前十一時에 至하야 解決되엿다 坑內籠城者 百七十四名은 百三十時間에 亘하야 退坑을 듯지안코잇는바 十三日에 至하야 爭議團側이 讓步하야 吉田勞務課長과 會見한 結果 本日中에 解決될希望이잇고 坑內代表五名이 昇坑하엿는데 籠城者도 昇坑의 希望이잇슴으로 同은 比較的 無事히 …… 坑口에는 家族一千名은 …… 救護員이 기다리고잇다

朝鮮人事問題 結局은「曇後晴」

園公과會見後鐵相談

【東京十三日發聯合】 江木鐵相은 十二日西園寺老公을 訪問한後 如左히 말하얏다 ……

鎭壓可望이업는 西、反帝政派暴動

盛히敎會와修道院을燒却

各地에戒嚴令公布

【크르도바(西班牙)十三日發電通】 反帝政派 暴動은 各地에서 燒却이 開始되어 바렌사에서는 五敎會 一修道院이 破壞되고 크르드바에서는 敎會二修道院이 燒却되어 戒嚴令이 公布되엇다 그러나 다에도 暴徒團이 義勇隊와衝突 死者三人 負傷七人을 내엇다 아러한데에서는 十二日夜來 戒嚴令이 公布되어 容易히 鎭壓될 가망이업는 模樣이다

財政整理

第一回委員會

一億五千萬捻出企圖

【東京十三日發電通】 財政整理案은 井上藏相 指示下에 主計局에서 材料蒐集中인바 十三日 午前十時半부터 藏相官邸에 第一回 財政整理準備委員會를 開하얏다 案의 內容은 嚴秘에 부쳐스나 整理의 目標는 大略 如左하다

一、財政計劃의 根本的改善을 計함

一、昭和六年度以降 繼續費十五億二百餘萬圓에 就하야 將來 七年度財政의 安定確實을 期하기爲하야 大部分으로 ……

一、延期可能額은 徹底的으로 斷行함

一、補助費 六千八百萬圓(大年度)의 徹底的 中止削減

李忠武公 墓山競賣問題

鄭寅普

一

實玆五洲에 어느방을 무를것업시 그民族의大難을當하고 大災를救하야 偉大한功烈이 잇는先民을 追慕、虔奉함은 다가른것이라 그의遺蹟의 尊崇함만부칠수잇스면 이를 實責하게알고 이를 愼護하게두어 千秋에遺蹟을 闡明하야 직히고자하나니 塋域과 靈蹟도 民族的으로 崇仰을 바드려든 항상함을 말로이를 것이라 英國人으로서 奈翁을 尊重하는것은 무론이니 ……

그中에도 그가업섯더면 國家가 업고 民族이업섯슬 다시말하면 그한분의힘으로 國家라고잇섯고 우리의 老幼男女가存在하게된 이만한 大功、盛烈을이루신분은 一人이 게실뿐이다 만만하야도 朝鮮人은 다알리라 이제우리 李忠武公의 墓所를뵈옵에 碑閣은 門짝이업고 屛風石은 틈이벌어 어근버근하고 莎草가 荒廢하야 墓階나 모다 버버로修治하지못한것이 돌어난다 墓所ㅣ이러할뿐에야 遺物의保存이 莊嚴하리라고 바랄수잇스랴

二

遺物保存할方法의 講究는 姑舍하고 墓所를 修治도 오히려 못하고 第二 間題로도라간다 지금 東一銀行으로부터 墓所가신 山坂을 故로 宅、祭田과함께 방장競賣에부치게되얏다 듯건대 忠武公嗣孫이 墓山을 銀行에 典質하고 期限이 넘으매 銀行으로서 規例대로 履行하는것이라하나 …… 節次에 依하게된것이라한다 ……

三

銀行으로서는 아니할수 업는 것이오 ……

四

李忠武의 墓山을 保存하는 責任은 朝鮮人의 共同으로 負荷할 것이라 ……

ClibPDF - www.fastio.com

武裝兩青年의蹤跡

警官隊와交火後 馬山嶺密林으로潜跡

批峴에서本社特派員徐範錫發信

雙方에損害는別無

一삭을 두고 의주군(義州郡)一대의 삼엄한경계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十五처의 민가를습격하고다니든 ○○단 무장청년 二명은 十二일오후九시경 월경횡행(越境橫行)이래 제十一회째에는 의주군월화면오천동(義州郡月華面午川洞)최치선(崔致善)의집에나타나 역시돈을내라고하다가 경계하는 의주서평정수(平井手)경부보가 인솔한중송(重松)박호익(朴虎翊)량순사와 충돌되어 약七분간이나맹렬히 교화하다가 이들무장청년은 마산령(馬山嶺)삼림속을 향하야잠적하얏다 이충돌이 바로민가 부근에서 이러낫스나 다행히 민간의피해는업섯스며 쌍방에도 아모피해가업섯다

胎兒가生苗 慶南固城의稀聞

【고성】 경남고성군삼산면두포리(固城郡三山面豆布里)리달성(李達成)(三五)의처김또이(金又伊)(三○)는 순산하야 생남하얏는데 순산후사보니 애의알에니몸에 백오가는 흰니스발이솟아잇슴으로 왼집안식구가 놀래엇고 동리사람들도 희한한일이라하야 이야기써리가되엇다한다

六署警官隊 百餘名出動

경관들은 모다변장을하고 馬山嶺을包圍搜索

이급보를접한 수사본부(捜査本部)(批峴駐在所)에서는 미리부터 출동지휘중이든 전중신의주서장(田中新義州署長)이하十여명의 변장한 무장경관이十三일새벽 현장을향하야 출동하는동시에 룡암포(龍岩浦) 철산(鐵山)신의주(新義州) 선천(宣川)의주(義州)등지에서 출동한 수사대 백여명이 마산령을포위하고 목하 수사범위를차차주려가는중이다 수사본부에서는 신의주서 내전경부보(內田警部補)의 일대가 각수사대와 련락을취하고잇슴은이오 마산령을 중심으로 월화면一대는 심로 긴시상태를 이루엇다 수사본부의 말을드르면 十三일밤부터 十四일새벽까지에는 이들이 수사망에 걸리리라고한다

그러나 이무장청년이 十二일밤 교화한때에 사용한 무기는 장총(長銃)이아니오 모젤권총인것을보면 무장은 장총과권총에 망원경을 가젓스며 식량은 十일 회상동(檜上洞)에서 탈취한 八인분의 밥중에서 두명의 一일분이 남엇스리라한다

「地理에精通 用意도周到

모험에 경험도 잇는모양」 搜查本部某警官談

마참내 수사경관대와 륙칠차동의 강탈을비롯하야 권연 이지하고 바람가티 잠적한○○단 무장청년 량명에 대하야 수사본부 모간부는 다음과가티말한다

범인들은 평북 더욱이 의주군의 지리와 민간사정에는 놀랠만치 정통하고 잇스며 또출몰하는 시간과 행동을 보면 모험에 상당한 경험이잇서보이며 대담합니다 령총(獵銃) 망원경 단기타식량까지 준비하고 다니는것을보면 용의주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월경한 지난달十六일부터 금일(十二일)까지에 출몰장소에 선을그려보면 남(南)으로남으로 향하고잇는것을 보면 다시월경도수하랴고 도는것갓지도 아니합니다 운운

越江侵入以來 十六處襲擊

현금과 식량도 강탈해가 ◇神出鬼沒한徑路

지난달十六일 월강침입한무장청년두명이 十二일수사경관과 충돌되어 수사망안에 들기까지 의주군하의 十六개소 민가를 습격하야 현금만 백十三원 十五전을 탈취하고 밥二十四인분과 가라무과、의복、잡품등을 강탈하얏다

出沒日誌

▲四月十六日 午前三時……의주군 수진면 운천동(義州郡水鎭面雲川洞)문옥빈(文玉彬)의 집에서 六인분의 밥을지어 가지고 잠적

▲同月同日 午前五時……동군동면 수구동(水口洞) 최룡현(崔龍賢)의집에 침입

▲同月十九日 午後十一時……동군동면 리화동(梨花洞)조만영(趙萬永)의집에 침입하야 一원十五전과 담배를강탈하고 이어 동동리화실(李花實)의 집과 리창현(李昌賢)의 집에 침입하야 리창현의 집에서는 밥두사람분을 강탈잠적

▲同月二十日 午前四時……동군가산면추동(加山面楸洞) 최달집(崔達楫)의집인 상무조합(商務組合)에 침입 현금 二十五원을 강탈잠적

▲同月二十八日 午後九時……동군고성면 룡동(古城面龍洞)고병찬(高秉瓚)의집에침입

▲同月二十九日 午前一時……동군고관면하단동(古館面下端洞)김효렬(金孝烈)의 집에 침입하다가 김효렬을 압세우고 김상국(金尙國)의 집에 침입하야 현금 四十五원을 강탈장적

▲五月四日 午後十一時……동군고녕삭면 구창동(古寧朔面舊倉洞)문천성(文天成)의집에 침입 현금二十원과 련총한자루에 탄환세개、망원경한개를강탈장적

▲同月五日 午前二時……동군일녕동(一寧洞) 김치화(金致和)의집에침입

▲同月六日 午後九時……동군 고관면남창동(古館面南昌洞)홍원표(洪元杓)의집에침입 담배열갑 인단(仁丹)두갑을강탈장적 이어 부근인 최형률(崔亨律)의집에침입 현금十二원、바지、저고리한벌、八인분의밥을강탈장적

▲同月十日午前零時……동군월화면회상동(月華面檜上洞)장신요(張申堯)의집에침입 배동팔목시게 한개、만년필한개를 강탈장적

▲同月十一日午後九時……동군동면 추봉동(鷲峯洞)한명섭(韓命燮)의집에 침입하얏다가 한시간후이어 마흥동(麻興洞)장상현(張尙賢)모의집에 침입하야 十五원을 강탈장적

▲同月十二日午後九時……동군동면 오천동(午川洞)최치선(崔致善)의집에침입하다가 의주경찰서 평정수경부보의 인솔한 경관대와 약七분간 교화후 잠적

日本染織社 絕食爭議解決

연돌에 올라가든 직공도 三百時間만에下地

【동경十四일발전보련합】 여러번보도한 일본염직회사(日本染織會社)의 쟁의는 절식동맹(絕食同盟)에 六十명이나 되는 직공을 희생시키어 입원시키고 연돌남(煙突男)까지 내어 세상의『센세이션』을 이르키더니 금十四일 오전五시경에 무사해결이 되엇다 지난달二十一일 쟁의개시이래 二十四일이오 연돌남도 처음三백六시간여의 긔록을 남기고 경시청관방주사의 알선으로 쟁의단대표와 회사측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타협이된것이다 이로 말미아마 연돌남은三백六시간여 만에 지상(地上)에발을 내어노코 다수한 직공들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엇다고한다

車掌室黑板에 不穩文字색여

【동경발十三일전통】 十二일오전九시 동경역착신호발(神戶發)一、二등급행렬차의二등침대차五七二二호차장실오리관에『스트라익』을결행하라『국유철도의자본주의……』라고한 붉은분구를 예리한칼로 색인것을 가동차장이발견하얏다 그즉시로 철도국에 보고하야 그관장을 박구어씌고 범인을엄탐중이라는바 범인은 현철도종업원인것만은 틀림이 업다하야 철도당국에서는 과민한신경으로 조사활진행중이라 한다

通川火災

【통천】 지난十

失期된窮民救濟 諸事業尚未着手

◇內務局長도即時起工을命令 春窮에 書類만往復

六百五十만원의 예산으로 三개년간계속하는 궁민구제사업은 하로가밧브게 시작하여야될것인데도 불구하고 춘궁이당도한오늘까지 아직착수는안허 그공사의본의를 의심하게 되엇다 지금까지의 상황을보면 긔채인가(起債認可)를어든지방이경북、충남、평남 강원외 四도에 불과한중 공사를착수한곳은 평남가은몃도에불과하고경긔、전북、함남은 겨우서류가 제출되어심의중에잇슬뿐 그남어지도는 겨우서류가 제출되엇거나 또는제출되지안헛다 이제서류가 제출된다더라도 주임、사무관、과장、국장의도장을찍는시일이상당히걸릴터임으로 과연이공사는 언제나 시작되어 조금이나마궁민구제사업에 도움이될는지 모른다 내무국에서는 수일전에 즉각사업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얏스나 이미춘궁이박두하고 또그공사가 대개정부채(精貧補)로 되엇슬만큼 궁민구제의목적이 확명에도라갈념려가잇다

◇시내人가‖郊外育岩寺附近의 [illegible]水石‖

留置場에서 絕食을同盟

二十九명중 十六명이 단행 城津署에要求提出

【성진】 함북성진경찰서(咸北城津警察署)에는 사상단체인 十六명과 자범을합하야 二十九명이 류치되어잇는데 지난十일 정오부터 『정좌(靜座)』를 평좌(平座)로하라 식사(食事)를개선(改善)하라! 검속자를 속히석방하라」는등의 요구조건을제출하면서 류치장안에서 일시에고함을질으며 일대소동을 일으키고 十일점심부터는 二十九명이 一제히단식을하얏다하는데 그二十九명중十六명은 十二일정오까지 二일간을굴한복음 밥하슬 입에대이지안핫다한다

이十六명은 성진 사회단체의 인물들인데 지난메이데이의검속자들이라한다 十六명외잡범들은 十일점심만 동맹단식하고 十일저녁부터는 식사를하엿다 한다

署長은面會謝絕

【성진】 지난十일부터 일어난 함북성진경찰서 류치인단식동맹사건(斷食同盟事件)으로 성진경찰서장 사법계주임등을 방문하여 본사건에대한 경찰당국의대책과 해결책을 드르려하여 十二일十三일량일간二회나 본보성진지국기자가 면회를 청하엿스나 사건이 만코복잡함으로 면치못하겟다항의으로 부득이 고동이번사건은 신간회(新幹會)해석하리라한다

期限滿了되도록 水組費依然未納

三월말일까지 六할八분에 불과

연납과한사지 기다려도 완납은 무망

금년수리조합비 납부성적이 비교적 량호한편이라고 토지개량부에서는 말하나 납부기한인 三월말일까지의 성적을보면 조정액(調定額)에대하야 六할八분밧게되지못하며 연납과한이라도 완납의 가망이 업스며 따라서 토지개량 사업의전도가암담하다고한다

三월말일까지의 성적을 수자로 표시하면 조정액 七백九十五만六천원중납입된것은五백四十一만 七천원 박게되지안코 또보관(保管)된 정조(正租)로 대납될가망이잇는것이七十八만五천원이오 미납이 二백五十三만원이다

도별로 납부성적을 보면 충북의성적이 제일이오 락산(樂山)수리조합을가진 함북이제一불량하야 완납액이 겨우一할六분에 불과하다 평남도 불량하야 三할八분이고 강원도도 五할에 불과하다 각도를 세별하면다음과갓다

京畿	七、〇〇割	忠北	九、〇〇
平北	八、九〇	全北	八、六〇
忠南	七、六〇	全南	五、一〇
慶北	五、九〇	慶南	六、二〇
黃海	五、三〇	平南	三、八〇
江原	五、〇〇	咸南	五、四〇
咸北	一、六〇		

土改事業前途에暗影

계주임을면회하고 전긔사건을 물으니 자긔는사법계에 관계치 안홈으로 금번사건은 전혀모른다고말하얏다

大邱地方法院檢事 警察과聯絡活動

경북각지에서 활동을 개시 新幹會解消派檢擧?

【대구】 지난七일 룡산서(龍山署)경부一명이 형사대를 대동하고 대구(大邱)에 출장하야 대구를 중심한 경북도내에비상선을치고 대활동을 개시하야 지난九일에는 동해안(東海岸)방면에 급행하야 본보포항지국(浦項支局)기자리걸소(李傑笑)씨를 검거하얏다

경북도경찰부에서는 복전(福田)고등과장이 대구지방법원검사국 송전(松前)검사를 차자간일이잇슨후 고등과와 검사국은서로호응하야대구를필두로군부의 모종인물을 검거코저하는 一변송전검사는 룡곡(龍谷)서기를 대동하고 十一、二량일간에 모모방면의 실지검증하는등 사건의도내관계자만 해도 다수에 이를모양이나 당국은 극비밀에부침으로아즉 검거된내용은 알수업스며 며개는 이번사건은 신간회(新幹會)해소에 반하야 전선에 배친모종비밀결사가잇다는 추측을하고 하는활동인듯하다한다

서울雜誌協會 臨時大會開催

시내조선문 잡지사의 협의긔관인 서울잡지협회에서는 十三일오후 여덜시 천도교긔념관에서 림시대회를열고 근자에언론긔관에대하야 폭력적 행동이루어지는데 대하야 금후그페단을근절하기 위하야 『정정당당한언론에 관한문제를 언론으로써대항하지아니하고 폭력으로 대하는자가 잇슬때는 용서업시자위책을 강구하자』는 결의를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다시이것을사회에 성명하기로 결정하얏다하며 그밧게 검렬에관한청세조사보고와 위원보선 신문광고료금 검하운동에 관한협의가잇섯다한다

新潟縣大火 五百戶全燒

【신석현十四일발전보련합】 신석현중포원군 백근정(新潟縣中蒲原郡白根町) 五十六번지 평야심내(平野甚內)의집에서十三일오후 七시五十분경 발화되어전소五백四十호가 전소되엇다고한다

아번화재로 말미암아 리재민은二천五백명에달하고 손해는약四十만원에 달한다전한다

登校를命令

佛專盟休事件

혜화동(惠化洞)중앙불교전문학교 맹휴사건에대하야 학교당국은 오는十八일까지 등교치안호면 방침대로 퇴교처분을하겟다고 十三일부로 학생측에서는 백성욱(白性郁)씨가취임을거절한것은 불교교무원의 성의가 부족한것이라고 학생대표를뽑아 백씨에게 보내 교섭하려라는말이잇다

申錫九控訴

정부(情夫)사건으로써 본부를 살해햇다는 사건으로 경성지방법원一심에서 사형의판결을 밧고 손선남(孫先南)과함께 춘천군남면행촌리(春川郡南面杏村里) 신석구(申錫九)(三○)는 十三일 필경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긔햇다

新幹會全國大會는明日

今日에는中央委員會

신간회전국대회(新幹會全國大會)는 명十五일오전十시부터 시내 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다고한다 그리고 금十四일오후二시부터 동본부회관에서 제五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엇다하며 지회대의원으로 금十四일아츰까지에 입경한사람은 三十여명인데 각지방에서 대회에참석코저하는 대의원이 七、八十명에 달하리라한다

는사람이 一백二十四명 이엇다 는것이다

十八名中七名無罪 最高五年役言渡

未決拘留通算各二百日式 ◇全北事件의判決

전북공산당사건의 림종환(林宗桓)등十八명에대한판결은 十四일오후한시 경성지방법원에서 삼포(森浦)검사간여하에 금천(金川)재판장으로부터 압에와가티 언도햇다

사건은 재작년봄 경긔도경찰부에서 검거한이래 三개년동안이나 끄러오다가 겨우결정이되엇는데 피고十八명중 무죄가일곱명이오 유죄는 최고五년 최하二년이며 미결三백일씩을 통산하는외에 집행유예는 한사람도업섯다

무죄된사람중에 은성천(殷成天)은 삼포검사로부터 일즉二년징역을 구형하얏섯스며 그외의무죄된사람 여섯명도 삼포검사가二년을 구형햇든것이다

被告	求刑	言渡
▲李謙明	五年	五年 未決三百日通算
▲崔來燮	四年	三年六個月 同
▲孫在洪	同上	同上
▲孫炳李	三年	二年 未決三百日通算
▲沈炳燮	同上	同上
▲尹圭燮	同上	同上
▲孫命錫	二年	同上
▲朴海根	同上	同上
▲李斗用	同上	同上
▲朴得洙	同上	同上

▲殷成天▲李鍾奎▲文仲賢▲鐘川華▲柳然基▲朴魯順▲宋柱祥 以上七人無罪

檢擧는段落? 第二段活動

현재四十명을 취조중이다 龍山署事件續報

전조선적으로 검거의손을 펼처 쉬질바를 모르는 룡산서(龍山署)취조중에 비밀결사 혐의사건은 작금에이르러 무슨새로운 단서를 어듬이지 금十四일부터 평안(平安)、황해(黃海)、함경(咸鏡)、경상(慶尚)등각도로부터검거의망을거두어드리고 광주(光州)를 중심으로 전라도의검거망만 의연히 그대로두어계속 활동중이라한다

이와가티 전조선적으로、경긔도 경찰부 고등과 형사대와용산서 고등계 형사대는 속속귀입하는동시에 四十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한지 十여일이나 지난 이지음에 이르러 비로소 치안유지법 위반(治安維持法違反)의 원까지어떠 지방에출장한 동서

宋鳳郁取調 『골절은아니다』

그러고 재작十二일밤 동서고등계 주임을 란타하야 부상을입히고 도주하려다가 체포된 이번사건의 유력한피의자 송봉욱(宋鳳郁)은 이층에서 뛰어나리다가 제十一척수골이 부러진듯하다하야 작十三일 오전에 룡산철도병원에서 엑스광선으로 검진한결과 골절의정도는 아니라하며 치료十일간을요할정도의 부상이라하야 동서로 인치하야 계속취조중이라 한다

半數以上이 寄生虫保持

三백廿六명중 백八十五명 幼兒無料試驗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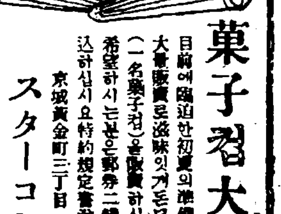
금十四일 경성부 위생실험실(京城府衛生試驗室)발표에 의하면 지난 五일부터十二일까지 八일동안 유유아애호주간으로 시험(幼乳兒愛護週間無料試驗)결과는 다음과 갓다고 한다 채변검사자(探便檢查者)는 모다 三백二十六명으로 그중에 기생충(寄生蟲)이 잇는 사람이 一백八十五명이오 검출불능(檢出不能)자가 七명 기생충이 업는 사람이다

기생충이 잇는 사람 一백八十五명중에는 한사람이 여러가지 종류의 기생충을 가지고 잇기 때문에 그들 기생충의 종별로보면다음과갓다

▲十二指腸蟲卵=二〇 ▲東洋毛樣線蟲卵=六 ▲蛔蟲卵=一一六 ▲鞭蟲卵=一一五 ▲肝『지스토마』卵=一 ▲條蟲=一

橫城에또火災

【횡성】 지난四월초순에 二十여호나 전소한횡성읍시가지(橫城邑市街地)에복구사업이 아즉완전히 되지못하여잇는중 지난五월十二일밤十시경에 동시가지리명실(李明實)방에발화하얏는데 때마치순회연극광천극단(巡廻演劇光天劇團)이 개연중이엇슴으로 화보를듯은일반관극자들이 一시에몰려가서 진화에 노력하얏슴으로 약十五분후에 진화되엇는데 원인과손해는 아즉조사중이다



菓子컴大販賣

目前에迫迫한初夏의準備에가장손쉬운 大量販賣로滋味잇게돈모어지는조타운 (一名菓子컴)을販賣하십시요

希望하시는분은郵券二錢封入大至急申込하십시요特約規定書送呈합니다

京城黃金町三丁目 スターコン商會 電話本局二三二一番

公認 明治自動車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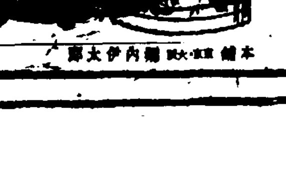
懇切指導 … 入學規則二錢切手封入申込하시면送呈 京城黃金町五丁目

淺田飴

기침 一切 / 感冒 / 喘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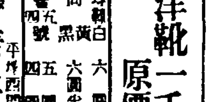
感冒한사람 / 音聲쓰는사람 / 咽喉弱한사람

効果 百여一센트



(全國各藥店에有함)

本舖 東京·京橋 堀內伊太郎



洋靴一千足 原價進呈

紳士靴黑白 六圓 / 同 黑黃 六圓半 / 學生靴 五圓 / 子供靴四圓

高級靴短靴 六圓 / 高級깃도短靴 八圓 / 編上靴各一圓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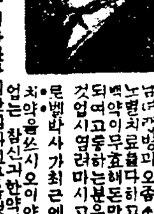
目錄進呈 京城西門通 青年洋靴店 電話一二三〇番 地方代金引換歡迎

림질 대하증 근치

절대보증

만일무효면돈을 도로드림니다

유명한독일구로베박사 가발명햇슴니다



만명이면만명이 낫습니다

直輸入藥商 發賣元

京城府西大門町二ノ八六 (石工場前)

신성당대약방 神聖堂大藥房

振替京城四九五〇番 電話 長光二三一二番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榮山浦人士의 覺醒을 促함

榮山浦 一記者

榮山浦는 米穀、棉花實綿、繭叺等의 年産額이 實로數百萬圓에達하고 交通이至便하야 可謂 全南의 實庫라고할수잇다 그러나實地內容을보면 榮山浦의 모든利權은 밧서 우리의 손을떠나간지 오래다 農村經濟의太宗인 土地의七割以上은 日本人의 占領한바되고 市內의商權은 外國人이 八割以上을 占領하얏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青年은 이大勢를 挽回하라는 努力도업고 아니意識조차업시 酒色雜技에耽溺하니 어찌 慨歎할바아니랴

×

적어도一萬三千餘의 住民을 가진 本地方에잇서서 可히朝鮮人을 代表할만한機關이무엇이 잇스며우리를爲한 事業은어데에잇는가? 青年의代表機關으로青盟의支部라는 것이잇스나 形跡의有無까지도 分別할수업스며「十六日會」는社交雲會를主催하는한 社交機關이다十六日會가 繁盛하는것은 무슨큰事業이나 잇서繁盛함이아니라半遊興的 消費的氣分을助長키爲함이니 이寒心할바다

×

勿論十六日會를 排斥함은아니다。社交機關이업서도 안되지만 그外에事業團體가업다함이다 榮山浦人士여! 本地方의經濟를보면 總面積近六千町步의 土地가七割以上이남의손으로移動을하엿스며 商權은남에게占領하엿스니 이것으로보면우리의生活은 어느程度에잇슴을 알것이아니냐。우리의힘을가지지안코 뉘가이것을挽回해주랴。그러밧부지안코社交費를節約하고 時間을統하여商業을爲한農業을經營한다는 公共爲한事業을이러켜보랴안는가。오즉우리의 살길은이것뿐이다。

三千浦에紅疫猖獗 死亡者三十餘名

어린애 잇는가정은 방심못해 現在患者二百餘名

【삼천포】 경남 삼천포(三千浦)에는 지난달상순부터 홍역(紅疫)이 발생하야 근일에와서는 갑작이 창궐되어 환자가 二백여명이고 이미죽은자가 三十여명에 달하얏다 유아를 가르는 일반 가정에서는 근심중에잇다

三湖經濟講演

성황리에

【삼호】 삼호시민회(三湖市民會)에서 본사 경제부장 서춘(本社經濟部長徐椿)씨를 초빙하야 경제문제강연회를 지난 十일오후三시부터 삼호공립보통학교(三湖公普校)내에서 박형수(朴炯琇)씨사회로 개하고 세계적공황과조선경제계의진상(世界的恐慌과朝鮮經濟界의眞狀)이란연제로 연사 서춘씨가등단하야 약네시동안 열변을토하야동六시에 폐회하자 六十여명 삼호유지로부터 다과를 진정하고 환영회를 개최하얏다는데 주객간에 서로흉금을헤치고 감상담까지잇섯다

하고 경남긔자대회(慶南記者大會)준비에대한 사무분담(事務分擔)을 협의에의하야 알에와가티 변경하얏다 ▲庶務部鄭元祚▲財務部鄭淳鎬▲案內部李軫甲、盧正述▲設備部卞鎭王、鄭元祚、李根英

於之屯水組反對의 地主大會禁止

진정결과 보고하려는데 「最後까지絕對反對」

【사리원】 황해도봉산군 어지둔수리조합(鳳山郡於之屯水利組合)구역안에 토지를가지고잇는 일반지주들이 동조합설립을 반대한다함은 루보한바와 갓거니와 반대측에서는 총독부에진정한후 지주대회를열고 경과보고겸총후방침을세우고저 경찰당국에집회신청을하고 대표자리덕환(李德煥)씨외몃명이 지난十三일 오전에 교섭하엿스나 여러가지리유로 종시집회를 허락하지아니하는 까닭에 그들은 불평이만만하야 하는수업시도라갓다 그런데 지주대회는 뜻가티개최하지못하나 그대신으로 일반지주들은 이미자각을 굿게하고 뭉처가지고 끗까지단결을하는데에 큰자극께가려서 최후까지 절대반대하게될터이라는데 모지주의 말을드르면 일반지주가모여 조직되는 수리조합이라고하면서 지주대다수가 찬성을 반대함에도불구하고 사업을진행하는은 무슨까닭이며 긔쳐답이 반수이상이고또한 수원이 조와서 별로히수리조합의필요를 늣기지업시 녯날부터농사를하야온것이사실인데도가여히만흔 조합비를 지주들에게 부담을시키가면서까지 만들필요가 업다고한다

間島同胞의 歸鄕者接踵

회녕서 관내의 통계로 四月에만百餘名

【회녕】 살길을차자두만강(豆滿江)을건너간도(間島)에 이주하든동포들이 그곳에서도 또생활의안정을엇지못하고 다시두만강을건너 조선내지를 돌아오는수가격증하고잇다함은 루차보도한바어니와 이제 회녕경찰서(會寧警察署)관내의 四월중의 귀향자수만 二十一호에백十명의다수에 달한다고 한다 별하서 금춘회녕서관내의 귀향자수는 적어도八백명은 넘으리라고추측된다

尙州金組理事 徵役十個月

【대구】 일시 세간에 적지안흔 파장거리가되는 상주금융조합(尙州金融組合)전리사 지무반작(志茂半作)과 서긔박희렬(朴熙烈)두명의 부정사건에 관하야는 당시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부당대부(不當貸付)문서위조행사 사긔횡령 배임죄등 범죄로서 대구지방법원 형사부(大邱地方法院刑事部)의 공판에붓처 오든바지난十一일오전에 동법원송하(松下)재판장、송전(松前)검사의 립회로 개정하고 두명의 피고에 대하야 징역각 十개월 二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언도를 하얏는바 피고들은 그대로 복죄할모양이라 한다

陜川記盟委員會

【합천】 경남합천긔자동맹(陜川記者同盟)에서는 지난十一일 오후一시경 동아일보지국(東亞支局)내에서 보통위원회(委員會)를 개최

咸興立候補 政見發表演說

【함흥】 오는二十一일의 부협의원선거를 앞두고 부내 유권자유지들의발긔로 오는 十六일 오후一시에 동명극장(東明劇場)에서 입후보의정견발표연설회를 개최한다는데 연제와씨명은 다음과갓다

府民의實力增進을期함 姜學桓
電氣府營과自治 高敬軾
府民을爲하야 毛顯福
自治와市民 李曦燮
余의가장努力할바 蔡容默
至公無私 崔相玉
府政은府民本位로 韓相周
公職者에對하야 朴鵬鉉
演題未定 金夏涉
同 權宅周
同 張道河
同 劉炳義
同 韓昌達

南朝鮮野談巡訪

其四

尹白南

光州는 果是 大都市외다 都市의 형모와사람들의 얼골에는 밝은 氣分이 흐릅니다 支局長 金容煥君은 下午一時에 到着한 나를 두잡이를 시키어 公立高普와 須彼亞 女學校에서 各一時間餘의 長講을 强請하얏습니다 同氏의 活動을 감사하는同時에 원망도 나더니다

×

下午八時半부터私立學校講堂에서約三時間의 講話를하얏는데 場內가 매우靜肅하고 흠품한번하는이가 업는것을 보매 晝夜長講의 고달픈몸에도 감사와 愉悅이 가슴에솟아 오르더이다

×

이날밤 講演을 마치고 일부러 訪問하야준 여러親友와 마츰 이곳에 滯在中인 麗水支局長 盧氏와함께 午前세시가 넘도록 坐談에 꼿츨 피우게 된것도 한개의 잇지못할 記憶이 되겟나이다

×

光州여 그이름과가티 빗나는 光州여 永遠히 너의비출 감초지마소

×

光州에서는 萬古忠臣 金德齡의 傳說을 못드른것이 섭섭이외다

自動車가傷人

【광주】

貸附金擔保土地의 地價僞造事件

식은에 二만五천원 대부 被告八名에 一年씩求刑

【해주】 옹진군동남면(甕津郡東南面)의 김동순(金東舜)및동군마산면(馬山面)의 장춘하(張春夏)외 六명이 토지담보물(土地擔保物)을가지고 소화四년二월에 식산은행해주지점(殖銀海州支店)에서 二만五천원의 대부금을 엇는데잇서서 담보물인 토지에대하야 지가(地價)를 위조하얏다는것으로 작년七월에 검거하야 八개월동안을 해주지방법원에서 예심취조하든 동사건은 지난十二일에 공판을열엇다 리유는 채무자되는 김동순이 사긔면내에잇는 토지 수백평을 담보함에 보증인 및옹진금융조합(甕津金融組合)서긔 리긔동(李基東)등이공모하고 十五원가격의토지등을七十여원등으로 증액스켜서 문서를 위조하엿다는리유이다

江西火災는 兒戲로判明

【평양】 긔보=지난五일 강서군반석면 상사리(江西郡班石面上四里)의 十二호 十七동(棟) 전소의 대화는 긔보와 갓거니와 그발화원인은 이래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든바 어린아회의 불작난에서 시작된것이 판명되엇다 그는 동리 김종근(金鍾根)의 손녀 창심(昌心)(六)이 집안에 아모도 업는새에 부엌에서 계란(鷄卵)을 구어먹는다고 불을 피운것이 몹시부는바람에 불길이 이러나 마츰내 그러케

東萊郡廳雇員 公金消費코逃走

◇오천여원을 소비하여 旅行後半月만에發覺

【동래】 동래군청재무계(財務係)고원 박모(朴某)가지난四월二十五일경에 사사려행원(私事旅行願)을 제출하고 어데로간지 반달이 넘도록 아모 소식이 업서서 군당국으로서는 그외행방에 의심을 품고박모(朴某)가 맛터보든 지방세(地方稅)각면증수문부(各面徵收文簿)를검사하야보니 의외에 공금(公金)을 약一천원가량 소비한것이 들어난모양이다 박모(朴某)가 긔과공금을 소비하게된것은 화류계(花柳界)에 빠저서 랑비한까닭이라 한다

解消키로可決

長城青年同盟

【장성】 전남장성청년동맹(長城青年同盟)에서 지난十一일오후四시二十분에 당지 갑자청년회관에서 김옥(金鈺)씨의 사회로 대회를열고 순서를진행하는중 책총해소문제에들어가 장시간질문론전을 하다가 필경해소키로결정하고 다욱과가튼 사항을토의한후 동八시반에 폐회하얏다

重傷鑛夫死亡

【회녕】 회녕군운두면(會寧郡雲頭面)계림탄광(鷄林炭鑛)에서 로동하는 광부김영옥(金永鈺)씨는 지난六일 굴속에서 동발맛치는작업을하는중 돌연히 나무틀이 딸르면서 떨어지자 말선하야 굴너나리면서 그만 김영옥씨의머리에 다쳐서 두개골이 깨여젓다 즉시 회중의원(會衆醫院)에서 응급치료를 밧고 도립의원에서 입원치료하엿스나 원래중상이여서 지난十一일 사망하엿다

老人이轢死

수리공사에서

【경주】 지난十二일 오전十一시쯤 경주군 천북면 동강리(川北面東江里)에서 수리조합공사를 하든중 원적을 영덕군지품면 곡궁동(盈德郡知品面谷弓洞)에둔 김덕수(金德洙)(五七)와 외한사람이 흙을만재한 구루마를밀고 급속도로 괴도로달려가든중 용강리에사는 김봉갑(金鳳甲)(六六)로인이 구루마의소리를 듯지못하고 그냥선로에서잇다가 력살되엿다

古都慶州에 飛行機遊覽

◇定員百名、參加費十圓 本報釜山支局募集

【부산】 본보부산지국(釜山支局)주최로 경주비행유람단(慶州飛行遊覽團)을 조직하야래월첫일요일(六月七日)에 비행긔를 타고 경주구경을 하려가기로 결정하얏다 참가비(參加費)는 한사람아페十원식이고 정원(定員)은 一백명、참가과원은 이달그믐날까지이다

경주라는곳은 불국사(佛國寺) 석굴암(石窟庵)기타명승지와 고적(古蹟)의 만흔 곳으로 유명한곳인것은 누구나 다잘아는바이동시에 어느누구를 불로하고 한번구경을하고 십허하지안는이가 업는터이다

그와가티 누구든지 한번구경을하고 십허하는 그조흔곳을 더욱이 록음방초(綠陰芳草)가 무르녹고차지도 덥지도안코 알맛하게 쌋듯한이 조흔철을 기하야 나는새와가티 창공에서 떠날려다니면서 유람을 하기로 되엇스니 그얼마나상쾌할것인가 하는것은 따에안자서 상상하기보다 몃배이상일것이다 이와가티 비행기를타고 경주유람을하려가고저 계획하는것은 아마조선에잇서서는 이번동아일보부산지국의 주최가 그처음으로 어려운 이조흔기회를 노치지말고 정원이 만원되기전에 속히만히 참가하기를바란다

平壤基青總會

【평양】 평양기독교 청년회(平壤基督教青年會)에서는 제十회총회를지난十一일 하오八시반에 부내백선행기념관(白善行紀念館)에서 개최하고 만긔된리사(理事)개선과 각부보고가잇섯고 폐회한후에는간친회로 회원의 친목이잇섯다한다 改選된理事

▲朴泰成▲池浩殷▲洪基瑀▲趙鍾完

失職우에失戀코 鐵道自殺

급행렬차에 뛰어들어

【평양】 부내신양리(新陽里)一八번지 박긔화(朴基和)(二七)는 실직(失職)과실연(失戀)을 비관하고 十二일 오후二시四十八분 서평양역(西平壤驛)을 떠나 평양역으로향하든 제一四二호 급행렬차가 서평양역에서 一백四十미돌 지점에이르럿슬때 그대로 뛰어드러 철도자살을 하엿다

그는 최근에 부외『콘스타친』회사의 공사장에 로동자로 사용되다가 十일에 해고선언을 당하고 이로 인하야 약혼하엿든 녀자에게서 버림을 당하얏슴으로 마츰내 세상을 비관하고 그와가티 자살하고만것이라한다

渡船料過徵

주민은비난

【선산】 경북선산군(慶北善山郡)에서는 어느곳을 물론하고 구역을 정하여 가지고도선(渡船)하는 사공들이그구역내에주거하는사람들에게는 보리가을에와 나락(稻)가을에두철에난호아 수곡(收穀)을 하야가지고 세금(稅金)도하고 자긔네의생활도하야 가든바 근일에는특별히 귀미면비산나루(龜尾面飛山津)에서 구역내외인사에게도 현금으로 도선료를 밧는다는바 보행하는사람에게는 五전우마(牛馬)에는 十전씩밧는다 하야 전에업든짓이라고 주민의 비난이 만타

星松殺人强盜

九日無罪放免

【고창】 전북고창군 성송면판정리(高敞郡星松面板井里)큰길가에서 거년十월초에 길가는사람을 박주에 살해한 살인강도(殺人强盜)범인으로 고창경찰서에 검속한 전남령광군령광면 관현리(全南靈光郡靈光面館峴里)리화삼(李化三)은 사실자백을바든후정읍검사국(井邑檢事局)에넘겨 동검사국에서는 예심에부치고 우금八九삭 동안을 취조하얏는데 경찰에허위자백한바에의하면 전과 사건의증거불충분으로 지난九일에무죄방면하엿다

槐山市民運動

오는廿四일에

【괴산】 괴산체육협회(槐山體育協會)주최로 제一회 시민대회를 오는二十四일 괴산공보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얏다는데 이것이 괴산에서는 처음인만큼 대성황을 예긔한다는바주최자측에서는 모든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咸南長津郡內에 己妻打殺二件

하나는 자긔처가 명민치 못하다고 또한사람은 아들에게 등한하다고

兩男은方今取調中

【장진】 지난달三十일 일흔아츰에 함남장진군 상남면삼흥리(咸南長津郡上南面三興里)리준학(李俊學)의 집에서二十세 소부의 이상한 시체가발견되자하갈경찰서 좌등(佐藤)사법주임과 김창한(金昌漢)의사가 현장에급거하야 검사한 결과타살이 분명하다 함은 이어보도하엿거니와 이제 자세한 내용을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 리준학은자긔처 류렬녀(劉烈女)의 위인이 남과가티 명민치 못하다는 리유하에서 항상 불만을 품고 가지내든중 지난달 三十일아츰에는 아즉자고잇는 자긔처의목을 매며노코 사지를 얼며발각한다고 곤봉으로 란타하야무참하게 죽인것이라한다 그날정오에 친가에 알려되 급병으로 죽엇다고 하엿더니 이소식을 접한 류렬녀의 부모는 대경실색하야 죽은딸을 차저와본즉 시체에상처가 가득함으로 타살인것이분명하다고 와홍을 하게되엿다

【장진】 함남장진군북면 장항리(咸平長津郡北面獐項里)에잇는 최승녀(崔承女)(二八)는 자긔의 남편되는 지여욱(池汝郁)에게 약一주간을두고 가진고통을 당하든중지난三일에 마츰내 죽어버렷다 소관산양주재소(山羊駐在所)에서는 즉시로 남편되는 지연욱을 유치하는동시에 이급보를 접한 장진경찰서(長津警察署)에서는 시체를반래하여다가 지난 十一일오전十시경에 판본(板本)의사와 김병찬 사법주임(金炳贊司法主任)의립회하에서 시체를해부하얏다

동사건을마타취조하는김(金)사법주임의 말을듯건대 四월十七일경의 자긔아들이 여섯살된것이 집압내물에 빠진것을진작 달려가 건지지안햇다고 자긔처를 곤봉으로란타하야 결국그와가티 된것이라 한다

安州에火災

【안주】 지난十二일오후六시경에 안주읍룡현리(龍峴里)八번지 김선주(金善柱)집에서화발하야 그집 三동이 전부소실되엇다는바 발화원인은 부엌아궁에서 출화하야연소되엇다하며 손해액은 조사중이라한다

多數印章을僞造 假渡航證發賣

세사람이 공모하고 이런짓 釜山署에서逮捕取調

【부산】 본적을경북문경군 가은면초곡리(聞慶郡加恩面草谷里)에두고 부산범일정(凡一町)六백十八번지에 거주하는 신목석(申木石)(三三)신현찬(申鉉燦)(三三)신흥상(申興上)(三七)동 세명은 十二일오후다섯시에 부산진에서 부산경찰서원에게 체포되어 방금부산경찰서에서 공문서위조(公文書僞造)및인장(印章)위조행사의 혐의로 엄중한취조를밧고잇는중이다

그들은 수원전부터 경상남북도 몃몃곳면장(面長)의 인장과경관주재소의 수석순사(首席巡査)의 인장과 및 부산경찰서 고등계주임 유진호(兪鎭浩) 지부외인장등을 만히위조해 가지고거즛도항증명을 만드러서 일본을가지못하는사람들에게 팔게 수十원씩밧고 수十차례나 팔아먹은사실이 잇섯는데 그것이 요지음에 부산경찰서에 탐지되어 드듸여 체포된것이라 한다

高句麗時代의 佛像三個發見

평양고물상에서발견 考古學上貴한材料

【평양】 구하기 어려운 고구려시대의 불상(佛像)이 평양에서 발견되엇다 강서고분(江西古墳)의 벽화(壁畵)를 모사(模寫)하고자 평양에 와잇는 일본인 소장모(小場某)가 부내 남문통(南門通)고물상랑호(樂浪號)에 진렬되어잇는 고물중 三개의 불상을 발견하고자세히 조사한결과 고구려시대의 불상인것이 확실한듯하다는바 이것이 과연 고구려시대의 유물이라 하면 고고학상(考古學上)으로 보아서 매우귀한 물건일것이라한다

北青署檢擧人 近日續續釋放

【북청】 지난三十일밤 일곱시경부터 북청서에서 총출동으로

南浦體育定總

임원도개선

【진남포】 진남포체육회(鎭南浦體育會)에서는 지난十一일 오후五시에 제二회 정기대회(定期大會)를 동지 후포리(後浦里)에잇는 상춘관(常春館)에서 개최하고 림창하(林昌夏)씨의 사회로 김명진회원의 랑독 각부경과보고동총맛치고 임원개선(任員改選)을 행한후 춘긔시민대

會寧立候補

屆出十五名

【회녕】 회녕읍회의원(會寧邑會議員)립후보를 최신허청명하고 지난十二일까지 회녕서에게출한에는 조선인九 일본인六명으로 지금형편으로는 반수험정편게상 조선인은 상당한격전이 될듯하나 일본인측은무경쟁사태에잇는데 아모로 한두사람더립후보케될지도 몰은다고한다

金瑞仲(五一)、李容碩(四五)、金成水(四一)、金昌國(六二)、李鉉煥(四八)、朱濟(三)、裵貞朝(四)、劉泳麟(四三)、朱田三樹直、根津梅太郎、山田保、小林正六、岩村長郎、若松德藏

疾走自動車 胎母를重傷

【의주】 신의주 북부상회자동차부(新義州北部商會自動車部)에잇는 운전수 삼산완륙(三山完六)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난十일오후六시에 신의주를 떠나 의주로향하야 오든중 의주군 주내면 광평동(義州郡州內面廣平洞)三一四번지 최천묘(崔賤土)의안해 박신건(朴信乾)(三三)이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가든 것을 치어 인사불성이되엇다는데 운전수는 란손넘흘나려노코 곳당지도립의주의원에 치료를밧는중인데 전긔녀자의생명이위험하다한다

婦女誘引者

【원산】 경상북도대구 상시장통(大邱商市場通)최룡백(崔龍伯)외二명은 원산검사국곡전검사(谷田檢事)가 엄중한 취조를 하다가 지난十三일 본적지인대구검사국(檢事局)에 이송하얏다 사건의내용은 룡백이란자는 六十세나된 늙은사람으로 부녀(婦女)를 유인하야다 원산양지동 림춘화음식점(林春化飲食店)에 三백원 부산(釜山)경성(京城)등지에다 二백원내지五백원씩에다 팔아먹은 사건이다 이독수에걸린녀자는 정복순(鄭福順)(二)배정희(裵貞姬)(一)김래선(金泰善)(二)외수명이다

馬、昌夜學校 聯合運動會

【마산】 마산로동야학교(馬山勞働夜學校)주최로 마산과창원의 각지방에 산재한각야학교를 망라한 야학교련합대운동회를 오는十六일오전九시부터마산구락부운동장(馬山俱樂部運動場)에서열고저 오래전부터 그준비에 분주중하야오든바 이에참가한학교는 다음의四개학교로 예정과가티 오는十六일에열게되엇는바 야학교의 련합운동회로는 마산의 처음잇는일이니만치 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釜加夜學校、馬山勞働夜學校、月影夜學校、馬山女子夜學校

地方雜信

安城一

◇봄날이되니가 그런지 요사히 少年少女의 脫走、破廉恥의能事가 만어간다

◇사랑하는사람이아니면 結婚아니한다는것은 나흐나 未成年인 十七八歲少年이 女子와關係를 맺는것은 實로 世上에 轉하는 現狀인가

◇東大里에서 구렁이를 解逮하얏다는 소문에 벌서二三日還하야 安城사람의 입에서오르나린다

◇밥먹고 할일업스면 다름을 리나하지!

會合

◎吉州體育文會執行委員會 去十一日同會館에서開催

◎故金鎭潔氏追悼會 去十日於俗離寺에서開催

◎槐山公普學父兄會總會 來十七日公普校內에서開催

◎洪城研究會常務委員會 去九日同會館에서開催

◎靈巖新幹會執行委員會 去十一日同會館에서開催

◎牙山稅務振興會總會 去四日同會館에서開催

消息

◎金容霞氏(保寧郡守) 天安으로榮轉入事次去十二日本社保寧支局來訪

大盜傳 (132)

【後篇】 尹白南 作 漢北居士 畫

十二、의외(意外)(一)

관졸일행은 새ㅅ길로 잡아들어 도적 도당의뒤를 또추지 하로가 지나도록 그들의 종적은 묘연하얏다

무룡일행은 관졸들이 새ㅅ길로 잡아들것을 미리 짐작하는 터이라 주막주인에게는 새ㅅ길로 도망하는체하고 기실은 다시 대로로 나서서 나제는 산중에 숨어잇고 밤이며는 길을 거럿다

사세가 이러하니 그들이 관졸의손에 허망하게 잡힐까닭도 업거니와 원낙 관졸들은 상부의 명령이라 나오기는 햇스되 그들을 지악스럽게 체포할 심사도업고 또 사흘이 지나도록 잡지못하면 순흥에서 본미와협하라는분부가잇섯스니까 연색은 적도를 쫏는다해도 기실은 하로에 사십리 만하도 육십리를 넘지안케 거러가며 어셋던 사흘동안만 지내바려자는 생각이엇다

관졸들이 만하로동안이나 새ㅅ길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무룡일행은 순흥읍을 감쪽가티빠저나가 그들과의 거리는 벌서 칠십리 가량이나 떠러지게 되엇다

무룡은 여긔서 일행을 둘로 난호앗다 곽첨과 만길로 한패를 지어 하로를 뒤떠러저 오게하고 자긔는 관영과함께 하루를압서 길을것게되얏다 혹여네사람이 한뭉처가되어서 다니면 남에게 의심을 바들까하는 념려이엇다

어려 하야 곽첨은 하로를 주막에서 쉬고

무룡내외는 하로압서 길을 떠나 산길로 잡아들어 배가 고파 어느듯 넘어갈때 산중에서 방황하다가 우연히 어인 뎔(寺)하나를 발견하고 그뎔에서 점심을 먹고갈마음을 먹엇다

산중소찰이라 나히 사십가량된 승려가 둘 [illegible] 나 단 세사람밧게는 식구라고는 것은 고양이 한마리 뿐이엇다

「우리는 산을 넘다가 길을 잃어버린사람이니 오늘 하로밤에서 머물고 가겟소」

하고 청하니까

「주무시고 가는것이야 별말이업소이다마는 산중소찰이라 자실 음식이 만만치안소이다」

「찬만에 음식을 가릴사람이 어데잇소 [illegible] 음식이 다 무엇이오」

「그건 그러타 할지라도 보시는바와가티 주무실곳이 업스니 여긔서 [illegible] 좀 참오실수잇겟지」

하고 중하나는 벌써문을 열어주엇다

무룡내외는 별당이거나 어데이거나 잘잘곳을 어들것이면 반가워서 별당 방구석에 조그마한 행장을 나려노코 [illegible] 나려는 시내가로 나려가서 [illegible] 발을 닥고 도라왓다

「여보 당신도 좀 가서 발이나 씻고 오 [illegible] 시원하지 모르겟습니다」

「글세요!」

하고 관영은 수건을 들고 시내ㅅ가로 나려가보앗다

산 꼬불에서 흘러나리는 맑은물은 무수한 바위틈을 쏘아 소리를 치며 흘르고잇다 관영은 어느 바위 그늘에 안저서 먼저 세수를 하얏다 그때나 몸에선 땀내가나고 근지러워 견딜수가 업스니깨 무섬하고 위통을벗고 목물을 하기 시작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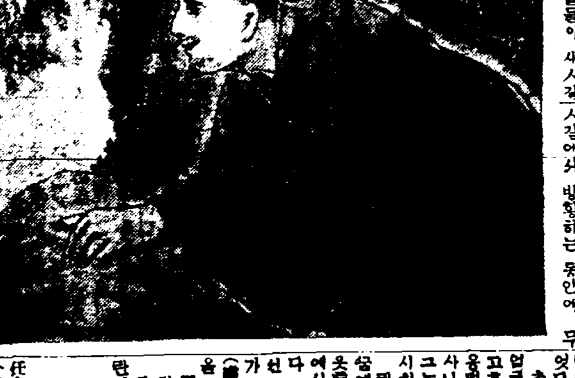
어떼 중 하나이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몰래 커런 바위그늘로 거러와 은신하고 이편을 바라보고 섯섯다 그는 무룡내외가 처음에 뎔로 올때부터 관영에게 대해서 의심을 먹엇다

총각으로 무딘 관영이 바라 얼굴은 [illegible] 살결이 고흔 총각 [illegible] 용렬한 퍼진몸에 아모리보아도 사나희갓지 아니하엿다 그래서 여서부터 일부러 눈빗가지 최 [illegible]

관영은 그런곳에 잇슬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못하고 옷을 벗고 목물을 하엿다 [illegible] 시내ㅅ가로 나려오는것을 보고 [illegible] 엿보고잇는 중의 오관을 극도에 흥분시키엇다

『아아 이게 어인 계집이 저런계집하고.....』

중은 눈한번 깜짝이지 안코 관영의 젓가슴만 노려보앗다



社告

李鍾碩

任金村支局長

今般右와如히辭令하고金村分局을支局으로變更하얏삽기玆에謹告함니다

昭和六年五月十二日

東亞日報社

謹告

金村分局長 李 [illegible]

依願解職

昭和六年五月十二日

東亞日報社漢山支局

任記者 尹東秀

昭和六年五月十三日

東亞日報社咸悅分局

ClibPDF - www.fastio.com

家庭常識

第二 消費節約篇 ◇특히 주부를 중심으로◇ (十)

月岩女史 述

【五】 장례비용 중에서절약할것

예전부터 양생송사(養生送死)라하야 사람의 자식이되면 그부모를위하야 살어잇을동안에는 봉양하고죽은후에는 마지막길을 잘보내여야 자식된도리를 다하는것이라고하야 오늘날까지 이것을 지켜옵니다

부모가 세상을떠난뒤에 잘보내드린다는말은 살어잇을때에 봉양하는것과 가티하라는것인데 대개는그와거리를 멀리하야 살어계실 동안에는 집안형편이 군색하야 잘봉양치못하다가 세상을떠나고보면 빗을내다 굉장히한다하야 가며「염」을할때부터 장사를 마칠때까지 또는제사를지낼때마다 가세외분수에 넘치는일을 합니다 이것은 인정상으로보든지 사람의자식된 의리상으로보아서 당연한일인은 틀림이업스나 그러나분수에넘는 례외는 오히려몸아가신혼을 위로함이 못될것이올시다

보통「염」을할때에 면주 복포가튼것을쓰고 또관속에까지 비인틈이업시 필목으로 채웁니다 이와가티「보공」을하는것은 생전에입든 의복으로도 충분할것이니「보공」에드는 필목을 덜하는것이 조켓습니다

다음에는 초상이나서 상례를 치르기까지 인아친척은 물론이고인동리사람들이 모혀서 무슨 큰먹을수나 생긴것가티 오일장이면오일 칠일이면칠일 그대로 달려들어 먹고떠듭니다 일을보살펴주고 상주를위로하기 위하야 밤을새이다가 시장할것가트면 흰죽식을 맨드려조금씩나누는것도 무방하겟지마는 수만흔 사람이 대들석하게모여서 마치 혼인집인지 초상집인지 분간못할만치 야단법석을하는것은 경제문제를 제외하고도 그리 아름다운일로 생각되지안흡니다 상가가 넘우쓸쓸하지 안흘 정도로몃사람씩번차례를드려엄숙하게 지내도록하고그외에사람은 잠간잠간다녀 조상이나하고 즉시 돌아가도록햇스면 조용하고 또비용도훨신절약이 될것입니다

이러한것들은 모다 관습문제이지마는 서로서로 주의하야 초상이난집에서도 그러케 고치도록 일을치러나가고 주위집사람들도 그러케주의를햇스면 조켓습니다

그다음에는 분수에 넘치는상두관을 쓰지말고「사인방상」쯤으로 운구를한다면 대여를사용하는것보다 엄마큼 경제가될것입니다 그외에는 장례후에 제가범절인데 이것은 전연 허례는 아니일는지모르나 오색실과에 제사상이부듯하게차려노코며칠씩 큰일을치르는것인데 여긔매해서는 후일로밀우고 어쩌하얏든 우리나라에서는 초상이나한 두번치르고나면 우연만한 살림이라도 때가물할지경이니 부득이한 비용만으로 주리고또주리면 역시 반감(半減)을 할수잇다고생각합니다。

복숭아나무

車南星

형님과 나 둘이 서 심은복숭아
연분홍꽃 네송이가 처음피엇네。
복숭아가 네알맺혀 익은다음에
똑똑똑똑 다따서는 어쩌게할까。
두알로는 압바엄마 노나올리고
나도한알 빠작 빠작 맛을봐려야。
다한알씩 돌아가다 한알남으니
간도가신 형님아가 더욱그립네。

一二一、五、十日作

朝鮮演劇史

◇三國以前으로부터現代까지◇ (二五)

金在喆

第二編 人形劇

第二章 朝鮮人形劇의系統

中國、日本、朝鮮、臺灣等이 모다 人形劇을演出하는說據은 大槪同一하다 더구나 日本人形劇은長足의進步를하야 지금도文樂座갈은데서 盛하게演出되어 잇다 進步退步는暫間 고만두고라도 이와같은類似가 잇는것은 그人形劇이모다同一한系統이라는것을말하는것이다

中國의人形劇은 宋代에벌서 懸絲傀儡、走線傀儡、杖頭傀儡、藥發傀儡、肉傀儡、水傀儡 그種類가甚히 만엇고 現今에도大槪 세가지種類가잇으니 실(絲)을느려서操縱하는懸絲傀儡와 衣裳을입힌人形을손으로 操縱하는것과 人形의머리에둥재손구락(第二指)을꼽어서 操縱하는것들이 그것이며 이와같은演出은 朝鮮、日本과 똑같다 臺灣의朴子張水照는「臺灣人形芝居」라는 題下에

大陽이西山에넘어갈때、저녁밥을먹고 觀衆들은 村廟目은마당에몰이다 조금높은 高臺를맨들어 模型劇의 屋臺를짓고 男形女形의人形을黑幕뒤에숨은役者가巧妙하게操縱하며 大鼓、笛、銅鑼、鐃子等의 樂隊伴奏와아울러 人形劇을 演出한다

人形은木片으로 머리를맨들어 옷을입히고 머리속은텅 비여서 손구락을 넣게되엿다 ……人形操縱者들은 村에서 招待받어 各地로 流浪한다

라하엿으니 이것을보아도臺灣人形劇은 中國의第二指로操縱하는人形劇과 演出의方式이똑같은것을알수잇다 中國人形劇의舞臺도 高臺를맨들어놓고 四面에透明한琉璃를들으고 그속에서藝人이人形을操縱하며 日本의舞臺도欄干을맨들어布帳을치고 그속에서人形을 操縱하게된다 그러면高臺式舞臺도 共通이며 人形操縱도모다同一하다 이와같은類似는 決코偶然한 一致라고볼수가없으며 서로서로 무슨關係가잇을것이오 않아서 모다同一한系統일것이다

安藤正次氏는「古代國語硏究」의傀儡子名義考에서 廣大說을 主張하엿으니 지금그大略을紹介하면

崔世珍(中宗時人)의訓蒙字會에 傀儡子의發音을「광대」라고하엿으나 이것은 高麗史에보이는「廣大」와 音이갈으며 廣大라하는것은 歌舞技藝를가지고 公仕의 演을맡은者이나 그러면字會에「광대」라고한것이「廣大」에다。이「광대」라는 말이 韓化해서 日本말의「クグツ」가되엿다。라고하여 日本말의「クグツ」(人形劇이라는말)가 朝鮮말「광대」에서 韓化하엿다고 論하엿으니 한便에는 系統까지도 包含한말이다。

日本에는 廣大說以外에 高木敎授著인 淨瑠璃史에依하면「꼭두說」이 一般的으로 有力하다고한다。지금 그것을 紹介하여보면

「꼭두」와「광대」의 發音을 比較해보아 어느것이「クグツ」의音의갓가운가를보면「교」와「파」를 比較하여보면 母音發音上「파」보다도「교」가「ク」에 갓가운것은 明白하고、語尾로 보더라도「광」의 ○(ㅇ)과「꼭」의 ㄱ(K) 두가지中에 K가 쉬웁게「ク」가되다。「クグツ」의둘재字가「ク」거나「グ」거나 그것은 日語上問題가되지안는다 다시말의字를 보면「광대」의「대」보다도「꼭두」의「두」가「ツ」音에갓갑다。그러니까「꼭두」는「광대」보다도「クグツ」에갓갑다。

다음에 朝鮮語對中國語 사이에 서로通하는것은업는가。和名抄에

顔氏家訓曰 俗名傀儡爲郭禿

라고한것을보면 中國에서는 傀儡를『郭禿』라고도 하엿다 樂府雜錄에

郭郞이라고하는 藝者가 머리가버서젓기 때문에 생긴이름이다

라고하엿다。『郭禿』두字의옛날發音을 韻鏡에 찾어보면

郭Kok (牙音)
禿tok (舌音)
故로 郭禿=Kok-tok

가되여『꼭두』의音과거진 갈다 그러나

廣大=Kuong-duai

다。그러니까 廣大와『クグツ』보다도『꼭두』와『クグツ』와 關係를맺어 安藤氏의『광대』를『꼭두』로 곳여서

郭禿 꼭두 クグツ 卽 中國語 朝鮮 日本

이라고하엿다。

丙亂과時調

「時調學界의새文獻 「悲歌」紹介를機會로」 (一)

李殷相

대개 政治的動亂、政治的變革이란것은 그影響이 社會의各方面에 波及되는것이니 經濟、宗敎、敎育等에도 그러하거니와 文學上에잇서서도또한그러하다 그림으로 國號에까지 달리한三國、高麗、朝鮮、各時代의文學은 毋論이어니와李朝一代에잇서서도 政治的으로 大動亂이일어난 宣祖壬辰을 한劃時期로하고 그前後가 思潮上으로 判異한것임을 보게되는것이다。

또한 壬辰의傷痕은 덥처일어난丙子亂으로 文學上에 큰變動을 일으켜주엇스니 이러한것은 作品으로 證示하기前에 벌서우리의想像이 肯定하는바라 할것이다。

그러나 各時代의文學을 그思潮上으로 特色을 論斷한다는것은容易한일이아니오 또 率爾히行할것도 아닐뿐더러 本稿의目的이아니거니와 내가여기에 草記해두고저 하는것은 文學史上에서도 重大視아니할수없는 丙亂의痛史를 슬퍼노래한 當時의人 松岩의遺稿「悲歌十首」는時調의새文獻을 機會로 그全稿를學界에 紹介하고同時에 丙亂關係者의 몃作品을加하여 當時史情을 暫見코저하는것이다。

×

이에먼저 松岩과그遺稿를 紹介하기로하자。

從來의 學界에서는 이松岩이누구인지를 알必要도업섯고 또알길도 업섯스며 그의時調는어떠한 時調本에서도 發見할수가업섯든만큼 먼저우리는 이遺歌를時調의새文獻이라는點에잇서서못내貴重히 생각하는것이다。

松岩의 姓은李氏오 諱는廷煥이니 完山사람이다。그의遠祖는良厚公伯由로서 李太祖의 開國功臣이되어 兵曹典書를 지냇으며 世代를 이어顯達로 지냇스며 그의父親은 長興庫奉事엿으며 母親은 戶曹參判申渤의女 申氏이다。

그자 宣祖三十七年甲辰(一六〇四年)七月一日에나서 차차長成함을따라 스스로力學하니 그名聲이 塲屋間에들려엇다。

仁祖十一年癸酉(一六三三年)에生員試에中하여 大學에 들어가니 보는이마다 그遠到를期하고 銓曹에서도 여러번 그를薦郞으로 쓰고저하엿스나 不幸히天點을 엇지못하여 草葬에서늙다가 顯宗十二年辛亥(一六七一年)四月二十三日에 公州堂洞舍第에서 卒하니 享年이 六十八이엇다

×

그의行狀全文이 거의八分은 公의孝行에 미친것이다

里閭에 三四年을두고 公의얼굴을 못보앗스나 그것은 公이 어버이의病席을 떠나지아니한 까닭이엇든것이며 丙子에 北虜가 入寇하여 擧國이 奔竄할새 뼈마침 公은 遭喪하여 木主를 등에지고 偏母를 뫼시어 避亂하되 艱困顚沛에 비록顚沛의際라도 또한 儀禮를 廢하지아니하얏다

亂이定하매 또한不幸하여 內艱을만나 六年을持喪하되 하로도 다름이업섯스며 몸草를손소베고 매양으로 哀慟하니 보는이마다 悽惻하며 돌아서서는「孝哉孝哉」를 부르더라는것이다

또한그의品格에對하여서도尤翁은 가르되「내본시 그의高行을아노라」하얏고 鄭邑長老들도「그의玉刻心膽을 따를뒤업스리라」하얏다는것이다

그는 白沙李恒福의 孫女에게 娶하야 四男一女를 어덧거니와 대개 그가官途에 크게나서지를 아니한까닭이 어데잇는가? 그點이 이一篇을 爲하여서는 더重要한點이다「丁丑以後、絶意世事、不復應擧、杜門不出者殆四十年、作悲歌十首、以寓周之義」라는 一文을보든지 또는「素性恬淡、雅有高致、時花滿木、樂而忘老」라한것들을보면 丙子恥辱史와 松岩公一生과의關係는 없다하지 못할것이다

한글質疑欄

【問】一、關係는「관게、관계」 繼續은「게속、계속」 誡命은「게명、계명」 어느것이 옳습니까。
二、記者는「긔자、기자」 機會는「긔회、기회」 記錄은「긔록、기록」 勇氣는「용긔、용기」 希望은「희망、히망」 어느것이 옳습니까。
三、너희(汝等) 너의(汝之) 저희(彼等) 저의(彼之)는 어떠케 씁니까。(淸凉里한글生)

【答】一、係、繼、誡가 原音(字典에 잇는대로)은「계」입니다。그러나 지금의 發音은「게」로 됩니다。어떠이는 그것이 확실히「계」로 發音된다 하나 揭載란 揭가「게」인족 係、繼等과 揭와의 音이 大差가 없는듯하니 그런것을 서로 區別하기에 어렵지 안습니까。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漢字의 原音에 拘束받을것 없이 다만 지금 語音의 標準으로「게」하나로만 쓰면 좋겟습니다。
二、記、機、氣等의 原音은「긔」입니다。그러나 지금의 口音으로「기」가 되니 그것도 口音대로 쓰는것이 좋겟습니다。希의 音 희는 아직 그 소리가 많이 잇으니 그대로 쓰는것도 좋습니다。
三、그대로 씁니다。그런데 너이(汝等) 저이(彼等)로 쓰는것이 더좋겟습니다。(李允宰)

【問】우리글을 쓸때에 歷史的音을 쓰지않고 表音式으로만 쓴다하면 아래와 같은 글자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합니까。
댜뎌됴듀디
탸텨툐튜티 (江西一讀者)

【答】꼭 歷史的音을 쓸 必要가 없습니다。다른 나라에서는 歷史的音을 쓰든것을 表音式으로 고처쓰려고 애쓰는 판에 우리는 일부러 歷史的音을 쓰려고 하는 까닭을 알수없습니다。글이란것이 첫재 쓰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하지안습니까。아무 소용없이 그런 不必要한 글을 아니 쓰도록 하여야 하겟습니다。(李允宰)

【問】서울말을 標準한 新綴字法에는「댜、됴、쟈、죠」等이 아주 無用하게 되엿으니 國文學上으로 웃으운일이 아닙니까 (중산生)

【答】아무 웃으울것도 없습니다。發音은 못하면서 글자만 그러케 쓰자는것이 도리어 웃으운 일입니다。(李允宰)

白雲臺갈때러니

(承前) 趙宗玄

一

白雲臺 오르면은
神仙될줄 알엇더니
올라서 둘아보니
도로人間 여기로다
마음이 바뀌지안으니
도로塵事 일사라

나려다 뵈는長安
塵世갈이 생각혀도
내젓는 이자린들
거러얼마 되시는고

二

이몸을 못여인테야
다돌줄이 잇스랴
실구름 되어올라
발알에로 몰아갈제
눈감고 안젓스면
나도갈이 오르는듯
한몸이 어던가햇더니
나는옌가 하노라

봄노리 오신이라
부되갈다 말을마소
한동에 안첫서도
모다서로 다른것이
젊은이 어린에안고
老人또한 게시오
어린이 잘기루소

山의氣槪 보여주소
白雲臺 어야가도
정성드려 하여주소
萬物엣 보는것파는
다돈줄도 압시다

三

東將臺 시잠어라
뵈려만 남엇구야
五百年 지내엿다
저것이 恨이려니
가다가 낡은옛집을
눈물 겨워하노라

三角山 이그늘에
자랏거든 잘사자다
漢江水 마싯걸랑
한맘한뜻 되어지다

우리도 남들과같이
노래불러 보오리
가슴에 끌어오른
말한마되 채못하고
제발로 거리가는
거름조차 못거러도
白雲臺 예올라오니
새로산듯 숲어라

옛날에 한아버지
보시올젠 우습이요
이제와 오르나니
이子孫의 눈물이라
한울라 뉘이르신고
부지럽서 하노라

(五月二日)

하리코프大會成果에서 朝鮮프로藝術家가 어든敎訓 (三)

權煥

(나) 同伴者獲得問題

또그와同時에 우리는 同伴者獲得에 만흔努力을 아끼서는안된다 同伴者獲得의努力은 即파시즘에對한투쟁도되는것이다 여기對해서 一九二九年 로시아의 文藝政策에 對한決議가운데 다음과가티말하엿다

『隨伴者』와의關係에對해서는 다음과가튼點을 考慮하여야한다 (一)그들의分化、(二)文學的技術의資格잇는『專門家』로서의 利用 (三)이層의作家間에動搖의 現在―여기對한 一致的方針은그들에對한 戰術的인 注意기끈關係 換言하면 그들이 될수잇는대로 빨리 ○○的이데오로기ー의便에 옴겨갈수잇도록 條件을保證하는態度와指針이아니면아니된다』

即時時로動搖하고잇는그들을 陣營안으로 指導、誘入하여技術家로서 利用하는데 게울러해서는안된다는말이다

또一九二九年十月에開催된로시아의『랍푸』總會에서도 同伴者獲得에 對해서 極力으로强調하엿다 即그때의『테ー제』가운데는『뿌르조아文學에對한 共同의 容赦업는 抵抗을 하기爲하야 同伴作家의 動搖層을 獲得하는 투쟁의强化』가『랍푸』의 아페 새힘을가지고 提起한課題의하나이라고하얏다 또獨文化遺產攝取의必要性을 否認하는것과가튼 同伴者作家의 獲得課題를 理解하지못하는『보구다노프』主義的 테ー드的理論에의轉落을 戰鬪하는 極左的傾向의 도가운데 自己를表明하는 極左的傾向에對하야 右翼的모든傾向과마찬가지로 決定的투쟁을하지안흐면 안된다고하얏다

또今番하리코프大會에선 日本프로作家同盟의同伴者獲得方策에對하야 極히正當하얏다고 讚揚하얏다『그들은同伴者들을잘 指揚하야 自己들의周衛에 가참게하야 이것을 自己의影響미테두고 잘指導한結果 그들은片岡鐵兵、勝本淸一郞、貴司山治等을 獲得하얏다 同伴者에對한方策을 그릇드리지아니한데는 世界에서로시아와日本뿐이다 또 日本프로作家同盟은 어떤同伴者가 社會民主主義一派의가운데 所屬해잇는때에만 敢然히 決定的투쟁을開催하얏다 이것도全然히 正當하다 同伴者獲得問題는 社會民主主義와의 鬪爭에지내지아니한때문이다』고하엿다

그러나우리『카프』에서는今外지는同伴者獲得事業을比較的過少評價하여 그事業의遂行에積極的努力을支拂하지아니하엿다 또그러는한편에戰列의編成에 非常히『루ー즈』하엿다 即一二篇의『傾向조흔作品』을썻음으로서 곳戰線의前列에編入시켯다가失敗한例가 잇섯스며 또이미固定된頭腦로서『文名取得』을 爲해 캄푸를利用하려는 極히 不純한 意圖로서 陣營周圍에 徘徊하는者를 勝敗戰列에加入할 優秀한 同伴者로 誤認하엿다가 失敗한例가 잇섯든것이엿다 이것은卽 우리組織의比較的『루ー즈』함을 말함이다

우리는 同伴者獲得에 積極的努力하는 同時에 또戰列의編成에 있어『퍼센트』의慎重과 注意를 要하지안흐면안된다

五月에오는비

李大容

1
五月에 오는 비에 봄이 가고요
五月에 부는 바람 쏫을 지우네
봄은 가도 갓봄은 남기어 주고
쏫은 저도 향일낭 두고나 가소

2
웃는쏫 지는 양이 참아 앗가워
바람도 쉬다 불고 불다간 쉬네
빗난봄 가는길이 자최도 업서
五月비 처량 허도 울면서 오비

3
어쩌다 봄은 와서 쏫을 피우고
어쩌다 비는 와서 쏫을 떨치어
지난날 니준 사랑 생각케 햇노
나그네 젊은 마음 눈물 지우노

4
시냇가 드른 버들 연긔 서인채
바람에 가지 가지 섧은 춤추고
물우헤 덧는 비는 波紋을 지어
멀리 멀리 흘러가 가슴만 치네

5
봄사이 매준 쑴은 아름 다운쑴
쏫바테 노래 하든 고흔 쑴일세
지는쏫 어서 지고 가는봄 가소
그쑴만 가슴 속에 품어 두려니

1931•5•7

印度古詩槪觀 (四)

朴魯哲

二、上古詩史槪觀

印度民族은 다른나라 國民과 달라서 古代의記錄을 充分히갖이고잇다 그것은石柱나또는 岩面에刻한것이아니라 그眞正한 記憶에依하야 遺存된「베다」(吠陀)古譯이잇음으로써이다 그다음 傳의一例를들면곳「아ー라」(Arya)라는耕作者의義를보아도알수잇으니이는即「아리안」Aryan이란 種族의이름을 耕作者라는意味에서 轉訛된것으로보게된다。印度의宗敎、哲學(우파니샤드)、文學의源泉은곳「베다」語라할수잇으니「베다」는본이「智」를象徵한바 곳神聖의默示를 意味함이라。「베다」의最高部分인「리크베다」(理具吠陀Rik Veda)의 讚歌들은 지은때는「아리안」人種이처음으로五河地方에移寓할때불어비롯하여다고본다。「베다」의內容이 豊富한것으로보면실로世界無比의 古代思想을含하야 人文發達의跡을 啓示할뿐더러 그攷究의趣味로보면 사람의心神을 더욱醇化케한다。特히印度諸敎派의淵源인「우파니샤드」의 哲學은哲人「쑈ー펜하워ー」로하야금許然히 그心情을陶醉케하엿으니그眞美에잇어서는 生前의安慰요 또한死後의慰藉이라고까지 嘆美케하엿다。일즉印度佛敎文學史의著者『엥・원텔닛』氏는「文學의 비롯은 바로歷史以前時代로볼어잇엇스니 그叙事詩篇의紀元에對하야 確實한年代를말하자면 自然闇黑치안을수업는바『베다』文學과그叙事詩文學을 攷察하자면 언제佛敎文學에드러가 그歷史上 暗黑面에 개르지안고는 어들수 업다」하엿다。

現存의讚歌는 거의다太古『吠陀』時代의諸仙聖(Rishi)의作을口傳또는神話에依하야 그後裔의仙家에傳한것인바 다시後代에이르러 그古仙의作歌를集錄한것으로보게된다 이러하야당시古仙의區別로보면『神仙』『世仙』『帝仙』等의分類로서 仙과世간에 또는士와平民간에 何等의差別이없음을 알수잇으며 古仙의歌詩에依하야作成된『리크베다』는 그실世界無比의寶典으로 볼려지않을수없다 特히그叙事詩에잇어 世界第一의長篇이란 이름높은 婆羅多族大戰爭譚(마하빠ー라타Mahabharata)를 들수잇고 또는 羅摩王子武勇譚(라마야나Ramayana)을 들수잇으니前者는實戰의記憶을結構한것으로 그중에民族의崇仰하는 司雨神 곳天帝『인드라』(Indra)를 活動人物로삼어 그全篇의主人翁『阿順王子』(아ー쥬나Arjuna)를叙述하엿고 後者는 毘紐神을 保護하는意味로 叙述한바 이역 天帝『인드라』를 人化한羅摩王子의 그弘德에 由緣되어 당시歐事가 全印度에 普及되엿다는그狀況을 謳歌한데지나지안는다 누구든지이에對하야 古代印度詩人의 그豊富한 思想에는 驚駭치않을수없는바 일즉古代戲曲에잇어서는 印度의『쎅스피어』라이르는『迦利陀沙』(카리다사Kalidasa)란詩聖이 잇으나 그의傑作『舍君多羅姬』(사쿤ー타라Sakuntala)의 一節은 獨逸에『헤르데르』또는『괴ー테』로하야금 驚嘆의讚辭를마지안케하엿다 그러고『日天』(후은太陽神『사뷔트리ー』)에 對한讚歌는 그創作의年代는 알수없을만치 자못오래歷史를 가지고잇으되 至今에도오히려 日常禮拜時에는 暗誦하기를마지안호며 이에딸아『日天』의 別名을가지고잇는 保護神『毘紐天』(뷔시뉴)도역시 非常한崇拜를밧는神이라한다 이러하야지금도 吠陀를 誦讀하는習慣만은 歷山大王의侵入以前과 별로다름이없는바 印度最古의吠陀文學에 對하야 世界의學者가 비상히注意하고잇는것만은 숨길수없는 事實이다。

이러하야 太古의遺物로서 現存한唯一한文獻은『理具吠陀』라할수잇는바 이러한讚歌에 依하야 그時代의文化를 推測할수잇다

그중에『婆羅門書』『森林書』『奧義書』(우파니샤드Upanishad)와『婆羅多族大戰爭譚』及『羅摩王子武勇譚』의 二大國民詩에對하야는『拘留』(크루)『般遮羅』(판차ー라)『拘薩羅』(코살라)『毘提訶』(뷔데하) 等種族의文學的活動을 料酌할수 잇는바이는그時代를 代表할만한것으로 당시諸狀況을硏究하기에 자못究竟의 資料가될만한 典籍으로보게된다。다음으로 四吠陀의集錄중에 理具吠陀에 關한것만 잠시簡述코저한다。

『吠陀』는三部分으로成立된바 韻文으로된『讚歌』(『만드라』혹은『삼히타』)(Mantra or Samhita)와儀式에對한『敎書』及散文으로된『神傳』(뿌라ー마나 Brahmana)과散文及韻文으로된奧義書(우파니샤드)等으로이중에보통『베다』라이름은讚歌의部分만을指示함이오 또讚歌에 五個集錄이잇서 이를四吠陀라이르니 即最高의 集錄으로는『理具』가잇고 戲曲에關한 集錄으로는『黑書』가잇고『黑書』를改修한集錄으로는『白書』가잇고『三聲』가잇고 또最新의集錄으로는『阿他婆』(아타ー바Atharvan)가잇는바 이중에『黑書』『白書』를 合하야 通稱『夜珠』라한다。이 四吠陀중에 가장注目할만한것은 理具와 阿他婆로서 그중『理具』를 가장重要한部分으로보게된다『理具吠陀』는실로世界最高의 文學으로서 우리는이에依하야 印度民族發展의痕跡을 차즐수잇고 더나가그宗敎思想의 開發에對한 狀態를 엿볼수잇다『理具吠陀經』은 一千章(혹은千十七章혹은千二十八章)의讚歌로불어 構成된바 그중一萬의 頌歌를含하야 十卷에分하엿스니 第一、第九의두卷을 除한外에는 그各卷마다에 한사람씩의 作歌라한다。매개同一한系統에屬한作歌의類聚로서 그作歌者를『仙』이라하는바 이름높은 八人의仙은 각각 그八卷에對한 作家者로보게된다。그 第一卷은 百九十一歌로서 十五人의 作家를要하엿고 또第十卷도 역시百九十一歌로되엿으되 그作家의 數는 알길이없다。

文壇探照燈

쌘쌘한盧靜園君

「『女性彙報』連載『朝鮮女性은어대로가나』는全혀盜作」

晦春生

近來文壇靑年間에는 作品剽竊의 犯罪行爲가頻頻하다 이는獨히 우리朝鮮에만 流行하는것이아니오 諸外國文壇에도 이런한例가 非一非再이엇다

그러나 作品剽竊은 다른物的犯罪보다도 더容恕치못할 큰罪惡이다 남의作品을 剽竊하야自己의名義로 發表함은 그얼마나 低級한생각이냐? 아모리 남의作品을 巧妙히剽竊한다하야도 그假裝한鍍金이 暴露되고야말 理는언을것이다

그런데 昨日나에게 女性彙報社로부터 同紙一週年創刊記念號를 보내주엇다。나는그『女性彙報』의 前後의記事를흥미잇게보다가 문득『朝鮮女性은어대로가나』라는 題目으로된盧靜園君의 글을보왓다。이글은 連續揭載된것으로 이번이 終末인 第三回이엿다。나는盧君과 相交의關係가 잇슴으로 그글을 細細히 읽어보왓다。그러나 나는意外에놀랏다。그글은나의作品과 秋毫도틀림이 업섯든까닭이다。

나는 그前回의記事를보고저『女性彙報』本年二、三月두달에連載된바와 本月號에 揭載된바를 綜合한後 前日나의作品인 原稿와 對照하야보즉 果然一言一句의틀림이업섯다。이나의 作品은어떤新聞雜誌에 發表한 것은 아니엿다。

盧君은 昨年度에『時聲』이라는 月刊雜誌를 發刊한일이 잇엇다。그때盧君은 同誌의 所謂主幹이엇슴으로 나는 그에게 原稿를 寄付하얏다。그런데『時聲』誌는 昨年十一月一日付로 創刊號를 發行한後 第二號發行準備한다고 盧君은 나에게 또다시 原稿付托을하얏다 그럼으로 나는 昨年十二月初旬에 同君에게『現代女性에게告함』이라는 長文의 原稿를 주엇다 그리고 그數日後에 同君을 往訪한後 그原稿의 題目을『女性은어대로가나』라고 고치라고한일이잇섯다。그런데『時聲』誌는 그後周圍의事情에依하야 創刊號로 最後를 마치엇다 이러한 關係로 나의作品이 盧君에게로 간것이다 盧君은 그때의 나의 作品을 句그대로 謄寫하야 自己의名義로 女性彙報社에 投稿하엿슴을 나는 이제야 안것이다。

그런데 盧君이 나의作品을剽竊한後 前後三回에分하야 一言半辭의틀림이업시 前記女性彙報紙에 揭載하엿는데 第三回인最後에가서는 漢字를 全部純諺文으로 썻스나 이것무슨意味인지? 알수업다 남의作品을 그대로剽竊한것이 넘우나 良心에 苛責이됨으로 漢字를 諺文으로 고치여쓰면 좀날가하는 생각으로 그리하엿는지?

그러나 나는決코 同君을罵倒코저는 아니하나 다만 紙上으로 將來를 戒하야 文壇探照燈에 빗취이는바이다。

君이여 此後에는 決코이러한 非行을하지안토록 特히留意하기를바라고 이에쯧친다

―一九三一、五、一二―

翻譯을創作然

「李泰浩著『哈爾賓驛頭의銃聲』은谷讓次原作」

徐成甫

朝鮮에도文壇이생긴以來로이에對한 剽盜가橫行하는것은 참으로 不幸한일中에 나가는無產讀者도 그損害를입는다 最近에 新聞廣告만보고 全冊을 購來하얏더니 이것은 바로中央公論四月號에 실린 谷讓次作『安重根』을 고대로번역하고 李泰浩의作이라 한것이엇다『哈爾賓驛頭의銃聲』이러케 남의作品을 제것이라 發表하야 이름을내며는 무엇하오?

漢詩

寒食

茂亭鄭萬朝考選

選外佳作

京城 金知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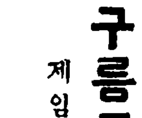
疾風百五曆無差、代序年年如代瓜。周火焉知取楡柳、晋歌誰道怨龍蛇。幾人步屧紆山路、何處杏花尋酒家。自笑閒翁無個事、石泉催汲啜新茶。

東萊郡 鄭颐朝

風催二十一番花、百五光陰此節佳。燕戲郊晴芳草嫩、鶯啼園邃綠楊斜。幾處墓先皆上塚、他鄕無客不思家。物色相招君又到、出門忘我係匏瓜。

新義州 李弘淵

門前挿柳紀年華、冷節新分二月瓜。强飮隣冠杜工部、散懷煙霞浣紗家。韶芳客去穿花蝶、沽酒人來指杏花。雨足郊原多勝景、紅鵑口蝶不須嗟。



구름조각 (六)

제임스・죠아스作　崔璟宇譯

금사가 술을가져왓다。쇼맹이찬드려는 한잔을 친구앞에 밀어노코 남은한잔을 대단하게쭉드리켯다。두사람이 술잔을 들엇을때 그는말하얏다。

『사람의일을 알수가잇나? 래년에 자비가올때 영광스럽게도 내가 개려허씨와 그령부인(令夫人)에게 장수와 행복을빌게될지 누가알겟나?』

개려허는 술마실때 잔가에눈을대고 의미깁게 한눈을감엇다 술을키고나선 입맛을 쩍쩍다시고 술잔을나려노은후에。

『그런 얼토 당치안은 걱정은 하지도 말게。만약 결혼한다하드래도 맘대로놀아 인생과 세상을 좀안후에 결혼이란망태기속에 머리를되밀겟네』。

『하긴 하겟지? 언제든지?』

쇼맹이찬드려는 천착하게 말하얏다 개려허는급빗 벽다이를이쪽으로보이면서 섞판가터 푸른눈의 시선을 그의친구에게 던젓다 그는를엇다。

『그러케 생각이 드나?』

쇼맹이찬드려는 대담하게 접고 말하얏다。

『맛당한 게집애만잇으면 결혼망태기속에 머리를 너엇지? 자비는 별사람인가?』

그는 말어조에 약간한흥되엿다 그는자긔자신을 말되엿슴을 알엇다 생에붓은맛은 심네뒷서도 그는잠시동안 그를쇼맹이 본후에

『결혼을하드래도 색시에게만해서 허동지동하지는안네 그건 내장담하지 다시말하면돈파혼인을 한단말야 은행에저금이 주독히잇는녀자아지 그러치안으면 무용지물야』

쇼맹이찬드려는 머리를 외로흔드렷다 개려허는 거렴한어조로

『사람은 먹고살어야지? 어게엇마나 힘드는일인지 자네아나? 자랑은아니지만 내가입을벌리기만하면 녀자와현금이 태일엔 내눈에드려온단말야 거짓말갓지? 그러치만다 배포가잇다네 사실말하면 독일녀자나 유태녀자에는 몽녹이나도록 돈을만히가진녀자가만란말야 그런녀자는 여기서 손을내밀지 안어서 걱정어지 좀기다려보게 내가책이 드려마질레니보게 그러내가 무슨일을 시작하면 그것은 죽 내영업(營業)이란말야 아럿나 잠간만 기대려봐』。

그는 술잔을 입에 대여 남커지술을 마신후에 소래크게웃엇다 뜻깁이 자긔앞을보면서 천착한어조로 말하얏다。

『그러치만 급하게 서두르진안네 녀자들이 기대려주녀와 그러고 나는 한녀자에게 내몸을 못드려배고십진안어 알엇나?』

그는 입으로 맛보는 흉내를 내이고천 얼굴을 찡그렷다。

『술이 맛이 좀 변 헌것 가튼걸 암만해도 그런』

× × ×

쇼맹이찬드려는 어떤애를 딸에안고 구석방에 안젓다 돈을 엣겨서 하인을 부리지안엇다 그대신「아니――」(그의처)외누이동생「모니카」가아츰저녁으로한시간씩와서일을 돌보아주엇섯다 그러나「모니카」는 고향에갈아간지벌서 오래엿다

때는九시十五분이다。쇼맹이찬드려는 차(茶)먹는시간에 늣게와슬뿐아니라「봐―리상점에서 카피봉지를 사올것을 이커버렷다。물론 그의처는 성거나서록독쏘면서 말대답을 하엿다 울부렷다。그러나 골목모퉁이안해는 차안먹어도 산다고포달에잇는 가게가 거외문을닷을배나되여서 안해는 차 사분 일혼드(封度)와 사랑두혼드를 처가살어나가겟다하얏다 자는어린애를 삽붓 남편팔에다 노면서안해는말햇다

『자 쌔지맙어요』

漢詩募集

題「老妓」 押「春」 五七言律

期限 五月二十日

新刊紹介

◀東京小間物化粧品商報(週刊)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三丁目八番地東京小間物化粧品商報社發行振替東京一八五一七番 定價十二錢

◀東亞商工時報五月號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六五番地東亞商工時報社發行振替京城七四四一番 定價二十錢

◀新少年五月號 京城府水標町四二番地新少年社發行振替京城一二八二二番 定價五錢

◀朝鮮鐵道協會會誌五月號 京城府古市町四三番地朝鮮鐵道協會發行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專賣通報五月號 朝鮮總督府專賣局內朝鮮專賣協會發行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 定價十錢

◀テニスの友五月號 東京市外野川町北谷端テニスの友社發行振替東京二七六〇番 定價十五錢

ClibPDF - www.fastio.com

產業

成敗를左右하는 雛病豫防療法(二)
養鷄業者로서 알어둘 몃가지
東萊養鷄園 金在煉

그러니될수잇는대로 內容이 充實하야 信用이잇고 가장近距離에잇는 種鷄場이나 孵卵場에서 初生雛를 購入하기로하되 自己가 育雛하고저하는 時期를 미리決定하야 적어도 二十日前에 豫히 約束하야두기로함이可하다。初生雛란 種卵을 機械에 入卵한지 二十日後에 孵化되며 게다가 孵化된後 約三四十時間以內에 育雛器內에 收容되어야만되는 아조어려운條件이 잇스니까 何時든지 店頭에 陳列하야두는商品과가티 注文이오면 卽時荷造하야 發送하게 되지못할을 미리아러두어야 될줄안다

初生雛를 注文하시는이 中에 普通商品과가티 卽時 手中에 들어오지안는다고 그 種鷄場은 信用이업다고 決코 早斷하는수가잇스되 그런것이 아닌줄안다 이는오직 아페말한 그러한어려운條件이잇는까닭이다。

大體健康한初生雛란 어떠하냐하면 大略다음과가튼 數個條件이 具備함을要한다

一、털(毛)이 致密하고 潤澤이 豐富한것이며
二、眼孔이 또렷하야 生氣가잇서보이는것
三、손아귀에쥐어보아서 雛體가 彈力이잇서보이는것
四、體量은 一羽가 普通 十匁以上 十二匁는되어야될것 但八匁以下者는除外함이無妨함
五、배꼽녕(臍)러가 꼽고밝은것
六、다리(脚)가굵고 큰큰하며 조금도奇形이없는것

이밧게도 만히잇스되、普通우리의눈으로는 그鑑別法은 大略이 만치만알아두어도、相當할줄안다

어쨋든지 天性으로 强健한初生雛를求함이 雛病豫防의 第一條件이될줄안다

第一、雛의白痢病

雛의病中에도 가장무서운病은 白痢病이라고 하겟다。이病은大槪初生雛로부터 約一週日以內에發生하야 무섭게 傳染하며 한번걸니기만하면 十中八九는斃死함이普通이오 多幸으로 산것도 後日保菌鷄로되는 일이잇다(後頃에細記함) 이가티무서운 細菌性傳染病인 同時에一種遺傳病과가티 親鷄의 病菌이 그後代에게 날때부터 感染하게됨으로 不幸히어느養鷄場에서 한번이病이 發生하기 始作하면 嚴肅한消毒으로 徹底한 處置를하지안으면 後日到底히 根絶할수업게되며 甚하야는不可不 그養鷄場이 亡하지안으면 안될境遇에 이르게된다。아닌것이 아니라、筆者가親히아는큰養鷄場 三個가 白痢病으로因하야 許多한苦痛을 맛다가 結局閉門하게된것을 目見하엿다。

그네들의經驗談을듯건데 그病菌이 自己鷄場에 드러온原因은 日本愛知縣某有名한 種鷄場에서 種雛 或은初生雛를購入한結果란곳이二處 하나는三重縣某種鷄場에서 買한번 種卵을購入하야 孵化한것이 原因이되엿다고한다

이가티 種卵이나 初生雛를購入한것이 原因이되어 數年或은十餘年間 이루어노흔 養鷄場이 閉門하게되는 悲慘에 이르다니 前項에記한 種鷄의管理 孵化設備의 完備等에對한 信用도信用이려니와 이白痢病保菌鷄의有無를 調査하여야될것을 니저서는안될줄안다

白痢病의徵候

이病은 初生雛로부터 約一週日間에 가장만히發生하는一種下痢性의傳染病이다 白痢病이란 病名과가티 糞色이白色이란것이다 黃色을帶한 白色도잇고 灰色을帶한白色도잇스되 大體로 黃白色이라함이 可할줄안다

下痢하는貌樣은 初期에는 누루스럼한粘液이 雛의肛門附近에 附着한다 漸漸病이 甚하야 結局은 肛門을 막어버린다

우리朝鮮에도 間或肛門이 막혀죽는病이잇는貌樣이다 初心者들이 이러한病이잇으니 무엇이며 어떠케治療하느냐? 하는質問이 種種드러왓섯고 筆者도 近郊農村에서 四五次이病에苦痛하고잇는 雛를目見한일도 잇섯다

重要한肥料인 人糞尿에對하야 (三)
人糞에 재(灰)를 섞지마라
大阪園藝 金俸植

二、人糞尿의處理法

(가)人糞尿의 腐熟程度

人糞尿는 普通 完全히腐熟케하야 施用한다 新鮮한人糞尿를 그대로作物에 施用할時는 農作物生育에 不利한事實은 古來로 經驗上 農家에서 잘認定하는바이며 다음에 其理由를 說明하려한다

(一) 新鮮한人糞尿는 濃度가濃厚한故로 農藝作物에 有害하다

即新鮮한 人尿中에는 約二%의尿素와 一、五%의 可溶性鹽類를 含有하얏고 其尿素는 土壤에 吸收되지못하는故로 假令이 新鮮한人尿中에 數倍의水量을加하야 稀釋한다하여도 溶液이過度로濃厚하야 作物根의 吸水作用을 妨害하야 結局에는 莖葉이 쎠지 萎凋枯死케한다 然이나 一

且腐熟한人糞尿는 尿素가 腐敗時에 變化하야 炭酸「암모늄」이되여 土壤에 잘吸收되는故로 溶液의 濃度는 作物根의吸收에 適當한濃度인故로 農藝作物生育上 被害가적다

(二) 新鮮한人糞尿를 그대로 施用함은 窒素養分의 損失이 有하다

以上論함과가티 尿中의窒素는 土壤에吸收되지못하고 單純히 土壤中에 溶在하여잇는故로 漸次로 下層에浸透하야 流去하며 或은施用後에 多量의 降雨가有한時는窒素養分은 기피下層으로 洗滌되여 作物에 利用치못하게된다

以上(一)、(二)의 理由에依하야 新鮮한人糞尿는 施用前에一旦腐熟시킬 必要가잇다 이新鮮한人糞尿를 腐熟시키고저하면 먼저 肥溜(糞桶、又는웅덩이)에 人糞尿를 集合하야 이에二三倍의 水量加入하야 攪拌한後一定한場所에 雨水와 太陽의直射가 적은陰地에 置할것이다 如此하면 漸次로 腐熟作用이起하야 糞尿中의有機物은 分解하야 炭酸、沼氣、硫化水素等의 瓦斯를 發散하는同時에 尿中의尿素는 變하야 炭酸「암모늄」이된다

人糞尿의腐熟日數는 設備와 氣候의寒暖에依하야 一定치아니하나 普通一週日乃至二週日間內外로 完全히 腐熟할수잇스며 夏節은 冬節에比하야 速함은 勿論이다 以上의 化學的變化에 依하야 元來酸性의尿는 變하야 鹽基性이되며 又糞尿의色은 暗褐色又는 綠褐色을呈하나니 이는 糞尿가 完全히腐熟한徵候이다

人糞尿가 腐熟할時에 發生하는 炭酸「암모늄」은 揮發性인故로 其處理法이 完全치못한時는 窒素質養分의 損失이 만케된다 農大試驗成績에依하면 三週日間 人糞尿貯藏中 揮發로因하야 損失된 窒素量 全窒素量에對하야 冬期는 五、九八%春季는 六、三二%夏節은七五%라 發表하얏다

(나)人糞尿貯藏法의大要

以上論한바와가티 人糞尿는 如何히時急하여도 一旦腐熟치못하며는 農作物에 施用치못하는故로 農家에서는 먼저 糞尿를 集合하야 貯藏할것이나 長久한時日을 要하는것도아니요 數週日間의 貯藏이나마 肥料養分의 發散에注意하야 貯藏할것이며 如何히 多量의人糞尿를 集合하엿다하여도 其貯藏에 不注意하면 何等價値가無한것이며 차라리少量이나마 完全히腐熟한 人糞尿만갓지못하다 故로 人糞尿貯藏에對하야 細細히論하면 廣大한 紙面을 要하겟기에 簡單한 其要領만 들어論하려한다

(1)人糞尿의 貯藏할場所는 陰冷한位置를選擇할것이며 肥溜(웅덩이或은桶等)의 上面에 蓋를設하야 空氣의流通과日光의直射及雨水等의侵入을 防止할것이다 이亦是高溫度로 空氣의流通이 甚할時는 肥料養分의「암모니아」의飛散이 大한緣故이다

(2)前述한바와如히 人糞尿를 適當하게 稀釋하야 (二三倍의水量을加함) 貯藏할것이다 此亦是 糞尿가濃厚하면 自然히「암모니아」의 發散이 大한 理由에 依함이다

(3)萬若長時間 人糞尿의 貯藏이 必要한時는 少量의過燐酸石灰를加하야 貯藏함이可하며 過燐酸石灰中의 燐酸一石灰와硫酸石灰等에依하야 揮發性의「암모니아」를 不揮發性의 化合態로 變케하는緣故이다

(4)人糞尿中에 澱粉質物、藁稈類와如히 還元作用이有한物質은 混用치말것이다 이亦是 「암모니아」의發散을 促進케하며又는 遊離窒素를 發生하야 窒素分의損失을 大케하는憂慮가有하다

다음一例를들어 陽地에 無覆蓋로貯藏한人糞尿와 陰地에 有覆蓋로貯藏한 人糞尿에對하야 同兩者의三個月間貯藏中에 原糞尿의 窒素百分中의 損失量을表示하면 以下와如하며 參考上 此兩者에 過燐酸石灰三%加用한 人糞尿의窒素百分中의 損失量를 同示하랴한다

月別	人糞尿	過燐酸加用人糞尿
陽地無覆蓋로貯藏한것		
一個月後	一七、三一%	一〇、一三%
二個月後	三六、八一%	二三、一四%
三個月後	五五、六五%	三一、〇四%
陰地覆蓋로貯藏한것		
一個月後	三、六四%	三、三二%
二個月後	一三、四四%	九、六五%
三個月後	二〇、二七%	一一、六九%

以上의 表示는 今關農學士의 試驗成績에依한것이며 右表에 依하더라도 過燐酸石灰를 加用하야 貯藏한人糞尿는 窒素分의 損失이 小함을可히 知할것이며 大三%의過燐酸石灰를加用하면可할것이다

產業質疑

【問】現在 養蜂講話를 쓰시는 成周復氏의 글은滋味잇게 읽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請은 病에對하야서도 仔細히 說明하시되特히 黑死病에對하야서도 고치는法까지 잘說明해주섯스면 합니다 (大同郡金在明)

【答】오랫동안 繼續하든 養蜂講話는筆者의關係로 幾日間中斷이되겟습니다 그러나 곳繼續하게될것입니다 그때에 筆者에게 그附託을하겟습니다 기다리십시요(林)

◇

【問】食用茸의 菌種은何處에서 求할수잇습니가(晉州一讀者)

【答】日本에다 直接注文할수도 잇겟지만 京城貞洞一番地 農社로 注文해도 잘取扱해줄것입니다(林)

◇

【問】鄭文基氏가海苔養殖에對하야 貴報에 發表論文이 어제울에낫던가요(大川欽知生)

【答】「朝鮮海苔」라는題目으로 昭和五年三月一日新聞에 發表한論文이잇고 또는 最近昭和六年二月二十二日新聞에「香津浦한김이仁川서도生產」이란題目으로 쓴것이잇습니다(林)

最後까지버티고저 舊作人共同耕作
晉州二班小作爭議

【진주】진주군나동면 삼게리(晉州郡奈洞面三溪里) 박규석(朴圭錫)은 자긔토지중 二반성면(二班城面)에잇는 소유토지 백두락(소작인四十九명)의소작권을 농망과입도 불고할뿐아니라 하등의 허물도업는것을 이동하얏슴으로 소작인 四十九명중 十三인을 대표로하야 박지주에게 그해결책을 강구코저七十리되는 먼길을 거려서 가는지주에게 청을 하얏스나 왓왓내 돗지 아니함으로 그소작대표들은 진주농민조합회관에서 三일간어나 자취하면서 진주농민조합과 합력하야 그해결에로력하갓지만은 박지주는 그해결에응치아니함으로서 그들은 돌아가 신구소작인간에 큰충돌을 여긔하고 四十九명이 최후까지항쟁을 단행코저 구소작인들은공동경작을 단행하려라는데 쇠뢰하야가는 그동촌에서는 一대문제서러라고한다

製糖原料甛菜의 新品種增殖計劃
朝鮮에獨特한種子를採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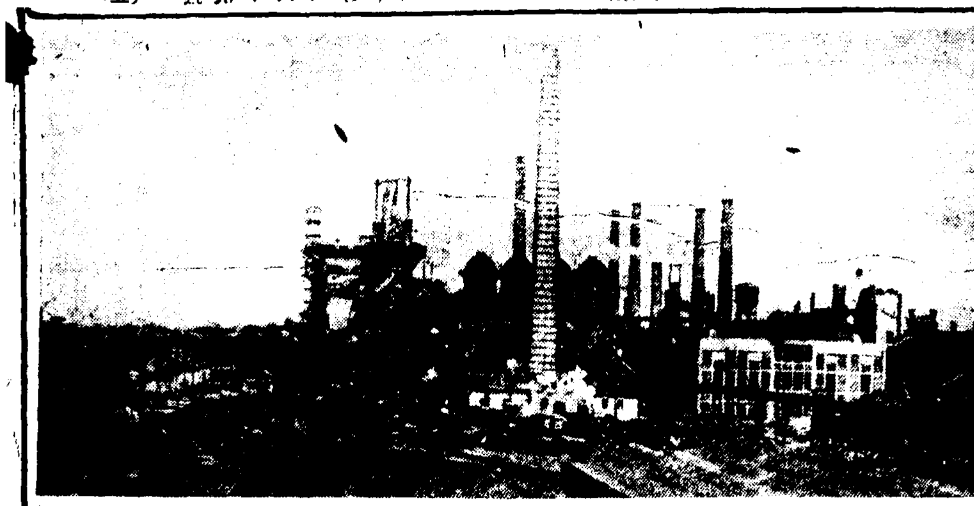
종래조선유일의 제당원료(製糖原料)인 감채(甛菜)종자는대개 독일에서수입한것이데 그것이 조선풍토에 맞지안어서 특종명해에걸니어 재배에 위력을밧고수확에도 큰타격을 밧고잇는실정이다 수원농사시험장(水原農事試驗場)에서는 서조선지장으로하여금 조선에독특한 종자를재취하도록 연구를계속케하여오든바 그가능성이잇슴을 인정하고금년부터 함남지방의고원지대(高原地帶)에 二十정보의채종답(採種畓)을설치하고 내병신품종(耐病新品種)의종식을도모하기로하엿다 다시 명년이강에는 채종답을二백정보로확장하야 신품종의보급을 꾀하기로하엿다 이에의하야 신종자가보급하며는 현재유일의 사탕원료인 채감의 一개년생산액은약 二천만근이 증가되며 一개년에 반수이상은 원료부족으로 조업휴지(操業休止)의상태에 잇는 제당업자(製糖業者)에 대하야 다대한복음을 재래하려라고한다

龍興有志가 夜學堂建築

【성주】농촌무산아동에게 배움의길을 열어주고저 경북성주군대가면 룡흥동(星州郡大家面龍興洞)에서는 당지유지리수영(李洙英)리정석(李正錫)리영식(李英植)의 수씨의 로력으로건축중이라한다

青山費組開業
滿州粟을取扱

【영동】충북옥천군청산면(忠北沃川郡青山面)에서는 청산소비조합을 개업하얏다 지난 二월부터 긔성회를조직하고 긔성위원리세영(李世榮)외 二十여인의 로력으로 조합원천여명을 모집하야 지난달부터 최다수용품인 만주속(滿州粟)을 취급하게되엇다한다



蘇聯五個年計劃事業畫報【1】工業篇

「안체브스크」의 工場全景입니다

載寧果業者網羅해 果樹組合組織
면적 五十정보、산액二만五천원 多收穫、團結目的等

【재녕】황해도재령군내(載寧郡內)에잇는 파원업자(果園業者)二十여명은 지난十一일오전十시당지서선협동조합(西鮮協同組合)에회합하야 장래가유망한 파원재배방법과 아프로다수확장려을 실행하는 동시에군내에잇는 파원업자들은 一치단결하야 공동구입판매를 결의하엿다한다

그러하야 즉석에서 의장정인철(鄭寅喆)씨사회로 개회하고 재녕과수조합(載寧果樹組合)을 조직하기로 가결한후 규약을통과하고 기타사항을 결의하엿다는데 현재재배면적이 五十정보에 년 생산총액이 실로二만五천원이상의수입을보고잇다한다

組合長鄭寅喆 理事金元洪 評議員金壽鳳 崔明俊 宋容植 崔壽南

西部農組의 組織을擴張
二十七일에 총회

전남령광군백수면천마리(靈光郡白岫面川馬里)에 위치를둔 서부농민조합(西部農民組合)은 오랫동안 침체한가운데 잇섯다

이에 그조합간부제씨는 조합의 조직이 다만 서부에국한하야타 면파의 련락이 전무하얏기때문에 이러한결파를 가져온것이라 하야 금번에 그조직을확대하야 전령광을 망라하고저 오래전부

六年間中止決議한 禮唐水組設計進行
몃창립위원과 도당국자들이 地主들이疑惑을사

【레산】충남레산군청구내(忠南禮山郡鹿標內)에서는 지난十一일에 레당수리조합(禮唐水利組合)창입위원몃사람과 도당국자와 대행회사인토지 개량회사 사람이 모이여서 대행회사의설계변경(設計變更)에대한 구체적결명이잇고 페회하엿다는데 거번에이회위원회에서 六개년간중지키로결의한 동수리조합으로 이가티 됨에대하야 중지로결의한위원은물론 반대키성회지주와 외혹을가지지안치못하리라한다

陝川에서는 畜牛救濟實施

【합천】경남합천군 축산조합(陜川郡畜産組合)에서는 오는六월一일부터 조합비완납(組合費完納)한조합원의 축우(畜牛)가 죽을때에는 아래와가티 해조합원에게 축우구제금(救濟金)을 주기로되엇다

畜牛救濟交付規程

一、生後六個月以上 二歲까지의牛에對하야六圓式
一、三歲以上 五歲까지의牛에對하야十四圓式
一、六歲以上의牛에對하야二十圓式

大興夜學의發展
학비업고저미나리、빵장사해 道知事도感謝狀

【대전】대전(大田)대흥정(大興町)에사는 류대성(柳大成)씨는 식자보급에 공헌이 잇섯슴으로 충남도지사로부터 감사장을바덧다

씨는 성질이 인후하고 마음이 선량하야 동리사람들에게모범칭년이라는 칭찬을 밧든바로 배울길이업는 무산아동을 모아가지고 작년十一월부터 야학을 창립하고 一정한장소가업서 이곳저곳으로 쫏기여다니면서 아동교수를 계속하야오든바 처음에는 ㄱㄴ도 모르든 소년들이 지금은 신문의 이면긔사도 읽을만치 국문을 해득하얏다 이에 부형들이 감동이 되어 전에는 등한이 하얏스나 이제부터는 극력원조하게 되엇다 하며 一개월에 五원의 월사금을 내지못하는 가난한 아동들은 미나리장사와 빵장사를시켜 학비를 충당하도록 강사 류대성군이 지도하야 실행하는 아동이 수인이잇다 이말을들은 충남도지사는 천긔류군에게 감사장을 지난四일에 보내엇드라 한다

北青農社大會

【북청】함남북청군농민사 제四차 대표회는 예정과가티 지난八일오전九시부터 읍내천도교당에서 열니엇다

五十八개동농민사 단체의대표一백十인의출석으로 지방에서쳐음보는 농민측의 회합으로서 사항토의와 임원선거가잇섯다

理事長安鎭煥副理事長高昌洛

公州서開催하려든 食用茸講習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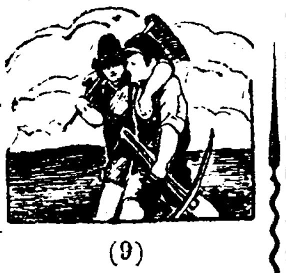
【공주】본사공주지국에서 농촌부업장려로 금월十일부터 일주간 당지실업협회실에서 식용인공재배강습회(食用茸人工栽培講習會)를 개최한다함은임이보도하엿거니와 모든준비로 인하야 강습긔일을 좌긔와가티 연긔하엿다하며 신청지원자는 속속지원하기를바란다고한다

一、申請期日 本月二十日까지
一、申請場所 東亞日報公州支局
一、講習會期日 自五月二十三日로至五月三十日까지

悲觀에싸혓든 慶北麥作狀況
最近天候好調로 多少發穗하기始作

【대구】겨울과 봄에불순한긔후와 뼈아닌 졸한이며 그리고 가뭄등의 원인으로 경북(慶北)의 맥작(麥作)은 가장랑패의우려에 싸혓든바 지난四월말경련일은비가 넘어파하기는 하얏스나 쳐지안흔 회복이 되엇스며 더욱이 근일의 천후는 비교적호조로서 대구(大邱)부근에도 더러는 벌서 출수(出穗)가되며 경북각지에도 차차 출수상태에 잇스나 지금으로는 도저히락관되지안는 만큼 一반농가는 금후의 천긔를 가장 주목하는중이다

震災前後 (9)
鳴齊 作 人田 畵



四의一

어느듯 사월 보름이 지낫다。망꾸마가 죽은 뒤의 이 일간에는 두 사람과 저들의 충돌이 더욱 잣게 되엇다。두 사람이 이십여명과 대립하게 된 것이엇다。별로 그러할 원인도 업는 지마는 어쩐일인지 그들은 매사에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는 말수 업게 되엇엇다。두어 사람이 서로 다투게만 되어도 저들은 고다에 떼를 지어가지고 「조선사람주제에 뭣이 어째」하면서 팔을 뽐내고 달려들엇다。이제의 저들중에는 그 망꾸마만한 사람도 없는 것이엇다。두 사람은 할수없이 마츰내 다른 일ㅅ자리를 구하야 옴기기로 결정하얏다。

이러는 동안에도 한가지 반가운 것은 떼의 병이 더욱더욱 쾌복되어 가는 것이엇다。이제는 변소출입도 혼자서 하게 되고 때로는 병원의 뒤뜰을 산보하게 까지도 되엇엇다。아즉 허리를 굽히거나 옆을 도리는 때에 가슴이 딱딱 맺히기는 햇지마는 의사의 말대로 하면 그것도 또한 한 달안으로는 넉넉히 나을수 잇는 것이엇다。네 사람은 가끔 병원에 모여 앉어서 두 사람이 사가지고 간 과자나 귤 같은 것을 먹으면서 진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론을 하기에 시간이 가는줄을 잊게 되엇엇다。그들의 앞에는 다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엇다。

그러나 한가지 큰문제가 다시 그들을 괴로웁게 하얏다。그것은 곳 려의 입원료이엇다。처음에 칠십원을 바치엇스나 그것이 끈어진지는 이미 오래이엇다。그 사이 두사람이 벌은 돈도 실상은 적잖엇지 마는 그것을 약발으게 나누어서 리의 병구원에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고 송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러고 또 두 사람의 사삿용돈을 쓰가게 되엇음으로 그것은 언제이나 손에 들어 오기가 밟브게 볼러갈이 다려나고말게 되엇다 그려하야 그들은 아즉 입원료로는 한 푼도 갖어다 주지 못한 것이엇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어줄 병원이 아니엇다。그들은 그새 몇번인지 모르게 북같은 독촉을 받엇다。그럴 때마다 그들은 조용만 조용만 하고 이것을 연긔하야 왓다。그것이 이번에는 다시 더 할수없는 막달은 골목에 이르게 된 것이엇다。

그들은 할수 없이、우선 정거장人일을 작파하고 나올 때에 찾은 돈 십오원을 바치고 간신히 닷새동안의 유예를 얻엇다。그러고 이번에는 다시 송까지를 버리꾼으로 더하야 세 사람이 함께 새 버려리를 행하기로 결정하얏다。이제는 리가 자긔 일을 혼자 보아 감만치는 되엇음으로 송을 빼여 넘지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될 것은 없는것이엇다。

새 버려는 도로공사를하는것이엇다。K시의 북쪽에는일본에서도 이름 높은 미다께(御嶽)라는 산이 잇어서 해마다 몇천명만인지 모르는 순례(巡禮)하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부터 모여 오게 되엇엇다。그러나 그에는 이 때껏 완전한 도로가 없어서 순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로 여간 큰 고통이 되지 아니하얏다。그려하야 몇해를 두고 현회(縣會)에서 문제에 문제를 거듭하야 오다가 마츰내 올부터 새로 도로를 닥게 된 것이엇다。이것이 그들 세 사람에게 새 버려가 된 것이엇다。그것은 먹고 자고 하로에 일원 십전씩이엇다。

밤이 미처 새지도 않은 오전 다섯시가 될락말락한 때이엇다 주인 여편네의 깨는 소리에 번쩍 일어나 본즉、아츰 밥상이 벌서 들어 오면서 되장남비에서는 기동 같은 김이 무럭무럭 올라왓다。그들은 낯도 잘 씻을 겨를이 없이 상을 대하게 되엇다。아즉도 잠이 가득한 입에 밥이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엇다。두어 그릇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억지도 입에 퍼 담은 뒤에 세 사람은 동모들의 뒤를 쫓아 산길로 올아갓다。수풀은 밤 기운이 아즉도 걷히지 않은 곳에서새벽잡이 한참이엇다。K시는 멀리 발아래에서 귄동 봄을 깜박거려면서 잠고대를 해다。그들은 찬 서리에 몸을 떨면서 연장을 들지 않지 못하야다。

▲당신을참으로곱게하는

白色美顔水 (빅색미안수)

백색미안수로한화장의 아름다움은다만희거나 고운에만그치지안코말할수업시청신하며살바탕이본래그린것가티희고도어엽브게보입니다

◇

백색미안수의화장은참으로힘들지안코수고와시간이오래걸리지안슴니다급하게하드라도훌륭히곱게화장이됩니다

◇

또화장솜써가서두르신분도거칠거나기름이쌔어서벽분이잘아니오르시는분도백색미안수면훌륭히고옵게오름니다

◇

백색미안수는도곡약학박사의화장품연구소의독특한연구로써완성된화장품으로순수하야부연임으로연독의념려가는것은조금도업습니다

멀리외국에까지 소문이놉흔물분

美顔白粉本舖 東京 大阪 桃谷順天館

ClibPDF - www.fastio.com

讀者評壇

修學旅行

金瓚植

近來各學校에서는日本滿洲等地의大都會로 修學旅行가는것이 流行的으로大端流行되는모양이다。以前에는 金剛山이나 慶州等地로 多이가더니 近者에는 日本行이斷然 首位를占하고잇다。어떠한 方針下에서 생긴일인지？果然 歡迎할만한傾向인지？그費用이 昨今破綻와 窮乏의極度에 達한 農村에서 글거서나오는 엇가운 돈인만큼 그旅行의 所得如何는 決코等閑視하여바릴것이못된다。그들의푸로그람을一瞥하면大槪大同小異하다。日 ×××

×××日 帝國議會 日 三越吳服店等 따라서 그들이 보고듣고온것은 都會와 都會의 一部分에 不過함을 알수잇다。都會！都會에서는 무엇을 볼수잇스며 또한 드를수잇는가？ 咆哮交通機關의狂的喚騷와 摩天樓 人波 喧噪나는소음 紅燈 失業群 犯罪와 頹落 그리고 紀末的享樂 頹廢로운 生活의 裏面에 숨은 百千사람의 饑寒 이모든것이 都會를 代表하는 現象이다。

그러면 이러한 都會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울것인가？ 無條件으로 都會에 心醉한 어린 學生들에 그들의 指導者들은 무엇을 봉어줄작정이며 修學旅行은 어떠한 印象을 새여주는것인가？잘곳이없어公園이나 街頭에 徘徊하는 農村의 無力과 밤거리에서 손님을物色하는 賤業의 아양도 幸福스런 都會人으로 박게보이지 안는 그들의눈에는 限없는부러움이 잇슬것이다。 都會로 都會로！ 純眞한 農村의 靑年들은 이들이 아모準備와 豫算도없이 都會로都會로 끌려 들어오며 이로因하야 여러가지 不祥하고 悲慘한事件이 發生되는것이 都是都會의正體를 理解못하는까닭이라면 얼마나 可嘆할일이겟느냐？粉飾한都會의假面을 剝脫하야 그赤裸裸한眞相의 一部도把握치못하고 盲目的으로 物質文明의 表面讚美에 終始하는 이따위 修學旅行(？)이 어느때까지나 繼續될것인가。

韓末秘史 最後六十年遺事 (三九)

東亞浪人

【眞厲汚膩香粧出門】心腸則反覆은 物理의 常事니人 權大臣 權子洛은 近來平凡한 事의 彌縫도 亦一理也라 慎宋大臣으로 黃閣古事에 其相業은 光金鉉李安金蘭熙等 所謂西人臣爲 可爲者가 無하나 其性이 外勢力이 數百年來로 閫中에 情은 視爲斷金할만한 剛猛이有 膨脹하야 東南北三邊이 不敢正하야 他人이 能히 忍耐키不能 眼睛世하든 熱炎은 大院君十年한事를 能히忍耐하는故로 其氣 執政間 一大打擊을 當하야 巨權位에 致하엿는지 未可知也라 前日에 殷打罷黜侮를 受하든 世方法도亦其忍耐로由하야人臣 宗門衛에 秋風落葉가 蕭瑟하고 한다 其少時에 疥癬의 惡疾을 午人一方의 勢炎이 頹盛하니 染하야 苦惱가 劇甚한지라 或曰 此時午人中 稱謂曰氣는 一時相 疥癬은 毗娑黨이아니면 他人에 傳하며曰 아！近日에는 北村一게 傳染하고 且全治하기 難하나 隅에 老論쌕는냄새에 사람이라 緊畜試로 刊하야 所謂疥癬黨 견딀수업다하며 或薄人口中 流을 貫來하야 其療法을 聞하고 에는 西彼朽香이라는 才談 日兩班이 事死언정 赤條條一身이 叶出하니 此는 彼西人의 腐敗하 此箭을 嘗하고 療法을 急行하 는鬼瘴을 嘲弄하야 午人이 活 리오하고 療을 退避하엿다 成 躍하는 生氣를 誇張함이라 日 疥癬은 十日間痛飮을 一吹도 能痛치아니하면 全治를 可得이라하니 權曰 播不播는 在我之事라 不播何難이리오하고 一靜室에 閉處하야 兩手를 堅拱하고 十日을 不播掉하야 惡瘡을全治하엿다하며 又瘧疾에 罹하얏슬때에 或曰 發寒時間을 待하야 入浴하야 發熱時에 井中에 出하면 可以離却이라하거늘 又試此法하야 久病을 全治하엿다한다 伊後文科에登하야 翰林을다일때에 聖妾을 下하엿더니 一日은 春宵一刻의 德興을 慾動하야 床奴의 方妝彩을 隨하야 妾家를 向하야가다가 喑黑한 僻路에서 足下에 軟泥物이 有함을 感覺하엿다 妾家에 至하니 美人이 出迎하야 急히 上堂을 請하는지라 上堂치아니하고 軒端에 臨坐하야曰 我履를 觀하라 美人이 履底를 一觀하고 曰 臭氣가 觸鼻하니 路上의 遺屎를 觀踐하엿나이다 急히 신을벗고 上堂하심을 請하니 答曰 我는 上堂치안코 直還할터이고 此家屋과 一切什物을 너에게 付與하는것이니 너는 明日이라도 即時他郞을 求하고 我에게 對한 情念을 斷하라 美人은 大驚하야 其由를 問하니 答曰 我는 平日 夜間出入이 無하더니 今日에 너를 尋訪하기 爲하야 汝家에 來하다가 如此한 汚穢가 我身에 及하니 萬一 此를 懲戒치아니할지면 將來에 汝로因하야 何如한 汚辱이 내몸에 及하야도 可以忍耐하며 何如한汚辱이 家門에 及할지라도 亦可忍耐也니 汚辱의 來는 絶斷하는게 可하고 忍謝하는게 不可한지라 今日에 나 烈恨이 생각지말라하고 斷然 我顧程와 汚辱을 堤防하는 뜻이 美人의 情緣을 絶斷하는것은 簡 히 出門하얏는故로 此人의 斷 髮에 時人의 傳說을 得하얏다

【西彼朽香은 即鼠皮衛項의變稱】物價則反賤하고 物 若四君喪主와 反賊로 如此히 係無色한 情境은 實로 陋惡한 下隷輩를 對할 面目이 倡皮하야 倭人青齒하얏다가 甲子以 四人이니 曰興寅君、曰興完君、曰興宣의 四兄弟라 鍋雀江北 도로목 返賊坦에 至하니 北村宰相 及 朝士의 出迎하는者는 一人의 影子도 無하고 窮困欲死하는 午人數名이 出迎하엿는데 此는 興宣君平日에 惡癖相照하든 友人이라 興宣이 此時에 世態炎涼과 人情의 向背가 十分推測하기에 足할지라 百懷가 春中하야 老論一方에 對한 惡感은 死且不朽오 午人에 對한 感謝는 一言難盡이라 以

에 鄕情을 爭하고 返賊가 入都 臨時에 隨我한 喪人은 大臨

【腐朽活躍이 皆有其由】 壯獸世子의 孫南延君을 德山

後에 一般必償하고 睚眦必報하는 機會를 當하야 西人에 對하 反感은 腐朽로 變하고 午人에 對한 感謝는 活躍으로 變한것이다

【李載先獄事는 午火의自焚】十年間勢力을 假借하야 光焰이 赫赫하든 午火는 甲戌以後 十年間 又復熾炭冷灰의光에 陷入한지라 大院君門庭을지나는 午人服中에는 無名業火가 噴出할 地境이엇다 此時 江華士人 李晳九는 原來人格이 不草草하고 經綸策略이 足以有爲한人物이오 且大院君의 失勢落拓에 悄慨하든 同情을 包하야 午人의 樺圳鎬安驥永二人을 會見하고 相議曰 今日倫常이 斁喪하고 政綱이 紊亂하야 人將爲獸오 國將爲墟니 宗室中一人을 推戴하고 先王의 反正하시든 例를 擬하야 保國安民하는 策을 立하는게 坐而待亡하는것보다 낫지아니하냐 樺安二人이 亦此에 同情하얏고 大院君의 庶子李載先은 爲人이 甚히庸愚하나 此로써 乘事하는 商權을 作하얏다가 大事가失敗하야 刑에 及할지라도 無足可惜이오 幸히 成功則 更히李載冕을 推戴하야 大院君의 大運을 再次恢復한다하고 午人中에서 同事者數十人을 糾合하고 又壯士百餘名을募하야 西陵의幸行을 機會로 伏하얏다가 還宮時 南大門에 壯士를埋伏하야 事는 李晳九等幾人이 擔任하고 樺圳鎬 安驥永等은 兩門事變을 連하야 李載先을 奉하고 大內에 直入하야 政府를 組織하고 出榜安民할 計劃가 己定하야 다만 西陵의 幸行을 期待하는中이매 마참安驥永의 部下에서 他日論功을 私議하다가 不滿情을 抱한者가 잇엇고 且西陵幸行이 延期됨을因하야 內部의 謀議로서 當局에 密告함을 因하야 獄事大起하야 李載先以下 共謀者三十餘人及 連累者가 多數逮捕되엇는데 李載先은 便一木偶와如히 禁府鞠庭에서 隨問隨答이 七顚八倒하야 要領을 不可得이오 李晳九 樺圳鎬安驥永等은 本來反正하라든 主義를 一一自白하야 辛巳冬에 李載先을 賜死하고 樺圳鎬以下 二十四人은 西小門外에 伏誅하고 그屍身을 臠臠以徇하니 自此以後로 午人의 謀事는 自火自焚에 歸하야 又一大挫折을 招致하얏다。

【眞慰母心이去國의原因】芸楣閔泳翊은 閔府本宮의 主人으로 賓客이 滿堂하야 時局에 對한 內修外交를 談論하는際에 內堂에 出入하는 複道로조차 閔先達一鎬가 出來하야 令監의 朝飯進支를 告하는지라 芸楣는 勃然變色하야 一鎬를怒罵曰 내집에 進支告할 下人이업서서 자네가進支를 告하는가 그複道는 內堂을 直通한 複道인데 자네가 무엄히그리로 通行하는것은 무삼일인고 또자네가 매양大房에서 밤을새으니 자네의 體面이 大房에서 밤먹을사람인가 且無爲無衣하고 大房에서 奇怪不敬한 小說冊을 讀고 驕慢한行動이 뵈이니 그것은 무삼버릇인고 從玆以後는 複道의 通行과 大房의 出入을 一切不許하는것이니 不悛하면 正當한 措處가 잇스리라하고 辭氣가 嚴厲한지라 座上賓客은 閔一鎬라는者가 此家에 如何한關係者인줄 짐작하

젊은그들 (二〇一)

金東仁 作 李象範 畵

두 녀 성 (一〇)

「연연이가 아즈머니를 좀 뵙구십답되다」

이런말을 인호에게서 드를때에 인회는 여러말을 허비치 안케 하고 회견을 곳 승인하엿다。인호가 이것을 무렵볼때에는 연연이의 집으로 가서 맛날는지 혹은 불러서 맛날는지 어면 형식알에서 맛날는지 여러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배가 잇섯스되 인회는 그런 모든것은 생각지 안코 자긔가 가서 맛나는것이 당연한듯이 손쉽게 승락하엿다。인회는 아즉것 낫고잇든 인회에게서 처음으로 놓지를 어든듯한 늣김을 바덧다。

그이의 행방이 불명케 된지 十여일 나케는 행여 그이의 소식이라도 알어지지 안흘가 하며 흉로 수구문밖글 헤매이며 밤에는 우름으로써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인회는 사람의 세상의 외롭고쓰라림을 절실이늣겻다。스승이 서울잇슬때에는 그래도 빼빼로 하소연할 이도 잇섯건만 스승까지 시골도 몸을 피한 뒤에는 하소연할이도 업섯다。인회는 혼자서밤을구르며 울고 하엿다。

인호가 인회의 아페 나타낫다。그러나 인호가 얼마나 인회의 심동에 위로를 주엇스랴 비록 자긔를 녀청으로 아는 이세상외 씻재人사람이라하나 인호의 아페서는 그는 마음대로밝버둥이를 칠수가 업섯다。인호의 밀시가운데서 아직 그이의 생사에배하야 요행신을 보칠 가능성을 며 발견하엿다 하나 이발견은 더욱더 그의마음을 담담케 하는데 지나지 못하엿다。오히려 다 단념하야 버리면이어니와 오랫동안 요행신을 게속하는것이 더 힘들엇다。

늘 울고시픈마음과 죽고시픈 마음사가운데서 인회는 자긔의 마음을 한번 펄처노코 하소연할만한 동지를 구하는 생각이 몹일듯일어낫다。그러나 누구에게？스승은 시골로가섯다。태공은 인회에게는 아직 낫설엇다 인호는 멀쳐엇다。그러고 그 세사람밧게는 인회의 심동외정도를 아라줄사람은 세상에 업섯다 분려려 그세사람은 모도 이성(異性)이오、사(私)보다도 공(公)을 중히녁이는 사람들이엇섯다。그이들에게 하소연을 한다야 인회는 마음에 풀은것을 한수가 업섯다。동지—— 공정로파견 젊은이건 파부건 유무녀건 처녀건 자긔의 마음을 풀어노코 한번 울어볼수잇는동경이 이인회에게는 그립기가쓰지 업섯다。그러나 그런한 사람이 이세상에는 업섯다。녀인으로서 인회의 정처를 아는사람은업섯다

어러한 때에 인호가 연연이와의 회견을 처외하야다。더구나 가는 다른생각은 할여유가 업시 그일을 승락하엿다。인회는이를 사모하는 정열때문에가 남아파하는 연연이는 이런경우에 잇는 인회에게 더一각이라도 멀리 만나보고 십게하얏다。만나면은 서로 손목을 「마조잡고 마음껏 하소연할수가잇스려니하엿다。그러고 외마의 위로라도 어들줄알엇다。

그러나 회견한 뒤에 인회에게는 락망과 노여움을 산것바게는 수확이 업섯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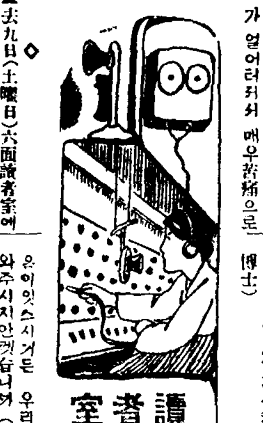
아조 공손한 연연이의 이말에 눈물먹음은 인회가 거긔 적당한 댓구를하고 연연이에게서 다시 나올위로를 기다렷지만 연연이의 입은 그뿐 봉하여 버렷다。

안회는 몃마듸를 더건너보앗다。그러나 마듸마다 더、냉냉해가는 연연이의 태도는 마츰내 이회의 마음에도 반항심을 이르키게하엿다。그러고 그 마음속은 곳 자긔와 연연이의 지위와 키지를 고찰하는데까지 이르러 생각을 섬은여갓다。

『가색·천·소실·시앗·천비·상인』

처음에는 자긔와 몽둥의사람으로서 대하려든 인회의 마음에도 (연연이의 태도 때문에 이러난 반항심으로 인하야) 이러한 경멸할만한 연연이외 지위가 생각나게 되엇다。그리고 이 생각은 더욱이회외 입을 몰업게하엿다。

一단 이러케 마음을 먹은 뒤에는 연연이는 인회에게는 『나추볼한 비렬한 인격』에지나지 못하엿다。그러고 사랑하는그이를 빼아슨 한녀편의 여호에지나지 못하엿다。



讀者室

◇

▲去九日(土曜日)六面讀者室에 所載된「平壤倉田里一讀者」의 思想과 李公的精神에 우리學校는 感謝합니다 우리學校의 生徒數는 六十名이오 現職教員은 二人인데 당신파가티奉仕的教務를 잡으시겟다는분이 게신다면 歡迎하오니 마음이잇스시거든 우리學校로 와주시지안켓슴니까 (中和邑私立散義學校)

◇

▲槐山李相憲氏！八日發行六面應接室에 무르신 京城市內 化學技藝講義는 京城市內南米倉町朝鮮化學會에서發行합니다 (市內黃金町二洞朴相鉉)

紙上病院 隨問隨答

◇

【問】本人은 二十九歲의 男子이온데 略十年前부터 鼻塞이잇서 香臭를 不聞하며 흥흥한 코가 普通에 더나오며 어떤때는 鼻內와 口中에서 臭臭한 惡臭가 나는것가튼데 其時는 消化도 不良하고 精神도 不好합니다 何藥을 使用하여야 全治될는지 全治될藥을 敎示하야주시오(一病苦生)

【答】仲介에 病이 잇는것갓슴니다 藥物로는 鹽水를 弱하게만드러서 一日二次식 鼻內를 深部外지 洗滌해보시오 手術이 第一速합니다 (世專外科李容卨博士)

◇

【問】나는 今年二十歲된者인데 손가락마듸마다 두두레기가 큰것이 낫는데 그것도 恒常 그런것이아니고 봄철이되면 그러하니 血液이 납버서그런지모르겟스니 그治法과 藥名을 가러처주시옵소서 (九化讀者)

【答】어떤것인지 보지안코 말삼키어렵습니다 (世專外科李容卨博士)

◇

【問】本人은 二十二歲의 靑年인데 每年겨울에는 발뒤금치가 얼어터저서 매우苦痛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昨冬에 얼어터진 발뒤금치가 아즉것합창이안되엇스니 어쩌하면 곳합겻되겟슴니까 自宅治療法을 좀가르켜주시오(市內一讀者)

【答】治日을 참엇고 硼酸軟膏를 바르면 나겟지요 그러나 여러달낫지안흐면 骨結한 凍傷이 아니고 다른病인지도 알수업스니 外科先生을 一次보이지요 그래야 安全합니다 (世專外科李容卨博士)

◇

【問】本人은 二十歲의 者生이바 五六年前부터 王病에걸려 苦生하다가 至今治療를 쓰는 中인데 病症勢는 코속외코가 아니라 黃靑色 或은綠靑色인 液體가 구더저서 코로흘지라도 잘나오지도안하 큰苦痛을 바드며 어떤때는 코속이무엇으로써르는것가티 씀니다따라서 心氣도 울울하며 精神도맑지 못합니다 蓄膿症이라고하야 日本으로 藥도注文하야 만히써보앗스나 낫지안슴니다 이病잇는者는 運動해서 有害한지？病에對한 攝生法과 速治法等을 明示하야주시오(一讀者)

【答】蓄膿症이면 藥으로는治療안됩니다 速히 手術하는것이 上策입니다 (世專外科李容卨博士)

補血補腎強壯

ポリタミン (포리타민)

醫學博士三百九十餘名의

權威잇는推奬報告가有함

醫家는左記의境遇에만히賞用함。

貧血、病中病後의衰弱、虛弱質、

精力減退、神經衰弱、肺結核、

産前産後、胃腸病、榮養不良

포리타민은世界의醫學界에서 滋養効果가가장優秀하다고 證明된 貴重榮養素아미노酸을 主成分으로하는獨特한 補血補腎强壯劑로 普通의滋養劑와달러 服用後直時體內에 吸收되어 血이되며 肉이되어 速히 衰弱을恢復하며 體力과精力을 增强하는貴重榮養劑이다。

一般의 滋養劑를 服用하야 아주 充分한 効果를 엇지못한 사람들에게 特히 포리타민의 服用을 推奬함。

肺結核、肺尖加答兒의榮養療法治療補助劑

구아야콜포리타민

本劑는 포리타민에 또呼吸器病에 効果가 잇는 藥劑 구아야콜을 配合한 製劑로 肺結核、肺尖加答兒、肋膜炎에 賞用된다。

液狀(單)포리타민 (大) 五〇〇瓦入 (金四圓五十錢) (小) 二五〇瓦入 (金二圓五十錢)

구아야콜포리타민 (大) 五〇〇瓦入 (金四圓七十錢) (小) 二五〇瓦入 (金二圓六十錢)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東淀川區堀上町 大五榮藥株式會社

知名藥局에有함

說明書進呈함

亂立한朝鮮人候補 地盤爭奪에 血眼
모다락선될 위험도업지안허 京城府內의選擧戰

정원에서 二十五명의 초과를 보게된 경성부회(京城府會)의원 선거전은 아프로 一주일동안의 선거기일을 남기고 더욱 맹렬하야 그야 말로 좌충우돌(左衝右突)의 대혼전을 일우고 잇다 작금의 전황(戰況)은 란립이라고 볼만한 조선인 립후보자들사이에 서로 지반 쟁탈전이 맹렬하야 모다가 락선될 위태한 형세에 빠저 잇다고 한다 그러하야 수일전부내 도염동(都染洞)적선동(積善洞)광화문통(光化門通)중학동(中學洞)수송동(壽松洞)간동(諫洞)을 一구로한 수도구(壽都區)에서는 부내 다옥정(茶屋町)청동련합회(町洞聯合會)회관에서 제二회 합의회를 개최하고 동구역에서 출마한 三명의 립후보자들을 절대로 옹호하기로 결의하얏다 한다

府議選擧注意次

一、選擧人의注意
一、選擧會場은西大門公立尋常小學校로함
二、投票의 日時는 昭和六年五月二十一日 午前六時부터 午後七時外지로함
三、選擧人은 本人自身이 出頭할것 代人을 不許
四、選擧人은 投票當時 投票簿에 捺印을要함으로 반드시印章을 携帶할것
五、投票는 반드시 自書할것으로함
六、會場內人名簿對照所는 一號부터十七號外지 氏名으ㅣロハ別로 分하얏스나 其부르는것이 相違되는일이 잇슴으로써 會場內에揭示할 對照所區分表를보아둘것
七、選擧人은選擧會場入口에서 自己의氏名을 自稱하든가 或은名刺를 差出하고 受付番號札을 受取하고 人名簿對照所에 이르도록할 但混雜하는境遇는 一時別로設한 控所에待合할것
八、選擧人控所에서待合하는境遇는 人名簿對照所로부터 呼出할 受付番號順으로 當該對照所에 이르도록할
九、人名簿對照所에서는氏名을 自稱하고 選擧人名簿의 對照를 終하야 投票用紙交付所에 이르러 受付番號札을 還付하고 投票簿에 捺印한후 投票用紙를 受取할것
十、投票用紙를受取하는時는直히投票記載所에 드려가서 自身이 投票를記載할것 만약自書할수업는者는 自書대로적어서 投票函에 投入할것
十一、投票는被選擧人一人의氏名만을 記載할것
十二、左의投票는無效로함으로 記載上注意할것
(가)成規의用紙를쓰지아니한것
(나)一票中二人以上의被選擧人의 氏名을記載한것
(다)被選擧人의何人인것을確認키難한것
(라)被選擧權업는 者의 氏名을 記載한것
(마)被選擧人의 氏名 外他事를記入한것 但 爵位職業、身分、住所又는敬稱의類를記入한것은 此限에不在함
(바)活字又는 版木의 類로써 文字를 押捺하고 又는型으로써 文字를現한것
(사)選擧人의 印章을 押捺한것
十三、投票用紙를 汚損하고 又는毁損하는境遇는 投票用紙交付所에 임으러 其의 뜻을 告하고 最初의用紙와 밧고아 다시用紙를請求할事
十四、投票의記載를了한時는此를折疊하야 投票函에 投入하고出口로부터 退場할事
十五、選擧會場에서는 演說討論은 勿論喧騷하거나 又는協議勸誘를하거나 其他選擧會場의秩序를 紊亂케하는 行爲를 禁할것
十六、其他 詳細事項은 係員에게 물을일

郵便權回收로 警務局에影響
注目되는今後推移 총독부에서 자못 우려중

중국 국민회의(國民會議) 불평등조약(不平等條約)취소선언과 조위원회에서 치외법권 즉시 철폐 조게조차지 철도부속지(租界租借地鐵道附屬地)회수、중국내의 외국우편전신권회수등 여섯가지를 심의하야 본회의에 상청하기로 되엇다함에 대하야 경무국에서 념려하는 바가잇다 치외법권즉시 철폐 조게조차지 철도부속지 회수가튼 문제는 원악큰 문제로 대세에 맛길수밧게 업는것이나 우편전신권 회수문제는 당장 영향이 총독부에 미친다고한다 그는 간도(間島)에는 령사관 경찰이 여러곳에잇서 서로 통신련락을 일본에서 가설한 전신과 우편을 리용하여야만 그기능을 발할수잇다 그런데 이번일이 업서도 벌서 수년래 교통고관에대한 중국의 고의적방해가 잇섯는데 중국정부로부터 이에대한 선언이 공포된다하면 그장애의 정도가 더욱 격심하게되어 일본경찰은 곰작할수가업다고 그추이를 주목중이라고한다

木浦濟州間 郵便飛行開始
통신이 빨라질 금후제주도 十五日부터每日往復

【목포】목포제주(木浦濟州)간 항공개척시험비행(航空開拓試驗飛行)을 하기위하야 원여전부터 착착지문제로 오랫동안 준비에 분망중이든바 항공로(航空路)가 결정되어 서미항공연구소(西尾航空研究所)에 『살무손』비행기는 소미(小尾)비행사의 조종으로 지난十二일 오전六시에 경성여의도(京城汝矣島)를 떠나 동八시二十분에 무사히 목포산리하(木浦山梨下)비행장에 착륙하얏다 동十시에 다시금 목포시가를 일주하고 十三일오전八시에 목포를떠나 제주도에서 다시목포로 도라오리라하며 十五일부터 목포제주간 매일왕복(往復)비행으로 우편물(郵便物)을 취급하리라고한다

朴源孝氏被逮 事件은極秘

【진주】조선일보 진주지국장 박원효(朴源孝)씨는 지난八일 경성으로부터 돌아오자 진주서에서 돌연히 검거하얏다는데 사건은 극비밀에 부처엇다고한다

에로犯人檢擧

경성을 중심으로 경인방면에 출몰하든 「에로」범 대림춘방(大林春芳)(三)은 十二일오후 八시경에 룡산서경관의 손에 체포되엇다 범인은 술만먹으면 색정광으로변하야 닥치는대로 부녀들을 욕하기가일수、유괴을 모수려뒤지는등 경성에서만 네건이나되며 인천(仁川)가라 지방에서의 범행은 방금취조중이나 상당히 만흔모양이라한다

列車顚覆犯 富寧署에逮捕
함경선을 전복하라든범인

지난四월十一일 오후 三시조선철도(朝鮮鐵道)함북선의진행중인 렬차를 무산역(茂山驛)의서편 부령군서상면차령동(富寧郡西上面車嶺洞)에서 전복을계획하야 긔관차를 탈선시킨범인은본적무산군무산면무산동(茂山郡茂山面茂山洞)八번지현주중국 간도(이하미상) 김임손(金任孫)(三〇)은十일부녕(富寧)경찰서에 체포되엇다

水原署事件 六人은釋放

【오산】수원경찰서고등계(水原警察署高等係)에서는 지난三十일에 돌연긴장하야 읍내에서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박승극(朴勝極)씨를 검거하더니 이달三일에는 이른아츰부터 아연긴장한빛을 띄우고 고등、보안 두주임이하의 다수한 경관대가 자동차로 동군 양감면(揚甘面)에 달려가서 그곳에잇는 소년동맹지부(少盟支部)주최로 어린이날을 거행하라고 신흥학당(新興學堂)에 모인 수다한소녀들을 해산시키고 소년동맹지부원 장두문、구직회、리원섭(張杜文、具直會、李元燮)씨등 五인을 즉시 검거하야 자못엄중한속에서 련일 취조를하더니 근일에는 일단락을 지어서 九일에 박승극씨와 아울러六인은 전부석방되엇다 한다 이번사건에 대하야 상세한말을 들어 보면 양감에서 어린이날을 『무산 소년(無産少年)』데이로 전환 하야 시위 항렬이나 또 다른운동을 할계획을 하얏다하야 그가티 활동한것이라하며 전긔박승극(朴勝極)씨는 五월一일『메이데이』로 예비검속이 되엇다가 이사건이 이러나자 관련이잇다고 취조를바든것이라한다

義州靑盟員 三名을送局

【의주】의주청맹간부(義州靑盟幹部)五명을 지난五일에 당지경찰서에 검거되어 엄중한취조를 밧든중 지난十一일에 장선명(張善明)김봉두(金奉斗)량인은 석방되고 남은박원식(朴元植)리상규(李尙奎)류종원(劉宗元)세사람은 그동안 동경찰서사법계 오(吳)경부손에 엄중한취조를밧든중 출판법위반으로 드듸여 十三일에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엇다 당일 동경찰서문전에는 가족과동지들이 전송하려 모여잇든중 동경찰에서는 즉시해산을시키고 만약압송하는 사람과악수든지 이야기하면 곳검속한다하야 삼엄한경계리에 오전九시자동차로 압송하얏다 한다

그날그날

日曆

五月十五日(金曜) 陰三月廿九日(庚午)
日出前五、二五 沒後七、三五
月出前三、五七 入後五、一八
(滿潮) 仁川 前三、五〇 後四、〇〇
釜山 七、〇五 七、三〇
鎭南浦 八、〇五 八、一五

天候

十五日 曇雨模樣
京城 十三日 最低 一〇、三
十二日 最高 二五、二

라디오

【十五日(金曜日)】▲午前十時氣象概況▲十時四十五分料理種目日用品時勢▲正午時報 뉴-스▲午後零時二十分라디오學校▲一時衛生講座 肺結核에就하야(二)關內祺▲二時十五分産業講座▲三時四十五分 뉴-스官廳公示事項▲五時四十五分 라디오體操職業紹介事項今夜프로그람▲六時談話(A)▲六時半英語講座▲七時公示事項今日뉴-스明日프로그람▲七時二十五分講演▲八時俚謠▲八時半淸元▲九時放送映畵劇▲九時三十五分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時報뉴-스公示事項明日프로그람▲九時五十五分西道雜歌 愁心歌、孔明歌、難逢歌、巫女歌 李映山紅

航空

報知機 不時着陸

【東京十三日發電】報知日米號는 十三日午前六時二分 에트로프島나이호灣을 出發、西海岸코-스를取하야 飛行한바 發動의形便이 조치못하야 나이호灣相距한 八十키로地點에不時着水하얏다 機體點檢한後十四日朝므로톤에向할豫定이다

◇武魯頓灣에向 【紗那十四日午前七時十五分】千島列島紗那出發、新知島武魯頓灣에向하얏다、同灣에서 燃料補給한뒤 天候가조흐면 그대로一氣에『캄차카』、『페트로파우로스크』外지飛翔할터이다

南朝鮮試驗飛行

朝鮮航空研究所에서는 朝鮮總督府의命令에依하야 五月十二日부터一週間의豫定으로 南朝鮮地方의試驗飛行을 實施하게되바 飛行의目的은 木浦、濟州間의 海上及朝鮮南部地方의 航空上及氣象狀態、航路目標、時間、商民等의 諸要素를 攻究하고 아울러航空智識의普及을圖하랴함이라한다

◇航空機乘員 西尾操縱士 小尾操縱士
◇使用機 살므손式二A二型
◇航空路Ⅱ1、京城―松汀―木浦▲2、木浦―濟州▲3、木浦―麗水▲4、麗水―河東―晉州―大邱▲5、大邱―京城
◇離着陸場Ⅱ京城、木浦、濟州、德陽、河東、晉州、大邱

◇耐空新記錄 【닙(南포란스)十三日發電】巴里東京間 無着陸飛行準備中의 佛國名飛行家루-・뻐리氏는 그準備飛行으로 十三日朝 愛機『트레이드・유니온』號에 八噸의燃料를滿載하고 無給油旋回長距離耐空飛行 世界新記錄을짓고서 離陸하얏다

女流飛行界處女空 시베리아를征空

獨逸女流飛行家로서 有名한 『에츠롤프』孃은 伯林、東京間 長距離飛行을 決行하기로하고 六月頃시베리아코-스로부터 女流飛行界初夏의驚風을라고 今年最初의 東洋來訪을할터이라한다 搭乘機는독용켈・쥬나오」A五〇型으로 孃은此飛行機으로서 女流飛行界處女航空路로서 아직남어잇는『시베리아』橫斷을唯一人征空의壯途에 就할것이라한다

米飛行家바인스氏 사를東京無着陸飛行

【와르손발九日發電報聯合】米國飛行家『바인스피치』氏는 七月사를東京間 無着陸太平洋橫斷飛行을決行할 計劃을세운旨를 九日當地에서發表하얏다

快晴한箕林숩에 開幕된蹴球戰
壯嚴한入場式치룹니어 實業團豫選부터戰幕은열려

【平壤】關西體育會主催、東亞日報社平壤支局後援의第七回全朝鮮蹴球大會는 今十四日午前九時 盛大한入場式으로써 開幕되엿다。

會長 曹晩植氏의開會辭와優勝旗返還式을行하고 趙瑛河氏로부터 競技及一般에對한 注意와 姜晉求氏의 審判注意가잇슨後即時競技進行에들어가實業團의兵友對金剛을비롯하야豫選戰이버러지게되엿다。

이날은 日氣조차 淸快하야蹴球都市平壤은 全市의人氣가 箕林里公設運動場에集中하고 松林속에는 數千觀衆으로써 人波가滔滔하다。三日間의大會競技順序는如下하다

大會第二日戰順

(實一)法曹―月星
(實二)龍鐵―兵友、金剛勝者
(實二)昌盛―平鐵、研究勝者
(靑準)戊午―徽新、楊井勝者
(實二)平安―洋靴、大阪勝者
(中準)明新―崇仁 靑紅勝者
(靑準)晉專―世專、崇專勝者
(中準)培材、平農勝者―崇中新高勝者
(實二)共濟―法曹、月星勝者
◇時間은午前九時부터一時間式

大會의實況을 活寫로撮影 米國에보내고저

【平壤】同 蹴球大會의 實況을 活動寫眞으로 撮影하야 米國在住同胞에게 보내고자 最近米國에서歸國한 金相敎氏가 計劃하고 來壤하얏다。寫眞은 今十四日의 選手入場式을爲始하야 三日間의 白熱化할競技를 全部撮影케될터이라한다

籠球聯盟日割 一部를變更 入場料도밧기로

朝鮮籠球協會主催의 第一回籠球聯盟戰의 第四日인 明十五十六兩日의戰割中 培材팀은 平壤에遠征하야 不得已 後日로미루고 來明十六日(土)午後四時부터 中東學校코-트에서 中央對協實、中東對徽文戰을 行할터이다

그리고 元來一般에게 籠球熱을 獎勵하자는意味에서 一般에게觀覽을 無料로 公開하야온바이미 지난三日間의 經過에鑑하야 場內整理는커냥、競技를行할수업는形便임으로 各出戰校와協議하고 不得已入場料를 一般에게十錢、學生에五錢、出戰팀校學生에 三錢式 밧기로되엿다

運動記者俱樂部 幹事三人改選

京城運動記者俱樂部에서는昨十三日午後六時半 銀松亭에今年度總會를열고 幹事를다음과가티改選하고 京城運動場野球場네트뒤記者席을 每社一손마다抽籤하야 固定하고、記錄의統一을圖하며、月一回月例會를열것과、會員은依然 市內에本社를置한 日刊新聞과通信及大朝、大每를加하야 十四社에限하기를 決議하고散會하얏다

◇新任幹事二松村(朝鮮新聞) △大野(京城日報) △李吉用(東亞日報)

殖銀13 府廳4

京城府廳對殖銀野球戰은 昨十三日午後四時卅五分京城運動場에서 審判(球)高須、(壘)横田平島、殖銀先攻으로開始한바 十三對四로 殖銀大勝하얏다。[閉戰六時卅五分]

兩軍投捕(殖)李榮敏、池田―田代、早速(府)小野原―佐藤、三壘打金貞祐、岩田、二壘打鈴木攻、新美、殺投池田一、小野原一

得點	
殖	080100130=13
府	010101100=4

스포-츠課稅 中止하기로內定

스포-츠의興行化傾向에對한防止策으로 東京府當局에서는 野球其他의 入場料를밧는 大會에 스포-츠課稅를 明年度부터施行할方針으로 調査中이든바 最近 文部省이 積極的으로스포-츠淨化의態度를 明白히하야 入場料의徵收方針은 場內整理其他競技에要하는經費에充當하는 程度에限定할것、營利를目的으로하는競技에는 選手의出場을 禁止할것 等 其他學生스포-츠淨化革正에最善의努力을하고잇슴으로東京府當局에서는 一時中止할方針을內定하얏다

柔道의近況 그由來와本質 4

李景錫

歐洲諸國에서도 盛行하나 그中에 英、獨、伊와 루마니아及홍아리等 더하다고한다。伊太利에는二十年前에 日本서修行한『오렛치』氏가 指導役에잇서 그 弟子가 七千人이나 된다고 하며 現今羅馬에 全伊太利柔術聯盟本部外지잇는데 大端히 盛行되는모양이라한다。『루마니아』國에서는 前攝政官을 總裁로하고 警務總監이 會長、日本公使가 名譽會長이라하며 그指導는 石黑六段인데 再昨年에그政府의勳章外지바덧다。

獨逸도매우盛行하는데 그中伯林에만잇는 柔術俱樂部가十餘處이며 그修行者가 一萬數千餘이라한다。그밧게도『게룬』『프랑크폴드』、『안』、『마인』、『뮨헨』、『드레스덴』、『라이프치히』等이 가장盛行하는 地域들이라한다。數年前에『프랑크폴드』에 英國倫敦서 한團體가柔道遠征을간일이잇섯는데 그結果『프랑크폴드』가敗하얏다。그러나敗한것은 念頭에두지안코 머지안하 獨逸이英國으로 遠征을行할決心이라고들린다。歐洲大戰에 큰怨恨을품은 獨逸民族은軍器利用의戰爭에서方向을轉換하지아니치못하게되어이로부터國民의士氣를 노피고保健을돕두어 다른무엇으로든지 지지안호라는中에 더욱適當한것이 科學과體育의方面이라한다。

倫敦에는 牛津、劍橋兩大學은勿論、其他學校와警察方面에서도 相當히만히 修行한다고한다。歐洲의情況은 上述한바와갓거니와 埃及에서는 昨年부터 대단한熱心으로 柔道를宣傳하고잇는中이라한다。

印度에서도 『타고루』翁이東京을차저갓슬때에 講道館長嘉納氏에게 敎員推薦의依賴를하야 高垣氏를派遣하야 印度의 만흔靑年男女에게 가르키고잇다한다。

筆者가 講道館에서修行中에 印度人『데스칸데』君과 交分이두터웟는데 그는 印度에柔道를널리퍼트리기爲하야 派遣된사람이다。

오늘朝鮮안에잇는 柔道家諸氏도 上述한周圍에處하야 內外에對하야 重大한責任이잇다는것을 勿論깨다를줄압으나 今後만흔努力과 研究機關을設置하고 廣汎한範圍로 研究를하야 有爲한靑年을만히養成하야서、우리社會에 指導의大任을成就하기를바라며 아울러 一般社會有志들의 이에對한多大한援助와 協力이잇기를바란다。

끄트로拙稿를마칠에잇서서그동안 만흔努力을앗기지안코指導에奮鬪하시는 武道館과講武館、및두師範姜樂遠、韓鎭熙兩先生에게 感謝를드린다。(끗)

1931年5月11日 씀

六中等野球聯盟 日割場所決定

京城日本人六中等校野球聯盟은 今十一日에 그發會式을行할터인바 實業野球聯盟戰日割을避하야 旣報한스케-쥴에서 一部를變更하야 다음과가티決定하얏다、入場式은 來十七日午前九時京城運動場에서 行할터이며 場所는 京은京城運動場、龍은龍山鐵道球場이다

17日(京)京師―龍中(前10時)
善隣―鐵道(後 1時)
京商―京中(後 4時)
21日(京)京師―京中(後 4時)
24日(龍)善隣―龍中(後 1時)
京師―鐵道(後 4時)
26日(京)鐵道―京商(後 5時)
28日(京)京中―龍中(後 4時)
31日(京)京師―善隣(後 1時)
龍中―鐵道(後 4時)
2日(龍)京中―善隣(後 4時)
4日(龍)龍中―京商(後 4時)
7日(龍)京中―鐵道(後 1時)
京師―京商(後 4時)
9日(京)善隣―京商(後 4時)

六大學野球戰 明大4早大0 早明二回戰經過

【東京發電通至急報】 비로因하야延期를거듭하든 六大學野球리-그 早明第二回戰은 今十四日午後零時半 神宮外苑球場에서 開戰、審判(球)新田(壘)三宅、藤田、明大先攻、早大는伊達―三浦、明大는鬼塚―井野川의뻿터-리이다

得點	
明	000010111=4
早	000000000=0

米選手決定【뉴욕十二日發電通】來二十一日 몬트리올에서 擧行될 데컵戰 아메리카손二回戰 亞米利加對加奈陀의 米選手는 미르츠、우드、사티-・만긴等四選手로決定하얏다

第一回 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
來廿七日부터四日間 於靑年會館後庭
◇參加申請은廿二日外지YMCA體育部로
參加規定 學校팀以外에는 永續性이잇는團體로 組織後滿一個年以上된팀에限함▲選手五人、候補五人▲社會팀에限하야는十八歲以上된者에限함▲參加證一團에二圓▲抽籤은廿五日午後五時YMCA에서
主催 YMCA 後援 朝鮮體育會 東亞日報社

모히中毒者責任治療 金剛山療養院 外金剛溫井里

唱歌集 선발창가집 (獨唱合唱) 金明詰氏編
世界에서가장어엽분노래數十曲 愛歌、民謠、童謠等
印刷는西洋樂譜보다더鮮明하고 定價는단貳拾錢
品切前에速히振替로注文하시요
平壤府下水口里九五 振替京城一八八二一番 金明音樂出版社

性!性! 不感性의본家庭圓 足바라는본性의滿 特의快感剌戟與奮劑淸춘乙照會 大阪市萩之茶屋驛東 幹美堂

今般弊社에捺染部를設置하옵고多年間日本京都에서 捺染工業에實際從事든『李福運』君을請聘하와
優勝旗 大賣出旗 廣告旗
其他各種旗等을精製하오니一次試用하시옵

京城府長沙洞八十番地 東洋染織會社 捺染部
振替口座京城六六三番 電話光化門一三二八番
東亞日報鍾路三丁目請求所 鍾路三丁目下寄 電話(光化門)一七五番

ゼニワ의大懸賞 御愛用者優待
거품과향긔조흔 ゼニワ(표돈)石鹼
頭髮의營養이되는 ゼニワ(표돈)香油
트지안코희게하는 ゼニワクリーム 돈표크림
頭髮을아름다웁게 ゼニワポマード 돈표포마드
應募規定
一、돈표化粧料 돈표비누 中에서 어느것이든지조흡니다。空箱三個를一組로하야 抽籤權一個로합니다。
二、空箱을뒤집어一枚에住所姓名을分明히쓰십시요。한분으로멧組든지좃습니다。應募者에게는公平히抽籤하야、左記賞品을드립니다。(한個도空籤은업습니다)
◇締切……昭和六年五月末日
◇抽籤……昭和六年六月末日
◇送法……狀袋에二錢切手를貼付하고 封하야보내시압
◇送處……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一丁目 東亞化學研究所懸賞係
賞品
一等 錦紗御召地 壹反
二等 蓄音機 壹台
三等 金側腕時計 壹個
四等 電氣アイロン 壹個
五等 高級スーパー石鹼(三ケ入) 壹函
六等 ゼニワクリーム(四十五) 壹個
七等 ゼニワポマード 大(四十) 壹個
八等 ゼニワポマード 小(三十) 壹個
九等 ゼニワクリーム 小(十五) 壹個
十等 實用ゼニワ便箋(五十枚) 壹冊
無記名空籤無

東光五月號出來
大好評의四月號를뒤니어서 活字改正으로面目一新、內容倍增。冊店에서 賣切되기前에 現代의焦眉的大問題六十餘種記事滿載好評嘖嘖 定價三十錢 京城西大門町 東光社(振替京城一一〇〇番)

母親은病兒唯一의名藥입니다
育兒常識이瀕死의病兒를살린다
눈을멀거니뜨고니를가는어린아이의입에넛는금빗환약이尊貴한母親의熱愛에넘치는名藥樋屋奇應丸의偉効로病魔가곳消散되고愛兒는다시元氣健康을回復합니다。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救急、治病、保健의三大所任을完全히다하는小兒藥은다만이것하나、
主効 간긔、신열、경련、吐乳、下痢、疳症、痲疹、弱한小兒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十錢
大阪市北區天滿 本舖 樋屋奇應丸本舖 樋屋合資會社

移出入 重要品額 去月中狀況

四月中의 對日本貿易은 旣報와가티 移出二千二百七十二萬八千餘圓, 移入千九百八十六萬四千餘圓, 移出超過二百八十七萬四千餘圓이엇는데 그 重要品의 移出入價額別과 前年同期와의 對比는 알에와갓다 (以下單位圓△減)

◇移出重要品

品目	今年	前年比較
米及正租	一三、一五[illegible]、一〇八	五、六四九、八八四
大豆	一、〇〇八、六五一	△ 四三、九九[illegible]
魚類	[illegible]	△ 三三四、[illegible]
乾鰯	四四三、六三[illegible]	九四、六九[illegible]
魚油	[illegible]	△ 一六、四〇[illegible]
綿絲	[illegible]	△ [illegible]
鰯	[illegible]	△ 一〇〇、一[illegible]
生絲	一、五二一、七四[illegible]	△ 五四五、三八〇
柞蠶生絲	六八四、七〇〇	一二四三、三[illegible]
石炭	一三四、六[illegible]	六六、六四[illegible]
金鑛	八七、八[illegible]	六七、六九[illegible]
鐵	四九七、一〇[illegible]	△ 二三、七[illegible]
牛	三三八、[illegible]	八八、一[illegible]
洋紙	一六〇、二[illegible]	三八、〇四[illegible]
木材	一七八、三[illegible]	七七、九八四
肥料	一、〇八八、六九七	△ 一三八、二八[illegible]
其他諸品	四、〇五二、四四[illegible]	△ 四三八、四四[illegible]
合計	二二、七三八、七[illegible]	七、八四四、〇[illegible]

◇移入重要品

品目	今年	前年比較
米及正租	六八、三八一	△ 一〇四、八〇四
小麥	四三四、三五五	△ 三三四、一二[illegible]
砂糖	一二九、一五[illegible]	△ 一四四、四四[illegible]
精酒	八八四、四〇八	△ 一三[illegible]、三三[illegible]
麥酒	三六二、四五[illegible]	△ 一八八、四〇一
揮發油	一六八、一三[illegible]	△ 一〇四、八[illegible]
綿絲及打綿	三二一、九[illegible]	△ 一二八、九[illegible]
綿織絲	四五〇、三六四	△ 一六五、六〇[illegible]
生金巾生씨팅及生細布	三四八、八六	△ 六六五、三四[illegible]
晒金巾晒씨팅及晒細布	三一四、四二一	△ 一八八、一三九
毛織物	四三八、六六四	△ 三四〇、八九九
絹織物	九八九、八四一	△ 三七七、三〇[illegible]
洋紙	四八八、八三四	△ 一二九、七三[illegible]
石炭	二三七、二六八	△ 一九二、八〇[illegible]
세멘트	一四四、三[illegible]	△ 一〇四、三五九
鐵板	一五九、九〇二	△ 一八、一三四
機械類	七八〇、〇三三	△ 一四一、二二〇
木材	一二〇、三〇二	△ 二二九、七[illegible]
肥料	九九〇、八二三	△ 一、三六八、四八一
其他諸品	一二、四五三、三八六	△ 三、一〇〇、四四三
合計	一九、八六四、三二九	△ 八、三六三、〇〇六

鰯油肥共販 協定에調印
總督府關係者가出席
◇十四日에開催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四國水産課長同會합에 慶南北、江原、咸南北 五道의 水産主任官、水産組合及販賣組合의代表者 殖銀朝鮮와 三菱、合同油脂各會社의代表、總督府關係者等이 列席하야 鰯油肥販賣協定에對하야 協議하고 正式으로協定契約의調印을 하게되엇다 水産組合의起債에依하야 殖銀으로부터 融通을바들 總額七十一萬一千圓의 仕込資金은알에와가튼標準에依하야 水産組合에서 組合員에게 貸出케되엇다

(가)帆船刺網一隻에 百五十圓 三千四百四十隻分五十一萬六千圓
(나)機船刺網一隻에 二百五十圓 四百八十隻分十二萬圓
(다)機船巾着一隻에 二千五百圓 五十隻分七萬五千圓

는데 이것은鮮島方面이大豆作으로 淸津에 나오는것이 만흔外닭이며 此海港別數量은如左하다

▲釜山 二噸餘南海 ▲群山 今 元山 [illegible] ▲木浦 四 城津 四 ▲仁川 [illegible] 淸津 [illegible]

定款의 改正案 殖銀에서作製

十八日에 開催할全朝鮮銀行大會에서는 旣報와가티 不動産抵當證券法施行에關한 作業上程에對한 意見을 交換할터이라고한다

케되엇는데 殖銀은 日本에서出題가 具體化하는 同時에同法施行에 關聯하야 當然히생길定款의改正에 着目하고 共此調查에 着手하얏는데 이미大體改正案이作製된모양이다

運合問題討議 商工聯合會가

京城商主聯合會及京城商工組合聯合會에서는 十五日 午後四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三會聯合役員會를열고 運送合同成立에對한 意見을 交換할터이라고한다

安取開市延期 十八日頃일듯

【商通安東發電報】安取는十四日前場부터 開市케되어 各仲買店에서도 各各關係方面에 通知를發하얏더니 關東廳의 審議가 遲延한外닭에 不得已三、四日開市를延期하얏스며 尙且 關東廳의 審議는 一兩日中에完了할터임으로 느저도十八日에는 開市할터이라한다

米倉庫에 滿洲米增
米數量도增加

米倉庫會社에서는 五月中旬外지 入庫八十萬俵突破를 目標로 하고잇는데 十一日現在高는 알에와갓다

▲鎭南浦 二六八、六五七
▲仁川 一七四、一四三
▲群山 一六六、九四三
▲釜山 一四一、二九〇
▲木浦 四七、四一一
▲計 七九八、四四四

으로十四日鎭南浦에서一萬四千俵의 出庫가잇고 不遠入庫될一萬二千俵와 差引하야 겨우二千俵의 增加로群山、仁川의 出庫量을加算하면 八十萬俵突破는 目下에어려울모양인데 前年同期의五十三萬九千八百八十八俵에比하면 二十五萬八千五百五十六俵의激增이다 그러나 今月中旬을 最高로하고 今後는 漸減傾向이될것이며 一方滿洲粟의 入庫가漸增할것은같의關係가잇서今後는 此傾向이 漸次顯著케되리라고한다

朝運合併總會 今月中에開催

朝鮮運送會社와通運其他合併에關한 事項은 今月末에 定期總會에 附議할터인데 手續上關係로 定期總會에는 合併顚末만報告하고 合併에關한것은 五月中臨時總會를열고此에附議케될모양이다

大豆各港到着 四月中數量

四月中朝鮮內主要港港地에鐵道便으로 到着한大豆는 一萬二百三十二噸으로 前年同月에比하야 二千四百餘噸의增加이엇

日本의繭資金 六千萬圓融通
農藏兩省이協議結果

【東京十四日發電通】繭資金六千萬圓融通件에 對하야는 目下로 農林當局이 大藏省에 交涉中이던바 結局貸付로決하라고 月末의 預金部委員會에 附議케될 모양이며 條件은 總額五乃至六千萬圓,利率은預金部에서 四分五厘 勸銀農銀等에서 五分,期間은一個年이될러라고한다

春繭標準 價格協定
六道의協議會

今春繭의 標準價格協定에 對하는 昨秋以上의困難을 늣김으로 不遠春繭의出廻가 엠흐고南鮮六道의 蠶業主任官을 總督府에 招集하야 協議會를 개하게되엇다

連絡荷物協議
朝鮮日本滿洲

二十七日로부터二十九日外지 松山市에서 日鮮滿聯絡 荷物事務協議會議가 열리게된바 이에 對하야 鐵道局에서는 諸富貨物主任을 비롯하야 山內、烏井書記等 庶務課大塚書記、京城運輸事務所의 遠藤書記、有田京城驛貨物主任、釜山運輸事務所 石川營業主任兼行書記、鈴木釜山驛貨物主任淺木同小荷物主任等이出席할터인데鐵道局에서提出한議題는 主로荷造改善小荷物事故로因한損害賠償通關關係事務等二十三問題이다

歐亞連絡會議 來月十五日에

【東京十三日發電通】歐亞連絡會議開催期에對하야 獨逸側에서 六月十五日 開催를希望하여왓는데 鐵道省에서는 異議가 無함을 返電하얏다 開會期日은 事務管理者인 勞農政府가 各國의意向을 徵하야 決定通知하기로되어잇는데 아마 來月十五日로될것이다

朝鮮工業協會 總督府에陳情

朝鮮工業協會에서는八日理事會의決議에依하야 十三日工業發達을爲하야援助를總督府에陳情하얏는데 田川常務理事는總督府에出頭하야 口頭로서또陳情하얏다

四月中 金銀貿易
移出六百餘萬圓 移入七千三百圓

四月中의朝鮮對日本의金銀貿易은 移出六百八十萬圓千八十二圓으로 前年同期百十七萬六千百八十五圓에比하야 五百六十二萬七千八百九十七圓이增加하고 移入七千三百四十七圓으로 前年同期八千九百四圓에比하야 一千五百五十七圓 減少이엇다 다시一月以後累計를보면 移出一千六百六十八萬四千五百三圓으로 前年同期四百七十二萬五千五百三十七圓에比하야 一千百九十五萬八千九百六十六圓의增加이며 移入一萬二千五百二十九圓으로 前年同期十萬二千七百七十八圓에比하야 九萬二百四十九圓의減少이엇다

今年設計 乾繭場數決定
國庫補助額이三萬圓 全朝鮮六個所

今年度에 設置할乾繭場은 豫定대로 全朝鮮六個所에 알에와가티決定하얏는데 不遠各道地方費에國庫補助金三萬圓으로써各各交付指令이잇슬터이며 乾繭裝置機는 帶川三光式 또는帶川式으로 一晝夜乾燥能力은 一個所百石乃至二百五十石으로計一千二百石의 乾繭이될것이다

▲全北=錦山郡錦山面
▲慶北=安東郡安東面
▲黃海=金川郡西泉面
▲平北=雲山郡雲山面
▲江原=三陟郡三陟面
▲江原=襄陽郡襄陽面

米國事業界가 繼續沈滯狀態
利下後影響注目

【紐育電】(一)紐育準備銀行 今回利下는 過剩資金의 分散에 잇는 內外遊資의 消化를 誘導하고 또 人氣刷新을 圖하고 機運을 주라고하는 一面投資市場에서 外國資金의 移動傾向의 機運을 주라는것으로 그影響이 注目된다
(二)利下後의 市場은 外債와 優良社債上伸하야 强調、株式은 一時反撥하얏스나 다시 低落을한다
(三)콜ー마네ー는繼續步合一%引下 銀行引受手形市場步合九十日物買一、四分一%月越商業手形步合不變
(四)三個月期限大藏省證券五千萬弗入札平均利廻一、一八%
(五)週間起債三千七百二十三萬六千弗
(六)事業界는 夏枯閑散期를압두고 沈滯鋼作業率四十七%「유ー에스・스ー틸」四月中의所持殘高 九萬七千噸 減외 三百八十九萬七千噸、鐵道貨物輸送高가또減退 綿花小麥强硬
(七)仲買貸付準備銀行發表十六億九千九百萬弗準備銀行貸出全國一億五千萬弗紐育二千八百萬弗金準備全國三十一億七千二百萬弗、紐育十億八千七百萬弗準備率全國八三、四紐育八七、五%

上旬鐵道荷物
米穀量이增加

五月上旬中 局線內 貨物發送總量은 十四萬五千五百七十八噸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約三千餘噸의 減少이엇는데 米는前年보다 約四千噸이 增加하고 鹽도 六千餘噸이增加한바 減少한것은 세멘트、石炭、鑛石、大豆、木材、繩叺等으로 모다約二、三千噸식의減少이다

外國小包便郵物

遞信局의 統計에依한즉 最近一年間의外國小包郵便物의輸入數는二萬三千七百六十八個로이中普通小包는 七千七個、書留小包一萬六千六百十七個、價格表記小包百四十四個인데 이것을 發出國別로 보면 알에와갓다

▲中華民國一一、六四二 ▲亞米利加合衆國一〇、三四五 ▲加奈陀四五一 ▲英吉利四二五 ▲佛蘭西三二九 ▲滿洲一九五 ▲獨逸一一九 ▲香港六九 ▲比律賓四三 ▲瑞西二九 ▲英領印度二三 ▲墺地利一八 ▲布哇一七

上旬朝鐵運輸成績

朝鐵五月上旬의 運輸成績은 肥料「세멘트」季節向諸雜貨의移動이增加하야 一日一粁平均收入은十一圓九十二錢이며 總收入는 五萬九千七百十圓으로 前年同期보다三千七百十八圓의 減少인데 收入豫算보다는 九千二百

十三日米鐵道發送

	今年	前年
釜山	八一一	三八九
大田	一、〇九六	七八一
京城	二六〇	一七六
小壤	二八五	四三七
淸津	七五	八
合計	二、五二七	一、七九一
累計	二六、三五一	一九、五一七

▲貨車收入三一、四五〇圓 ▲旅客車收入一七、六二四圓 ▲雜收入一、八三六圓 ▲合計五〇、九一〇圓

糖業聯合會

糖業聯合會에서는 十二日午後本部에서 火曜會例會를열고今週賣價와今年度第二期即四五月分溶糖數七十萬「피클」中期末外지賣行되지안흔在庫品에關한件을協議한結果第二期末賣品은前期와가티後期即第三期에繰越하기로決定하얏는데繰越數量은 前期의 繰越數量보다八萬「피클」增의 約十萬「피클」가량으로第二期即四五月中의 全國精糖數量은 溶糖數量으로 推算하야 約六十二萬「피클」로觀測이된다

取引停止

▲京城黃金町一丁目一四八 合資會社 角正材木店 森平幾松 ▲京城中林洞三三七高陽釀造所李完培 ▲京城本町一丁目三三 雜貨商富澤周太良

市勢와市況 (四日)

株式 繼續의 伸氣

前場昂騰

昨後場에 急騰하얏든바 今朝에 阪商의續騰임을보고 當地도追隨高를示하얏스나 上稍가縮少되고 引際에多少軟退하얏다 ▲東新六十錢高인百二十二圓에寄付한뒤 二十錢外지잇섯다가 阪地의伸悩로三圓

東京公債市況

【東京十四日發電報聯合】東京國債市場正午氣配▲甲號五分利九五、三〇▲第三回五分利九九、四五▲一同四分利七九、〇〇▲二同四分利八〇、〇〇▲佛貨四分利一四四、三〇▲二十年物九七、七〇▲十七年物一一▲二十八年物九六、四五▲十八年物ー▲二十八年物九

前場賣買 (賣)

▲大新一〇松山二〇新田一〇田道三〇(買)德泰一〇立山六〇計七〇▲東新(賣)大林三〇白井二〇德泰二六〇京證七〇成淸一〇松山九〇古野一八〇新田四〇田道一〇立山八〇白樂六〇(買)大林五〇正崎三〇德泰五〇京證二〇〇松山二一〇古野一二〇田道三〇立山二三〇計九二〇

▲單位十錢▼	京取	大阪	阪仁鞘
京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京取本位十四日前場 地場後場終値比較】

諸株受渡

▲京取株는渡에白井八十株 受二十株로 代引이增加하야 九百株▲大新株는 渡株가업고 受에大林四十株 立山十株白樂三十株로 代引이 減少하야百十株 ▲東新株는 渡十株受에立山五十株京證一千四百株古川一千百株外十株로不足株는增加하야 二千五百五十株

買는 생각할바이지만 低價即押目買가當分은有勢케될것으로본다

後場續騰

前場에東新百二十一圓三十錢의 大引에不過하얏스며 大阪보다二十錢上稍에 ▲大新은 三十錢高인五十四圓五十錢寄後 三圓九十錢으로軟退하얏다

弱材에逆行高
高價의警戒裡

昨今의形勢는 雙方이 모다氣迷者를케하나 時勢의底意가强硬하고 또小仕手戰으로 因한小幅의波瀾各商狀인바今朝에 「스ー틸」株百九弗臺의新低價를出現하얏스나此에對하야 時勢는逆行高로 弱材料를 無視하는氣勢이엇다 그러나高價에는 警戒의 人氣가 相作되는外닭으로 上伸한뒤에는 곳주춤거린다 當地는 連日東新이 大阪보다顯著한 上稍買의人氣이엇든것이 今朝에 百二十三圓臺를보고는 高價買의警戒가생겨 그上稍는急速히 縮少가되엇다

押目買의時代

米國不況의深刻을보고도依然彼岸의火災視하고 何等反響이업시 東京大阪은 中野側의買玉을 中心으로한小波瀾이 잇슬뿐으로 大體에잇서는 强弱兩方이 모다將來的形勢를觀望하고잇다 그러고 對內的으로는 特別한新味臺의인材料가업고 다만低金利風이 擲補되는만큼 陳腐한低金利의材料라고하나 下勢를막는데는 依然相當한힘이 潛在하야 요새는寸退尺進의 時勢인感이不無하다 똑스ー탈」株의底拔的低落에對하야 이것은 곳底入을 促하는것이라는見解가 만흔만큼 그의落潮를 그다지恐怖視치안는터이다 이처럼 一般人氣가 硬化되엇슴으로 只今에高價買는 생각할바이지만 低價即押目買가當分은有勢케될것으로본다

主要株取組高

▲京取(賣)白井四〇德泰二九〇古野三五〇新田五〇(買)白井二〇山口五〇京證七〇松山一〇〇古野二三〇新田四〇田道五四〇立山二二〇▲鍾新(買)一一(買)德泰一〇田道一〇▲大新(賣)大林二〇白井一〇德泰二一〇古野一七〇新田九〇立山五〇白樂一〇(買)白井一五〇山口一〇京證二六〇松山一一〇田道一〇立山一三〇▲東新(賣)白井八〇正崎一三〇德泰六八〇山口五〇成高一〇松山二一〇新田四〇田道二、四七〇立山一五〇白樂一一〇(買)大林二〇白井一六〇德泰六二〇京證二、二八〇古野一、一〇〇新田一〇〇立山四六〇

京取短期前場步調
◇大新=[illegible] ◇東新=[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大新=[illegible] ◇鐘新=[illegible] ◇日産=[illegible] ◇東新=[illegible]

京取短期後場步調
◇大新=[illegible] ◇鐘新=[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大新=[illegible] ◇日産=[illegible] ◇東新=[illegible]

依然買氣
昨止同價로初付한後에 十六圓十八錢에 三節漸高에열하 ㊅買로二十九錢에强化하야 二十三錢에 續高하니 天에서또節節買進하야 買氣挫折되어 다시二十錢에 反落하는際에 大阪十四錢을보고 人氣더욱軟化하야 十七錢에 低弛하야 結局十八錢에止하얏다

後場軟味

前場에 前場의先物은 前止보다二錢高인 十六圓二十錢에 始한뒤同價에 釘着되엇다가 第五節에十五錢으로軟化하고十六錢에止하얏다

人氣漸漸離散

今新市發會한後벌서半個月의 時日이 經過하얏스나 小幅保合으로 一貫하야 當分變動이잇슬것갓지 아니함으로 賣買方彼此에 全部見送하야 市場의賣買는 겨우 出來不申을 免하는狀態이오 一日의賣買高가 萬石에達하지못하는光景이다 月初에 賣買間着手한便은 그대로 固持하며

▲單位錢▼	仁川	大阪	阪仁鞘
三限	[illegible]	[illegible]	
四限	[illegible]	[illegible]	
五限	[illegible]	[illegible]	

【仁川本位十四日前場 先限後場止値比較】

阪仁鞘의擴大

阪仁商狀이小幅保合인것은事實이나 그러한中에도 今新市初發會로부터四五十丁强化한곳에서 殆히 膠着되는 光景이大體向上的步調라할수박게업다 그러한데 月初에는 大阪仁川의 鞘가二百八十丁에 縮少되엇든것이 一派가 織新賣進하는바람에 今에는 仁川商狀이 종더頭重하야 阪仁의鞘가三百丁以上에 次擴大되는光景이다 仕手陣容이 지우쳐서는 賣方이 一層有勢하야 每樣壓迫的作用을하는 傾向

知의賣로

合을 持續할모양이다 今後 一切見送하는바 材料는出盡에서 一切見送한바 ... 分岐되는機會를 기다리는 意味에서 今後 分岐作用을할것은 植付의 天候如何인데 그植付外지에는 아즉도一個月의 時日이 經過치아니하면 樂悲를 云謂할수업슴으로 今後한참더 小幅保合을 持續할모양이다

各店俵合

▲當限(賣)[illegible] ▲中限(賣)[illegible] ▲先限(賣)[illegible]

米期 一樣의 保勢

前場頭重

昨後場에 六圓十八錢十 當地人氣는 十九圓에 保勢로止하얏는데 今朝大阪初付는 四丁高付하야 十九圓에 잇서서는 賣方이 一層有勢하야 每樣壓迫的作用을하는 傾向

堂島前場情報

【商通大阪發電報】今前場에 新潮는 寄에 八百石後 二、三百石식팔엇스나 此는山種系와 正米系의乘替로 九節과止低는 東京側으로因한것이다 尙且東京側 正米側은 二十錢을 指値賣外에 神戶側賣에對하야 株式側은 自己地高로사고 中東側、京都側도賣하얏스나 地場은乘替이엇다

米豆節錄

▲今朝大阪은十九圓二十錢寄에 好轉하나 仁川은如前히 伸悩相持,天에서 繼續付하는緣故인듯 ▲忽히 人氣는 衝動할만한 機도업슴으로 一氣强化는 不許하거나와 各地行動이 低落的步調는아니다 ▲그러하나 昨今에는 賣買間에 한번着手하면 口錢버릴각 容易치 아니함으로 强敎派全部가 見送하야 商況이 漸漸閑散化 ▲大體活躍的形勢라하면 좀사서 持久하는外에 업겟지、少幅往來에 「자부쓰」기는 禁物 ▲植付의 天候如何를 云謂할 바가 되지아니하면 上下間에 큰時勢가 업슬모양이라 하야 人氣가離散

延取 各地가 無味 (四日)

▲京城前場

高價에는目前資物이 潛在하야 阪仁도 反勢이업고 五圓七十八錢에 寄한 뒤 一次世으로 二同에는株式綿高에作하야 八十三錢이엇스나 高價에는 賣物도잇서 八十二錢에서 保勢이엇고 五同에는 地軟弱으로 八十錢에서 七十七錢에서 七十八錢에서 七十九錢이엇

▲京城後場 (定期)

前場步調 六月末▲一同[illegible]▲二同[illegible]▲三同[illegible]▲四同[illegible]▲五同[illegible]▲六同[illegible]

定期强음보다 後場步調 六月末 ▲一同[illegible]▲二同[illegible]▲三同[illegible]▲四同[illegible]▲五同[illegible]

▲群山後場 (十三日)

定期無活氣를보고 無勢로 賣買不成이며 二同가 모다賣買不成、五同⑪賣山本買로 八十一錢이엇고 매우閑散裡에 散會하얏다

▲群山前場 (十四日)

期待의傍觀으로 一同賣買不成 二同五圓八十二錢後八十二錢賣로 賣買不成이엇고 止에는 正米事情이不振하야 七十八錢으로 前取히止하얏다

▲釜山後場 (十三日)

新動機待로 雙方이傍觀하고 期米의保勢로 至兩閑散을 繼續한뒤 期米底强의 報를보고 龜田의利喰賣退가잇서 三木買向으로 九十錢을保勢이엇다

▲釜山前場 (十四日)

勢無味로 環境은完全히 材料가 되지못하고 다만仕手戰으로 五圓九十六錢에 始한뒤 買方突込警戒로 步調가氣餒하야 阪地도 上支외모양임으로 九十錢外지 軟化하야 結局九十錢으로 止하얏다

▲大邱後場 (十三日)

阪上寄보고도 買進치안흐로 用會의賣買가잇슨뒤 期米止持 로모양으로 傍觀하얏스며 止는 今의賣買가關落하얏스나 漸落하얏다 「마바ㄹ」賣이엇스나

▲大邱前場 (十四日)

限도平凡納會이엇고 當分材料 도 期待키어려워 漸落로六圓十錢에 始하고 二同同價에서 雙方 의無勢로 五同外지 賣買不成 六同에는 阪地止弱으로 〇六錢이

▲木浦後場 (十三日)

地의强硬으로보면서 場面依然 無活氣로 非ゲタ의「바이가에」 로 六圓에同価한뒤 定期의不振으로 賣買가업고 二同에서四同外지 六圓二錢으로 不動閑散이엇다

▲木浦前場

無時勢觀으로 新規賣買가업고 新市待와在遠賣買不成 二同에 六圓〇二錢〇四錢이엇스나各番도 不振으로 四、五同賣買不成 六同에六圓이엇고賣買高는六百石으로 閑散裡에 止하얏다

正米 各地의市況 (四日)

京城不動

産地頑强이엇스나 在米豊富로 市中에는何等의影響이업고 地場은 依然高價에應치안는外닭에 「三마ㅡ크」

仁川保合

正米는持米者의 如前賣倂으로 底意强硬하나 日本移出에생이 잘맞지아니함으로 無勢를持續하얏다

釜山不變

市中은賣氣가 적고 오축滿州이 出廻를엿보아 三千叺의 入荷가잇서 二千叺의 賣買되엇스나 定期의 保勢精白米의不振에壓迫되어 三等十五圓四十錢으로 亦不變保合의商狀이다

大邱無勢

産地의入荷가 漸減하고 今朝는百十叺의 出廻가잇섯슬뿐이나 地場의 作庫가 相當하고 市況無勢로 三等十五圓四十錢、四等十五圓 十錢으로 前日同樣이며 賣方大谷、山利 移出의買注文이업스나 低價로日本으로 三等八圓七十錢四等八圓五十錢이며 少量의賣買가 잇섯다

群山弱保

産地는底堅으로 十斛의逼着이잇스나 賣物은 依然僅少하야 週送되지 못하고 採算이 안되어・瀜猶賣應치안허 ㊂三等十五圓三十錢으로 五錢低 四等十五圓으로 弱保이며 白米는保勢의 姿三 物十六圓 四十錢

京城正米時勢

一等 京城地方米	[illegible]	[illegible]
二等 京畿	[illegible]	[illegible]
三等 京畿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時勢

一等	[illegible]	[illegible]
二等	[illegible]	[illegible]
三等	[illegible]	[illegible]

株式 (一四日)

京取短期取引

	前場	後場
京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京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illegible]

期米 (一四日)

代引算定日步 (十三日)

[illegible]

仁川前場

[illegible]

取組高 / 賣買高 / 賣入價格

[illegible]

大阪前場

[illegible]

延取 (一四日)

京城 / 釜山 / 東京前場 / 各地期米

[illegible]

群山 / 大邱 / 木浦 / 大阪

[illegible]

大阪綿糸 / 大阪棉花 / 仁川大豆時勢 / 京城綿絲布時勢 / 橫濱生絲 / 大阪砂糖 / 海外砂糖

[illegible]

對外爲替 / 海外經濟 / 滿洲各地商況 / 安東取引所株 / 新平銀時勢 / 奉天票 / 京城手形交換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日本金利

[illegible]

職業紹介 大韓家庭職業紹介社 ... 國學總本店

筆耕 ... 實文館

■五月十三日부터五日間興行 料金은特히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메트로·골드윈메이어ㅡ社特作 그라렌스·뿌라운氏作品 妖男 쫀·길쌔ㅡ트氏 美男 그레타·갈보孃 主演 그女子의艶史 10
◇메트로·골드윈메이어ㅡ社超特作映畵 名匠그라렌스·뿌라운氏監督作品 에로틱艦隊 9
【豫告】 月世界의女子 유·파社特作 경푸스大陸突破 9
電話光九五九番 團成社

■五月十四日부터大公開 料金 階上 大人卅錢 小人廿錢 階下 大人廿錢 小人十錢
◇유니버샐社特作映畵 西部活劇 爭骨二勇士 6
◇파라마운트社特作映畵 明暗 짝크홀트氏 主演 명랑구리殺陣記 7
◇파라마운트社超特作映畵 大海洋活劇 戰艦鋼鐵號 12
【五月十六日부터(大還)는巨人의이 封切됩니다、村署號、스피오비、暴力團、반리버오、皆이第一、非常警戒】
仁寺洞(電光一二八一番) 朝鮮劇場

■五月十四日(木)부터公開 紹旋劇 大分水嶺 9
◇메트로골드윈메이어社作 原作 원니얍비ㅡ 巨匠 래자날또바ㅡ카ㅡ氏
◇코럼비아會社特作大名畵 아니다우女史 合作 同名舞臺劇映畵化 모ㅡ터이부 7
◇라좌ㅡ드달마지 海陸의覇者 6
狂亂의人形師 競馬車賣物記 市內 貫鐵洞 優美館